

交換 및 貨幣의 一般理論

林 元 澤

<目 次>

| | |
|------------------------|-----------------------------------|
| 序 論 | 3. W-W'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
| I 効用과 勞動 | III 貨幣의 一般理論 |
| 1.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 | 1. 貨幣의 一般定式 |
| 2.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 | 2. Menger·Wicksell·Marshall의 貨幣理論 |
| 3. 經濟剩餘 | 3. Marx의 貨幣理論 |
| II W-W' 過程에서 作用하는 交換法則 | IV W-G-W' 過程에서 作用하는 交換法則 |
| 1.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 | 1.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 |
| 2. 抽象的人間勞動 | 2. W-G-W'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

眞理는 全體이다.

Hegel*

Adam Smith 를 모르고서는 近代價格理論을 研究해서는 안되며 近代價格理論을 다 배우기 전에는 Adam Smith 를 읽어서는 안된다.

M. Blaug**

序 論

1) 本論文에서 筆者는 Marx의 勞動價值論과 Jevons·Böhm-Bawerk의 限界効用理論, 近代價格理論의 二大源泉을 이루고 있는 Walras와 Marshall의 均衡理論, 거기다가 또 하나 Malthus의 支配勞動量說·不等價交換理論等 都合 四個理論體系의 綜合統一을 試圖하고자 한다. 「交換의 一般理論」이란, 交換에 관한 그러한 綜合統一의 理論을 意味한다. 筆者의 見解에 의하면, 上記 四個理論體系는 서로 獨立(無關聯) 또는 競爭 關係에 있어야 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 서로 補完關係에 있어야 될 性質의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 四個理論體系의 綜合統一理論인 交換의 一般理論과 個別的인 上記 四個理論과의 關係는 具體的全體的 眞理의 理論對 抽象的部分的眞理의 理論의 關係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交換의 一般理論은 다음의 三個交換法則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즉 交換은 勞動단을 基準으로해서 行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効用단을 基準으로 해서 行해지는 것도 아니고, 効用과 勞動의 둘을 必然的인 二個基準으로 해서 行해진다는 것이 交換法則 I 이며

*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3 Aufl., Lassonsausgabe, S. 21.

**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revised ed., 1968, ix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 需要量과 供給量은 媒介變數 價格(相對價格·絶對價格)의 函數이며 價格(相對價格·絶對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이 一致되는 點에서 決定된다는 것이 交換法則Ⅱ이다(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 여기서 交換法則Ⅰ이 交換法則Ⅱ의 基礎가 된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交換法則Ⅰ은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의 本質 및 形態를 誘導해내는 基礎가 되기 때문이다.

交換法則Ⅰ과 交換法則Ⅱ는, 交換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人間對財貨의 關係의 側面에 關聯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交換理論이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속에 人間對人間의 關係의 理論이 包含되어야하는데, 바로 이것이 交換法則Ⅲ인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에 관한 理論이다. 이와같이 交換의 一般理論은, Sweezy의 所謂「人間對人間의 關係」(relations between men and men)의 理論과 「人間對 財貨의 關係」(relations between men and things)의 理論의 合成體를 이루고 있다고 할수있다¹⁾. 具體的全體의眞理의 理論으로서의 交換의 一般理論은, 上記 三個交換法則을 上記 四個理論體系로부터 個別的 無關聯의으로 吸收하여, 그것을 理論의으로 再構成함으로써 相即不離의 三位一體的結合體로 形成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個別的인 上記 四個理論의 抽象性은, 四個 理論이 三個交換法則의 全面的 把握을 하지못한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具體的全體의眞理의 理論으로서의 交換의 一般理論은, 交換이 行해지고있는 全期間·全段階에 대해서 適用될 수 있는 理論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 理論은, 物物交換經濟 $W-W'$ 에 있어서의 交換法則, 貨幣의 本質·機能, 間接交換=貨幣經濟 $W-G-W'$ 에 있어서의 交換法則 등의 解明과, 商業資本 $G-W-G'$, 貸付資本 $G-G'$, 産業資本 $G-W\dots P\dots W'-G'$ 등 資本主義의 交換을 規制하는 諸法則의 解明도 아울러 遂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交換의 一般理論은, 相對價格決定理論·貨幣理論·絶對價格決定理論等 三個分野를 包含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交換의 一般理論이 交換의 各段階에 어떻게 適用되느냐를 說明해내려 가는 途中에서, 抽象的部分의眞理의 理論인 Marx, Walras, Jevons, Böhm-Bawerk 등의 交換理論이, 어떠한 特定の 交換段階에 있어서는, 妥當性을 갖는다는것을 論證하고자 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Marx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은 $W-W'$ 의 初期에, Walras·Jevons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은 $W-W'$ 의 全期間을 통해서, 그리고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은 $W-G-W'$ 의 時期에 各各 妥當性을 갖는다는 것을 論證하고자 한다. 그에 대해서 Marshall의 交換理論은, $G-W\dots P\dots W'-G'$ 에서 妥當性을 갖는 資本主義의 絶對價格決

1)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p.5

定理論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以上の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各個의 交換理論은, 制限된 妥當性밖에는 갖지못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렇게보면 具體的全體의眞理의 理論으로서의 交換의 一般理論은, 抽象的部分的眞理의 理論으로서의 個別的인 Marx, Walras, Jevons, Böhm-Bawerk, Marshall의 交換理論을 適所에 配置함으로써 相互補完關係 즉 平和의共存關係에 두는 役割을 한다고 할수있다.

4) 貨幣理論은, 前記한바와같이, 交換의 一般理論의 一部分을 構成한다. 貨幣理論의 確立 없이는 絕對價格決定理論은 成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Marx의 勞動價值論에 立脚한 貨幣理論과, Menger의 効用理論에 立脚한 貨幣理論의 結合體로서의 「貨幣의 一般理論」을 構成하려고 한다. 筆者는 貨幣의 一般理論을, 한편에 있어서는 Marx의 貨幣理論의 修正補完으로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機械的인 貨幣數量說에 대한 反對理論으로서 展開하려고 한다.

5) 다음에는 交換의 一般理論 및 貨幣의 一般理論이 立脚하고 있는 方法에 관해서 言及하기로 하겠다. 筆者는 Bucharin의 다음 말에 도저히 無關心할수가 없었다. 「客觀主義 (Objektivismus) 對 主觀主義 (Subjektivismus), 歷史的觀點 (historische Gesichtspunkt) 對 非歷史的觀點 (unhistorische Gesichtspunkt), 生産의 觀點 (Gesichtspunkt der Produktion) 對 消費의 觀點 (Gesichtspunkt der Konsumtion). 이것이 Marx와 Böhm-Bawerk의 方法論上에 있어서의 差異點이다」²⁾. 私見에 의하면, Bucharin이 指摘한 이 方法論上의 問題는, 今日의 經濟學에 있어서도 여전히 解決을 要하는 問題點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三系列의 對立되는 方法을 綜合하는 方途를 取하기로 했다. 즉 客觀主義와 同時에 主觀主義를, 歷史的觀點과 同時에 非歷史的觀點을, 生産의 觀點과 同時에 消費의 觀點을, 各各 取하기로 했다. 그와같은 對立되는 方法의 綜合統一은, 交換의 一般理論 · 貨幣의 一般理論構成에 不可缺한 措置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 우리는 이 理論構成에 있어 先人들의 다음과 같은 概念 乃至는 理論을 繼承하였다.

- | | |
|--------------------|--|
| A. D. Ricardo | 直接勞動 · 間接勞動 |
| B. R. Malthus | 支配勞動量 · 不等價交換 |
| C. K. Marx | 使用價值 · 投下勞動量 · 抽象的人間勞動 · 單純勞動 · 複雜勞動 · 價值尺度 · 價格基準 |
| D. W.S. Jevons | 効用 · 限界効用 · 全部効用 · 限界効用 |
| E. von Böhm-Bawerk | 遞減의 法則 |

2) N. Bucharin, *Die politische Ökonomie des Rentners*, 2 Aufl., 1926, SS. 30~31.

- E. C. Menger 商品의 販賣力
- F. A. Marshall 需要價格 · 供給價格 · 消費者剩餘 · 生産者剩餘 · 貨幣의 限界効用一定
- G. L. Walras 需要量 · 供給量 · 需給均衡

7) 이 論文에서는 資本主義의 交換은 取扱하지 않고 前資本主義의 交換만을 取扱하기로 한다. 이 論文에서 取扱하는 內容은, 『資本論』第一卷 第一篇 「商品과 貨幣」의 內容에 該當된다. 그리고 또 「價値」概念은, Occam 의 面刀날의 原理에 따라 使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이 論文에서 取扱하는 內容은 全的으로 「價値論」에 관한 問題이다.

I 効用과 勞動

1.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

1) 먼저 우리는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의 規定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란, 端的으로는 財貨가 갖추어야 할 物理的인 sine qua non [不可缺條件]을 意味한다. 財貨가 갖추어야 할 物理的인 sine qua non 으로서는 使用價値 · 勞動 · 勞動對象 · 勞動手段等 네가지가 存在한다. 우선 使用價値에 관해서 말하면, 어떠한 物質의 客觀的物理的屬性이 直接的으로 消費財의 形態로서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켜 주든가, 또는 間接的으로 生産手段(勞動對象 · 勞動手段)의 形態로서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켜 주든가 어느쪽이 든간에, 그 物質의 客觀的物理的屬性이 어떠한 目的을 위해서 有用할때, 그 物質의 有用한 客觀的物理的屬性을 使用價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使用價値의 有無가 곧 어떠한 物質이 財貨냐 아니냐를 區別짓게하는 基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使用價値概念을 提供해준 사람은 Marx 였었다.³⁾

生産要素 勞動 · 勞動對象 · 勞動手段도 財貨가 갖추어야할 物理的인 sine qua non 이다. 이와같은 規定을 내린 사람도 Marx 였었다. 勞動對象 즉 自然素材 · 原料가 財貨構成의 物理的인 sine qua non 이 된다고 하는 點에 있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勞動과 勞動手段이 財貨構成의 物理的인 sine qua non 이 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問題가 있다. 어떠한 種類의

3) 「商品은 우선 첫째로 外的對象이다. 즉 그 屬性에 의해서 人間의 어떠한 種類의 欲望을 充足시켜주는 하나의 物質이다」(K. Marx, *Das Kapital*, I, Institutsausgabe, S. 39). 「하나의 物質의 有用性은 이 物質을 使用價値로 만든다. 그런데 이 有用性은 空中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商品體의 屬性에 의해서 條件지워지며 商品體없이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商品體自身은 鐵, 小麥, 다이아몬드 등과 같이 하나의 使用價値 또는 財貨이다」(ibid., S. 40).

財貨에는 勞動이 전혀 包含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自由財라고 불리우는 이들 財貨는 極少數(空氣, 물, 太陽光線의 세가지뿐이다) 이므로, 이것을 全의으로 無視해 버려도 何等 理論展開에 支障을 가져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財貨即勞動生産物이라고 規定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Böhm-Bawerk 가 非勞動生産物로서 看做한, 土壤, 森林속의 木材, 水源, 炭礦, 採石場, 油田, 鑛泉, 金鑛等 所謂 自然資源(Naturgabe)도, 勞動과 決코 無關일 수 없다는것은, I의 2-1)에서 보는 바와같다. 勞動手段은 勞動・勞動對象과 확실히 그 性質을 달리한다. 그리하여 Böhm-Bawerk 는 基本的 生産力으로서 自然 즉 勞動對象과 勞動의 두가지만을 들었으며, 勞動手段은 거기서 除外해 버리고 말았다. Böhm-Bawerk 는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生産에 있어 達成할 수있는 一切의 것은, 두개의, 그리고 다만 두개만의 基本的生産力(Zwei—und nur zwei—elementare Produktivkräfte) 즉 自然과 勞動의 結果이다... 自然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人間이 그위에 할수있는 것은, 모든 財貨가 그로부터 發生하고 또 發生하지 않으면 안될 두개의 根源(Doppelquelle)이다. 以外에 第三의 要素는 存在하지 않는다」⁴⁾.

勞動과 勞動對象이 말하자면 自然的範疇에 屬하는 것이라면, 勞動手段은 歷史的 範疇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便宜上 Marx 에 따라서 勞動手段을 物理的인 sine qua non 으로서 看做해 두기로 한다⁵⁾.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理論展開에는 아무런 變動도 惹起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Böhm-Bawerk 에 따라서 勞動手段을 物理的인 sine qua non 에서 除外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同一의 理論展開가 可能하다(I의 2-1) 參照).

2) 以上과 같이 우리는 勞動・勞動對象・勞動手段 그리고 使用價値等 네가지를 財貨構成의 物理的인 sine qua non 즉 財貨構成의 客觀的必要要素로서 規定해 두기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側面에서 보면, 財貨의 生産・消費의 物理的必然性的의 規定을 意味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財貨의 生産이란, 勞動・勞動對象・勞動手段等 세계의 物理的要素가 技術的으로 結合되어서 使用價値란 역시 어떠한 特性을 지닌 物的對象으로 變化하는 物理的 過程을 意味하며, 財貨의 消費란, 物理的인 使用價値가 物理的(生理的) 人間에 의해서 消滅되어버리는 物理的過程을 意味한다. 財貨의 生産・消費의 物理的必然性的의 規

4)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 I, 4 Aufl., 1921, S. 109.

5) 「두개의 基本的要素(two original sources)는 土地와 勞動이다. 그러나 勞動이 資本으로부터 받는 援助는 일찍부터 存在하였으므로 富의 生産에 있어 極히 必要不可缺(very necessary)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資本은 第三의 要素(a third source)이다」(R. Malthus,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1827 (Kelley) pp. 235~236.).

定이란, 財貨는 반드시 物理的으로 生産되어야 할 對象이며 財貨는 반드시 物理的으로 消費될 수 있는 對象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3)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는 말하자면 經濟客體라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經濟主體는 人間인데, 그 人間은 반드시 物理的(生理的)인 人間이라는것을 留意해둘 必要가 있다. 物理的(生理的)인 人間(經濟主體)과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經濟客體)사이에는 물론 物理的關係가 存在한다. 즉 勞動은 物理的(生理的)인 人間の 生理的에너지의 支出이며, 使用價値는 物理的인 人間에 대하여 或種의 物理的作用을 하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에 관해서 또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것은,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 그리고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經濟客體)와 物理的인 人間(經濟主體)과의 關係(物理的關係)는, 모두 「人間的意志·意識·意圖로부터 獨立된 性質」(Unabhängigkeit vom Willen, Bewußtsein und der Absicht des Menschen)을 지니고 있다는 事實이다⁶⁾. 즉 그것은 除去될 수 없고 變更될 수 없으므로 自然法則에 屬한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이 모든것은 Marx의 말을 빌어 表現하면 「鐵의必然」으로써 스스로를 貫徹하는 盲目的威力을 갖는다. 이리하여 우리의 第一命題는 「太初에 必然이 있었다」는것이 된다.

2. 財貨의 主觀的必要要素

1)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는 말하자면 財貨가 갖추어야할 物理的條件이다. 이 客觀的必要要素를, 心理的인 人間의 觀點에서 翻譯하면 主觀的必要要素가 된다. 그리하여 客觀的必要要素 勞動對象·勞動手段은 主觀的必要要素 「間接勞動」(indirect labor)으로, 客觀的必要要素 勞動은 主觀的必要要素 「直接勞動」(direct labor)으로, 各各 轉化된다. 만약 勞動手段이 客觀的必要要素에서 除外된다면 勞動對象 하나만이 間接勞動으로 轉化된다(I의 1-1) 参照). 그리고 또 客觀的必要要素 使用價値는 主觀的必要要素 効用으로 轉化된다. 여기서 心理的인 人間이란, 快樂 또는 苦痛을 感覺하며 또 快樂을 極大하고 苦痛을 極小化하려는 意圖를 갖는 主體를 意味하며, 物理的(生理的)인 人間の 一側面을 이루고 있다. 物理的인 人間은 形態와 重量을 갖는 自然素材를 生産이 行해지는 場所에까지 物理力을 動員해서 運搬해가지고 가지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生産場所에까지 運搬해가는 途中에 있어서도, 그 自然素材가 損耗되지 않도록 保全措置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快樂과 苦痛의 意識主體인 心理的인 人間은, 그 自然素材의 運搬 및 保全作業에 있어 間接勞動을 發見하게 된다. 또 生産에 使用되는 自然素材는, 무엇보다도 먼저 所有乃至는 占有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그 自然素材의 所有乃至는 占有도, 心理的인 人間에게 間接勞動

6) N. Bucharin, a.a.O., S.38

으로서 意識된다. 왜냐하면 自然素材의 占有確保에도 人間努力이 所要되기 때문이다. Malthus는 이것을 human exertion to appropriate 라고 하였다⁷⁾. 이렇게 보면 勞動對象의 一部分인 自然素材, 즉 Böhm-Bawerk 가 말한 自然資源(Naturgabe)이라는것도, 人間努力 즉 勞動과 無關係일수 없으며, Ricardo·Malthus 가 表現한 間接勞動의 凝結體라고 할수 있다. 勞動生産物인 原料, 그리고 勞動生産物인 道具機械等の 勞動手段이 間接勞動의 凝結體임은 말할것도 없다. 즉 勞動對象(自然素材·原料)·勞動手段은 一切 間接勞動의 結晶體가 된다. 그리고 또 客觀的의 必要要素인 勞動은 心理的인 人間의 觀點에서 볼때 直接勞動을 表示하게 된다. 그런데 客觀的의 必要要素인 勞動·勞動對象·勞動手段이 이와같이 直接勞動·間接勞動으로 轉化되는 理由는, 物理的(生理的)인 人間이 또한 心理的인 人間의 一側面도 갖고있다는 人間의 二元的 構造에 基因한다고 할수있다.

換言하면 客觀的의 必要要素로서의 勞動은, 生産에 不可缺한 「人間의 生理的인 에너지의 支出」을 意味하는데 대해서, 主觀的의 必要要素로서의 直接勞動은, 生産에 不可缺한 直接的인 「苦痛」의 支出을 意味하며, 客觀的의 必要要素로서의 勞動對象·勞動手段이, 生産에 不可缺한 物質·手段을 意味하는데 대해서, 主觀的의 必要要素로서의 間接勞動은, 生産에 不可缺한 過去の 蓄積된 「苦痛」을 意味하게 된다. 「勞動即苦痛」—이것이 客觀的의 必要要素로서의 生産要素를 主觀的의 必要要素로 轉換시키는 契機가 된다.⁸⁾ 그리고 同一種類의 等一 勞動量도 사람에 따라, 그리고 또 同一個人에 있어서도 時間上에 있어서의 先後에 따라, 各各 苦痛度를 달리한다. 이를테면 1時間의 木工勞動은, A, B, C 세사람에게 各各 相違하는 苦痛感을 줄것이고, 또 同一人A에 있어서도 첫번째 1時間의 木工勞動의 苦痛感和 그다음 1時間의 木工勞動의 苦痛感은 다른 것이 보통이다. 이리하여 「勞動即苦痛」은 同時에 一般과 差別의 統合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다음에 客觀的의 必要要素 使用價値는, 主觀的의 必要要素인 効用으로 轉化된다. 使用價値라는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屬性에 의해서 人間의 어떠한 種類의 欲望을 充足시켜 주는 하나의 物質」로서, 純全히 客觀的인 物理的인 屬性을 意味한다. 여기 洋服이 있다고 하면, 그 洋服의 使用價値는, 그 物理的인 機能을 통해서 洋服을 입는 모든 사람(物理的인 人間)의 身體의 物理的인 生理的인 安全을 保障해 주는 것이다. 추울때는 덥게 保護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凍死를 免하게 해주는 것이 洋服의 使用價値이다. 그런데 効用은, 이에대해서, 心理的인 主觀的인 概念이다. 効用은, 客觀的인 物理的인 使用價値를, 快樂을 感覺하는 心理的인 人間의 觀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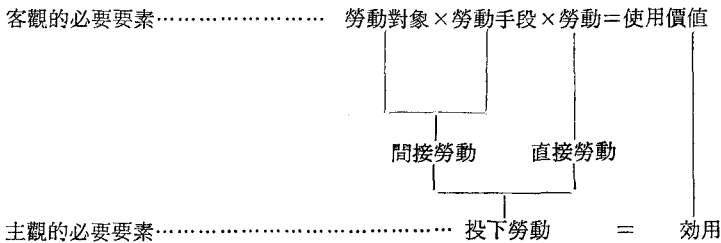
7) R. Malthus, *op. cit.*, p. 234.

8) 「勞動即苦痛」이라는 命題는, 멀리 A. Smith의 toil and trouble의 規定이 그 始初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明示的으로 規定지워진것은 Jevons에 이르러서이다. Jevon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勞動은 그에 따르는 苦痛에 의해서 測定된다」(W.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4th ed., 1911, p. 169).

心理的主觀의으로 翻譯한 것에 다름없다⁹⁾.

그러므로 効用概念의 導入은, 同一의 客觀的物理的使用價値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個人의 差別性을 導入시켜 놓는 結果가 되었으며, 또,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의 導入을 통해서, 同一個人에 있어서도 同一의 客觀的物理的使用價値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個別的差別性을 導入시켜놓는 結果가 되었다. 이것은 또 使用價値對物理的人間사이의 物理的關係와 並行해서, 効用對心理的人間사이의 心理的關係란, 또하나의 關係가 成立된다는것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一律的인 人間一般이 問題되고 있는데 대하여, 後者에 있어서는 多樣的이고 差別的인 個人이 問題되고 있다. 즉 使用價値로서의 洋服은, 모든 物理的人間에게 同一의 物理的保護(sine qua non)를 保障해 주지만, 그 物理的으로 同一한 保護機能이 주는 心理的効果 즉 快樂=効用은, 個人에 따라, 그리고 同一個人에 있어서도 消費數量에 따라, 各各 다르다는것을 이 理論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를테면 A는 10이라는 快樂=効用을 받는데 대해서, B는 8, C는 6의 快樂=効用을 받는다는 式이다. 이것은 A, B, C, 세사람은, 物理的人間이라는 點에서는 同一하지만, 心理的人間이라는 點에서는 差別的多樣的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同一人 A에 있어서도 同一型의 洋服이 多數있을 경우, 個別的 洋服이 주는 快樂=効用은 各各 다르다는것을 이 理論은 가르쳐 주고있다(限界効用遞減의 法則).

3) 以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第1圖).



第 1 圖

Marx 는 Ricardo 에 따라, 客觀的의 必要要素인 勞動 · 勞動對象 · 勞動手段을, 主觀的의 必要要素인 直接勞動과 間接勞動으로 翻譯함으로써 生産要素를 投下勞動(量)으로 換算하는데 事後

9) 「첫째로 効用은 物質의 質이기는 하지만 內在的인 質(inherent quality)이 아니다. 그것은 人間의 欲望에 대한 그 關係로 부터 發生되는 物質의 狀況(circumstances of things)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Senior 가 가장 適切하게 말한바와 같이, 《効用은 우리들이 有用하다고 말하는 物質에 存在하는 固有의 質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人間의 苦痛과 快樂에 대한 그 關係를 表現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決코 絕對的으로 어떠한 物質은 効用을 가지며 다른 物質은 効用을 갖지 않는다고 할수없다」(W.S. Jevons, *op. cit.*, p. 43).

的으로는 成功하였다. 그러나 事前的으로는 成功하지 못했다. 生産要素의 投下勞動(量)으로의 理論的 誘導가 可能하기 위해서는, 心理主義的인 理論的基礎가 必要한데, Marx에게는 그러한 心理主義的인 理論的 基礎가 完全히 缺如되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勞動價值論은, Bucharin의 所謂「主觀主義的勞動價值論」(subjektivistische Arbeitswerttheorie)으로서만 成立이 可能하며, 「客觀主義的勞動價值論」(objektivistische Arbeitswerttheorie)으로서 成立이 不可能하다는 말이 된다. Bucharin은 Marx의 勞動價值論을 客觀主義的勞動價值論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 그리고 Marx는, 客觀的必要要素인 使用價值概念으로부터 主觀的必要要素인 效用概念을 誘導해내지 못하였다. 客觀的物理的인 意味의 使用價值概念과 判異한 心理的 主觀的인 意味의 效用概念을 創造해낸것은, Jovons, Böhm-Bawerk 등의 限界效用理論의 功績이었다¹¹⁾. 그러면 限界效用理論에 있어서는, 客觀的物理的意味의 使用價值概念은 全的으로 缺如되고 있는가. Jevons에 있어서는 확실히 缺如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Jevons는 使用價值를 全部效用과 同一한 뜻으로 使用하였다¹²⁾. 한편 Böhm-Bawerk는 「主觀的價值」에 對立되는 「客觀的價值」라는 概念을 規定하고 있다. 客觀的價值를 Böhm-Bawerk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一定의 外的客觀的效果 (äußerer, objektiverer Erfolge)를 가져오는 財貨의 能力(Tüchtigkeit)」이라고.¹³⁾ 그런데 Böhm-Bawerk에 의하면 客觀的價值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財貨와 어떠한 個個의 客觀的目的 또는 效果의 達成과의 사이에 成立되는 關係의 評價에만 關聯되는 것이며, 그 個個의 目的自體가 一定의 主體의 生活關心의 圈內에서 認定되는 重要性에 대한 評價를 考慮하지 않는다. 우리는 財貨가 技術的關係 밑에서 遂行하는 效果를 一定主體의 禍福에 投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 우리는 이를테면 木材 및 石炭의 一定量으로써 얻을 수 있는 溫熱效果가 相異하는데 따라서 큰 또는 작은 燃料價值를 갖는다고 말하고, 또 各種의 營養手段은 客觀的인 營養價值를, 肥料는 肥料價值를, 戰艦의 艦船은 攻擊價值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 모든 表現에 있어서는, 價值概念으로부터 主體의 禍福에 대한 一切의 關係가 驅逐되고 있다. 내

10) N. Bucharin, *a.a.O.*, S. 37

11) 古代希臘의 Aristoteles (384—322 B.C.)도 限界效用理論을 理解하고 있었다고 한다. (E. Kauder, *A History of Marginal Utility Theory*, 1965. p. 3) Kauder에 의하면 限界效用理論은 그 發展過程에 있어 都合 六回以上 「再」發見되었다고 한다. (*ibid.*, p. 30)

12) 「이리하여 나는, 價值라는 말이 세가지 다른 뜻으로 混用되고 있기때문에 다음과 같이 區別할 必要가 있다는 結論에 도달했다.

使用價值 = 全部效用

評價 = 最終效用度

購買力 = 交換比率」(W.S. Jevons, *op. cit.*, p. 81)

13) E. von Böhm-Bawerk, *a.a.O.*, S. 159

가 너도밤나무材木이 소나무材木보다 더 많은 溫熱價値를 갖는다고 할때, 一定重量의 너도밤나무材木이 同量의 소나무材木보다 더 큰 溫熱價値를 獲得할 수 있다는, 純客觀的인 말하자면 機械的인 事實(rein objektiv, gleichsam *mechanische* Tatsache)을 表現한데 지나지 않는다」(傍點原書).¹⁴⁾

여기서 Böhm-Bawerk 가 말하고 있는 客觀的價値를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使用價値와 同一意味라고 한다면, Böhm-Bawerk 는 使用價値와 効用을 완전히 分離시켜서 서로 無關聯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Böhm-Bawerk 는, 「材木의 燃料價値에 관한 說明을 提供하는 일은 經濟學의 任務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客觀的價値(使用價値)의 概念을 經濟學의 圈外로 逐出하려고 하였다.¹⁵⁾ 우리가 이러한 見解를 抽象的一面的인 見解로 보는 까닭은, Marx 도 말하고 있듯이, 効用은 「空中에 떠 있는 것이 아니며, 商品體의 屬性에 의해서 條件지워지며, 商品體 없이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Böhm-Bawerk 의 立場에서는, 「品質向上」(使用價値改善)을 통한 効用增大라는 大量的根本的 現象은 도저히 說明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Böhm-Bawerk 의 客觀的價値의 概念을 使用價値概念과 同一視했지만, Böhm-Bawerk 自身은 使用價値를 主觀的價値의 一種으로 理解하고 있다. 즉 Böhm-Bawerk 는 主觀的價値를, 「抽象的種類價値」(abstrakter Gattungswert) 또는 「欲望의 種類」(Bedürfnisgattung)와 「具體的價値」(konkreter Wert) 「具體的欲望」(Konkretes Bedürfnis) 또는 「部分的欲望」(Teilbedürfnis)의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前者는 이를테면, 빵의 「種類全部」(ganze Gattung), 飲料水의 種類全部의 價値 또는 그에대한 欲望을 가리키며, 後者는 빵의 各部分, 飲料水의 各部分의 價値 또는 그에 대한 欲望을 가리킨다. 그런데 Böhm-Bawerk 에 의하면, 抽象的種類價値라는 概念은 「完全히 잘 못된 概念」이라는 것이며, 具體的價値 具體的欲望·部分當欲望의 概念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Böhm-Bawerk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岐路에서 舊理論은 옳지 못한 길을 擇했다. 즉 舊理論은 欲望의 種類의 尺度를 採擇했다. 그 尺度에 있어서는 營養에 대한 欲望은 最高의 欲望을, 裝飾品에 대한 欲望은 最下의 欲望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舊理論에 있어서는, 一般의 빵은 높은 使用價値를, 寶石類는 낮은 使用價値를 갖고 있다는 斷定이 내려지게 되었다」(傍點原

14) *ibid.*, SS.159~160

15) *ibid.*, S. 160

16) K. Marx, *a.a.O.*, S. 40

書)¹⁷⁾. 여기서 Böhm-Bawerk 는, 抽象的種類價値를 使用價値와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Böhm-Bawerk 는, 使用價値를 主觀的價値의 一種인 抽象的種類價値와 同一視하고 그것을 排擊하였다.

4) 以上에서 우리는,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와 財貨의 主觀的必要要素의 두가지 範疇를 提示했는데, 兩者의 差異는 또 다음과 같이도 나타난다. 즉 前者는 말하자면 即自的인 財貨의 構成要素인데 反하여, 後者는 人間의 意志·意識·意圖에 의해서 媒介된 財貨의 構成要素라는 것이다. 따라서 後者에 있어서는, 前者의 因形系列은 그 基盤위에서 手段·目的系列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이 結合되어서 使用價値로 轉化되는 物理的技術的過程은 因原系列에 屬한다. 그러나 間接勞動(勞動對象·勞動手段)이 直接勞動(勞動)과 結合되어서 效用(使用價値)을 形成하는 過程은 因果系列에 屬하지만, 그 因原系列은 人間의 意志·意識·意圖의 範圍內에 있는 因原系列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前記한 바와같이, 勞動(間接勞動·直接勞動)은 心理的인 人間에게 苦痛意識을, 效用은 心理的인 人間에게 快樂意識을 各各 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苦痛은 手段, 快樂은 目的으로 意識됨으로써, 勞動·效用은 因果系列에 屬하면서도 手段·目的의 系列이 된다. 이와같이 해서 主觀的必要要素인 勞動과 效用은 手段的必要要素(手段必然)와 目的的必要要素(目的必然)가 된다. 이리하여 手段必然인 勞動을 極小化하고 目的必然인 效用을 極大化하려는 人間의 「意志」·「意圖」가 發動하게 된다. 그리하여 「勞動極小化」 「效用極大化」는 「人間意志에 의하여 媒介된 必然」 또는 Menger 의 所謂 「自然法則의 限界內에서의 人間意志」(human will within the limits set by natural laws)가 된다¹⁸⁾

5) 手段的必要要素인 勞動은 質·量의 兩側面에서 考察되지 않으면 안된다. 勞動을 質的側面에서 考察할 때, Marx 의 所謂 具體的勞動(裁縫勞動·紡織勞動等)의 概念이 成立되는데, 具體的勞動은 곧 勞動의 種類를 가리킨다. 勞動을 量的側面에서 考察할 때, 投下勞動量 = 投下勞動時間의 概念이 成立된다.

다음에 우리는 效用의 測定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에 대한 우리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즉 效用은 勞動을 基準으로 해서만 測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財貨의 主觀的必要要素인 目的的必要要素(目的必然)는, 역시 財貨의 主觀的必要要素인 手段的必要要素(手段必然)을 基準으로 해서만 評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만

17) E. von Böhm-Bawerk, a.a.O., S. 178

18) C. Menger, *Principles of Economics*, translated by J. Dingwall and B. F. Hoselitz, (Free Press), p. 74

약 勞動이 財貨의 効用(使用價値)生産에 物理的인 sine qua non 이 아니라면, 즉 勞動을 投下하지 않고도(生産을 하지 않고도) 効用(使用價値)이 獲得된다면 勞動은 効用評價의 必然的基準이 될 수 없으며, 또 効用(使用價値)生産을 위한 物理的인 sine qua non (客觀的必然要素)이면서도 人間에게 아무런 心理的苦痛도 주지 않는 物理的인 sine qua non 이라면, 勞動은 効用評價의 必然的基準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目的的必然要素(目的必然)는, 역시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手段的必然要素(手段必然)를 基準으로 해서만 測定될수 있다는 命題의 根據에는, 다음 두가지 規準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즉

必然은 必然에 의해서

目的은 手段에 의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効用은 勞動을 基準으로 해서 評價또는 測定되어야 하되, 어떠한 勞動量으로 表示되어야하는가를 究明하기로 하자. 먼저 그 財貨의 効用(使用價値)을 生産하는데 投下된 勞動量이 곧 効用을 表示한다고는 할수 없다. 만약 어떠한 個人主體의 어떠한 財貨에 대한 評價 즉 効用이 A 라고 하고, 그 財貨를 生産하는데 그 사람이 投下한 勞動量의 苦痛度가 B 라고 하면 (但 $A > B$), 그 投下勞動量은 결코 그 財貨의 効用을 表示한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結局 그 財貨의 効用은, 그 個人主體의 그 財貨에 대한 評價의 크기 A 와 同一의 크기의 苦痛度를 갖는 勞動量 즉 그 個人主體가 그 財貨의 効用을 獲得하기 위해서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에 의해서 表示(測定) 될 수 있다는 結論이 誘導된다. 우리는 이 効用을 表示하는 勞動量을 「効用勞動量」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리하여 主觀的 評價인 効用은 客觀的 尺度에 의해서 測定表示될 수 있는 根據를 얻게된 셈이다. 따라서, 同一財貨에 대해서도 個人主體에 따라, 또 同一個人主體에 있어서도 各個의 財貨에 대해서, 相異하는 効用勞動量이 存在할 수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리고 効用勞動量은 生産過程에서는 그 財貨를 生産한 具體的 勞動의 量 즉 具體的 勞動의 時間에 의해서 表示된다.¹⁹⁾

6) 다음에는 効用勞動量의 學說史的系譜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Malthus 는 intensity of demand 를 다음과 같이 規定지우고 있다. 즉 「需要者가 그들의 慾望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支拂을 不辭하는 最大可能犧牲」이라고.²⁰⁾ Malthus 는 여기서

19) 이 効用勞動量의 概念은 이 論文에서 使用된 오직하나의 新概念이다. 이 効用勞動量概念의 威力은 Marx 의 「抽象的 人間勞動」의 그것에 비길수있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이 効用勞動量概念이야 말로 勞動價値論과 限界効用理論을 內面的으로 結合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갖는 오직하나의 概念이라고 생각한다.

20) R. Malthus, *op. cit.*, p. 245

intensity of demand를 우리가 말하는 效用勞力量과 同一意味로 使用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들어야할 것은 Marshall의 需要價格의 概念이다. 周知하는바와같이 Marshall은 效用을 需要價格이라는 概念으로 表示하였다. 그런데 Marshall의 需要價格概念은 效用勞動量을 貨幣額으로 表示한 것에 다름없다. 다시말하면 效用勞動量은 Marshall의 需要價格의 實物概念에 該當된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Marshall의 需要價格의 概念은 論理上 效用勞動量의 根據위에 立脚함으로써 循環理論 乃至는 petio principii의 誤謬를 脫却할 수 있게 될 것이다(但거기에는 또하나 價格基準의 解明이 附加되어야 한다. IV의 1-3) 參照).

Böhm-Bawerk도 效用勞動量概念을 完全히 把握하고 있었다는것은 다음 引用文章에 의해서 알수있다. 「내가 하나의 물건을 獲得하기위해서 苦勞를 겪었다는 事實과, 그 물건이 그 苦勞의 價値가 있다는 事實과는 전혀 別個의 事實이다. 그리고 이 두개의 事實이 항상 併行하지 않는다는것도 經驗에 의해서 너무도 明白하게 證明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疑問의 餘地도 없다. 그 事實은 每日每日 技術的인 不熟練, 잘못된 豫想또는 단순한 不幸때문에 無價値한 結果로 끝맺는 無數의 苦勞가 存在한다는것에 의해서 證明되고 있다. 그리고 또 少量의 苦勞로써 至大한 價値의 結果를 招來하는 경우도 許多하다는 것이 證明되고 있다」.²¹⁾ 「그 물건이 그 苦勞의 價値가 있다는 事實」(daß das Ding die Plage wert ist)은, 어떠한 財貨의 價値는 그를 獲得하기 위해서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으로써 表示될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Böhm-Bawerk에 의한 效用勞動量의 概念把握을 如實히 立證하고 있다. 그리고 上記引用文章에서 Böhm-Bawerk는, 投下勞動量이 價値를 나타낼수 없다는것, 效用勞動量과 投下勞動量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關聯도 없다는것을 主張하고 있다.

한편 Jevons는 效用을 勞動量으로 表示하는 대신 勞動을 效用概念으로 즉 負效用(negative utility)概念으로 表示했다.²²⁾

7) 以上에서 또 우리는 效用과 勞動의 兩概念이 始元的이고 不可缺的인 概念이라는 것을 證明했다고도 할수있다. 실로 效用·勞動의 兩概念은 理論經濟學의 terminus a quo(始發點)를 構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效用·勞動은 財貨構成의 두개의 independent and irreducible factors이며, 어느 한가지도 省略또는 還元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²³⁾ 그리하여 이 兩概念을 모두 省略하거나 또는 兩概念中の 어느 하나를 省略하는 어떠한 理論展開도 結局 循環理論에 빠지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을 經濟理論의 歷史는 가르쳐주

21) E. von Böhm-Bawerk, "Zum Abschluß des Marxschen Systems,," *Kleine Abhandlung über Kapital und Zins*, 1926, S. 379

22) W.S. Jevons, *op. cit.*, xiv.

23) E. Kauder, *op. cit.*, p.168

고 있다. Robinson은 效用·勞動의 兩概念을 「形而上學的概念」(metaphysical concept)이라고 하였다.²⁴⁾ 그러나 사실은 形而上學的概念이 아니라 必要不可缺하고 始元的인 概念인 것이다. 經濟學에 있어서의 效用·勞動의 兩概念은, 幾何學에 있어서의 點·線·面積等の 基本概念과 같은 存在意義를 갖는다고 할수있다.

특히 最近 近代經濟理論分野에서 心理主義的인 效用概念驅逐을 위한 努力이 꾸준히 行해지고 있는데, 거기대해서 Kauder는 다음의 Frank H. Knight의 말로써 應答하고 있다. 즉 「效用理論은 代替될수없는 理論」(A substitute for utility theory does not exist)이라고.²⁵⁾ 그것은 全的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3. 經濟剩餘

1) 財貨의 두개의 主觀的必要要素 즉 目的的必要要素인 效用과 手段的必要要素인 勞動(投下勞動) 사이에는 그 心理的인 效果 즉 快樂과 苦痛을 통해서 心理的主觀的計算이 行해진다. 이에 대해서 Jevon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快樂 및 苦痛을 代數學에 있어 正值와 負值를 取扱하는 것같이 取扱할 수 있다. 快樂 및 苦痛의 一系列의 代數學的合計는 快樂을 全部 合計하고 苦痛을 全部 合計해서 大值로부터 小值를 控除한 差額으로서 얻어진다.」 그런데 또 人間의 意圖 乃至는 目的이, 이 差額을 「快樂의 方向으로 擴大시키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도 自明의 事實에 屬한다.²⁶⁾ 이 差額을 「快樂의 方向으로 極大化」하려는 人間에 共通된 一般傾向을 經濟原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그리고 快樂과 苦痛의 正值의 差額(快樂>苦痛)을 經濟剩餘라고 불려 두기로 하자. 經濟剩餘는 心理的主觀的인 側面과 客觀的物理的인 側面의 兩側面을 갖는다. 왜냐하면 快樂=效用은 效用勞動量으로 苦痛은 投下勞動量으로 各各 表示될 수 있기 때문이다.

$$\text{經濟剩餘} = \text{快樂(效用)} - \text{苦痛} = \text{效用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다음에 陳述하는 理論은 全的으로 快樂과 苦痛의 計算(calculus of pleasure and pain)에 立脚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經濟學의 目的은 快樂을 말하자면 苦痛의 最小費用으로써 購入함으로써 幸福을 極大化하는데 있다 (to maximize happiness by purchasing pleasure at the lowest cost of pain)」²⁷⁾. 以上の Jevons의 말은 經濟剩餘를 心理的主觀的側面에서 表現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Jevons의 經濟剩餘概念의 抽象性은, 그것을 心理的主觀的側面에서만 보고, 그것을 客觀的物理的側面에서 보는 것을 沒却한 點에 있다고 할

24) J.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Anchor Books, p. 48

25) E. Kauder, *op. cit.*, p.229

26) W.S Jevons, *op. cit.*, p.32

27) *ibid.*, p. 23

수 있다.

上式이 明示하고 있는바와 같이, 經濟剩餘는 剩餘勞動으로서 表示될 수 있다. 그리고 또 投下勞動量=苦痛量의 概念은, 勞動費用 또는 「實質費用」(real cost)의 概念을 發生케 해 놓았다.

經濟剩餘(剩餘勞動)는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갖는다. ① 個人的 差別性을 갖는다. 즉 同一財貨에 대해서도 個人에 따라 快樂 즉 效用勞動量이 各各 다르며 또 同一投下勞動量에 대해서도 個人에 따라 苦痛度가 各各 다르다. ② 그러면서도 經濟剩餘를 所有하고자 하는 人間欲望은 모든 人間에게 共通되는 하나의 普遍的 現象이다. ③ 따라서 經濟剩餘를 所有하고자 하는 人間欲望은 모든 歷史的社會的形態에 先行한다.

3) 經濟原則 즉 經濟剩餘를 極大化하려는 人間欲望은 이것을 다시 두개의 構成部分으로 區分할 수 있다. ① 勞動極小化 ② 效用極大化

그리고 勞動極小化·效用極大化를 다시 分析해보면, 必然(人間的 意志·意圖를 超越한)과 人間的 意志·意圖의 두개의 部分으로 構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勞動·效用은 人間的 意志·意圖로 부터 獨立된 必然에 屬하는데 대하여, 極小化·極大化는 人間的 意志·意圖에 屬하기 때문이다. 즉 勞動極小化·效用極大化는 「人間意志에 의하여 媒介된 必然」이 된다.

人間生活이 單純한 必然의 範圍內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것은 動物生活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았었다. 必然 즉 勞動과 效用을 極小化 또는 極大化하려는 人間的 意志·意圖가 起動力으로서 發動함으로써 社會·歷史는 비로소 發生을 보게 되었다고 할수있다.²⁸⁾

Marx의 史的唯物論에 의하면, 必然은 自體內的 原因으로써 自己運動을 하게끔 되어있다. 必然의 自己運動을 證明하는 理論이 곧 唯物辨證法이다. 우리는 Marx 理論에서, 社會現象內的 必然의 存在를 認定하는 唯物論은 取하지만, 必然의 自己運動의 理論으로서의 辨證法은 取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運動·發展의 起動力이 되는 것은 人間的 欲望·意志·意圖이며, 必然은 單獨으로 自己運動을 일으킬 根據를 自體內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 限界效用理論이 立脚하고 있는 心理主義는 우리에게 極히 有用한 發展의 理論의 方法論을 提示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Bucharin은 限界效用理論을 「孤立된 個人的 動機」(Motive des isolierten Individums)가 그 始發點을 이루고 있다고 하며, 그것은 「社會聯關의 捨象」(Abstrahieren von den sozialen Zusammenhängen)을 意味하므로 「方法論의 死罪」(methodische Todsünde)를 犯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N. Bucharin, a. a. O., S. 46). 그러나 이것은 Bucharin의 誤謬이다. 個人的 動機는 歷史的社會的現象과 「本質·現象形態」의 相即不離의 關係에 있어야 될 性質의 것이다. 이 點에 있어 Marx도 Böhm-Bawerk도 다같이 抽象性·一面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經濟史의 理論은, 한편에서는 勞動極小化·效用極大化의 實現理論이 되는 同時에, 또다른 한편에서는 史的二元論—必然과 人間意志의 둘이 歷史發展의 起動力이 된다는 一의 理論이 된다.

4) 勞動手段은 勞動極小化와 效用極大化가 人類史上 最初로 實現시켜놓은 物的對象이었다. 즉 生産過程에서 從前에는 勞動對象과 勞動 즉 Böhm-Bawerk의 所謂「두개의 根源」만이 結合되어서 (嚴密하게 말하면 勞動對象에서 原料를 除外해야 Böhm-Bawerk의 「自然」이 된다) 財貨를 生産해냈던 것인데, 生産過程에서 勞動을 節約하고 財貨의 效用을 使用價値의 物理的改善을 통해서 向上시키고자하는 人間意志가 道具機械等 勞動手段의 使用을 發生시켰다. 勞動手段의 使用과 더불어 人間社會는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勞動手段은 原初의인 意味에 있어서는 財貨構成의 客觀的必要要素가 아니다. 그것은 自然的範疇에 屬하지 않고, 歷史的範疇에 屬한다. 그러나 勞動手段은 Malthus가 말한 바와 같이「極히 必要한」「第三의 要素」이므로, 우리는 便宜上 앞에서 (I-1) 그것을 客觀的必要要素 속에 包含시켜 놓았다.

Böhm-Bawerk는 經濟剩餘를 生産過程에서 所謂 資本 즉 原料와 勞動手段(中間生産物)을 使用함으로써 즉 迂回生産을 통해서 發生된다고 하였다. 「나의 命題는, 賢明하게 選擇된 迂回生産의 採用 또는 延長은 一般的으로 技術的剩餘收益(technisches Mehrergebnis)을 즉 基本的生産力의 同一의 投下로써 한층 많은 또는 보다 良質의 生産物(mehr oder bessere Produkte)을 獲得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²⁹⁾ 이것이 곧 Böhm-Bawerk의 「迂回生産의 剩餘收益」에 관한 命題이다. 이것은 勞動手段의 使用(迂回生産)은, 財貨의 使用價値의 物理的改善(效用極大化)과 勞動節約을 可能케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勞動極小化). 「財貨를 直接的方法과 間接的方法에 의해서 生産할 경우에는, 그 效果는 間接的方法에 의해서, 同一勞動量으로써 보다 많은 生産物을, 또는 同一生産物을 보다 적은 勞動量으로(mit gleich viel Arbeit mehr Produkt oder gleiche Produkt mit weniger Arbeit)獲得할 수 있다는 點에 나타난다」³⁰⁾. 이와같이 Böhm-Bawerk는 迂回生産의 剩餘收益에 관해서는 正當하게 言及하고 있으면서도, 經濟剩餘解明에 있어서는 勞動을 完全히 捨象하고 效用단에 의해서 說明하는 抽象的誤謬를 犯하고 있다. 즉 Böhm-Bawerk는, 經濟剩餘를 生産物의 效用과 生産手段의 效用과의 差異 즉 現在財(gegenwertige Güter)와 將來財(künftige Güter)의 效用의 差異에서 誘導해 내려고 한다. Böhm-Bawerk는 이것을 「現在財에 대한 將來財

29)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 II. 4 Aufl. 1921, S. 2

30)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I. S. 13

의 低評價」 또는 이것을 反對로 表現한 「將來財에 대한 現在財의 高評價」에 의해서 說明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在財는 보통 同質同量の 將來財보다 더 큰 價値를 갖는다」.³¹⁾ 「剩餘價値는 將來財가 生産過程에서 現在財로 變化되는 過程에서만 發生된다」.³²⁾

經濟剩餘 = 現在財(生産物)의 効用 - 將來財(生産手段)의 効用

5) 이 機會에 限界効用理論에 있어서의 「費用」概念에 관해서 言及해두기로 하자. 自然과 勞動을 두개의 基本的生産力이라고 規定함으로써 客觀的必要要素로서의 勞動의 本質을 옳게 把握한 Böhm-Bawerk 에게, 勞動費用의 概念이 全的으로 缺如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不可思議에 屬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Böhm-Bawerk 는 費用을, 「生産手段의 綜合」(Inbegriff der Produktivgüter)이라고 規定지우고,³³⁾ 「一單位の 生産手段의 價値는 그 單位의 生産手段의 使用에 의해서 生産될 수 있는 모든 生産物 가운데에서 最小의 限界効用을 갖는 生産物(限界生産物)의 限界効用に 의해서 決定된다」는 有名한 命題를 定立시켰다.³⁴⁾ 그리하여 이 命題로부터 「費用이 價値(効用)를 決定한다」는 所謂 「費用의 法則」을 誘導해냈다. 즉 任意로 再生産이 可能한 財貨의 價値는 限界生産物의 價値가 生産手段으로 移行되면서 生産手段의 價値를 決定하며, 다음에는 反對方向으로 또다시 下降하여 生産物의 價値를 決定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費用의 法則이 通用可能한 경우에도, 費用(生産手段)의 價値는 결코 財貨의 價値의 窮極原因이 아니며, 항상 中間的原因(Zwischenursache)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마치 달(月)이 太陽의 光線을 地上에 反射하는 것과 같이 多面的인 生産手段은 그 限界生産物로부터 주어지는 限界効用을 其他 生産物 위에 反射한다. 價値의 原則은 결코 費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며, 其他 生産物의 限界効用 가운데에 있다」.³⁵⁾

그리하여 Böhm-Bawerk 의 경우에 있어, 經濟剩餘는 生産物의 効用으로부터 「費用財」(生産手段)의 効用을 控除한 差額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는 Wieser 의 機會費用(opportunity cost) 또는 代替費用(alternative cost)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다. Wieser 는 費用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生産手段은 多樣的인 用途를

31) E. von Böhm-Bawerk, *a.a.O.*, S. 318

32) *ibid.*, S. 376

33) *ibid.*, S. 218 그리고 또 Böhm-Bawerk 는 生産手段을 「費用財」(Kostengüter)라고도 부르고 있다.

34) *ibid.*, S. 221

35) *ibid.*, SS. 223~4

갖고 있다. 그것은多方面에 使用되어 利得이 있는 收穫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用途에 生産手段이 使用될 때에는 必然的으로 其他用途에 있어서의 하나를 犧牲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費用概念에 包含되어 있는 犧牲(sacrifice)의 意味內容이다³⁶⁾].

Vleugels는 Böhm-Bawerk의 費用財의 價値가 限界生産物의 限界効用을 가르키는데 대해서 Wieser의 費用은 生産에서 除外된 生産物의 最大限界効用을 意味한다고 풀이하고 있다³⁷⁾. 그러나 Kauder는 Böhm-Bawerk의 費用財의 價値와 Wieser의 犧牲費用은 Vleugels가 指摘하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다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限界生産物(最小限界効用의 生産物)의 限界効用과 生産에서 除外된 生産物의 最大効用은 그 差가 無限小하게 될 경우에는 兩者의 費用概念의 差異는 그다지 問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⁸⁾. 그런데 Kauder에 의하면 國際的으로 通用되게 된 費用概念은 Böhm-Bawerk의 그것이 아니고 Wieser의 費用概念이라는 것이다. Wieser는 cost-utility 또는 utility-cost라는 用語를 使用했는데, 이 概念이야말로 機會費用 또는 代替 費用의 特色을 가장 잘 表現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Wieser는 經濟剩餘를 다음과 같이 規定지우고 있다³⁹⁾.

$$\text{經濟剩餘} = A \text{ 財貨의 特定効用} - \text{同一生産手段을 使用해서 生産해 낼 수 있는 全非 A 財貨의 一般効用}$$

또 Wieser는 「보다 적은 効用을 犧牲시켜 보다 커다란 効用을 確保하기 위해서」(um mit geringere Nutzaufopferung höheren Nutzen zu sichern)라는 말도 하고 있다.⁴⁰⁾

6) 한편 Marx는 投下勞動量의 基礎위에서 經濟剩餘 즉 「剩餘價値」를 다음과 같이 規定지우고 있다.

$$\text{剩餘價値} = \text{投下勞動量} - \text{必要勞動量}$$

36) F. von Wieser, *Social Economics*, translated by A.F. Hinrichs 1927, p.100

37) Cf. E. Kauder, *op. cit.*, p. 174

38) *ibid.*, pp. 172~175 最近의 價格理論教科書에서 紹介되고 있는 代替費用概念은 다음과 같다. 「財貨A의 生産에 必要한 生産要素 X의 費用이란 X를 使用해서 其他財貨 (B.C...)를 生産할 때 얻어지는 最大生産額을 말한다」(G. Stigler, *Theory of Price*, revised ed., pp. 96~97) 「이것(機會費用)이야말로 根本적이고 正確한(fundamental and correct) 費用概念이다」(R. Dorfman, *Prices and Markets*, 1967. p.45)

39) 「하나의 生産物의 利潤과 그 費用을 比較하는 企業者는 두개의 効用의 크기를 比較하게 된다. 그는 一定生産物의 特定効用量 (particular amount of utility)과 同一生産手段에 의해서 生産되는 모든 生産物의 一般効用量 (general mass of utility of all products of the same stem)을 比較하게 된다」(F. von Wieser, *op. cit.*, p. 100)

40) F. von Wiser, *Der natürliche Werth*, 1889, S. 172

Marx가 말한 「必要勞動量」이란, 生産者가 自身과 그 家族을 扶養하는데 必要한 生存基本을 生産하는데 投下되는 勞動量을 意味한다. 즉 剩餘價値란, 財貨生産을 위한 投下勞動量에서 生存基本生産을 위한 投下勞動量을 控除한 것이다. 그런데 이 Marx의 剩餘價値의 理論은 다음과 같은 決定的인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 즉 勞動手段使用에 의한 勞動極小化·效用極大化가 說明될 수 없다는 點이다. 高性能의 新勞動手段使用은, 그 財貨 一單位生産을 위한 平均投下勞動量을 節減시키는데 (大量生産의 경우에 있어), 만약 그 財貨一單位生産을 위한 平均投下勞動量이 減少된다면 經濟剩餘(剩餘價値)는 減少된다는 矛盾을 招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新勞動手段使用에 의한 經濟剩餘의 說明은 불가불 必要勞動時間의 短縮에 의할수 밖에 없게 되며, 이리하여 Marx의 相對的剩餘價値의 概念이 成立된다. 이것은 이를테면, 어떠한 紡織工場의 施設近代化에 의한 超過利潤의 獲得을, 그 工場의 勞動者가 먹는 食糧의 生産에 投下되는 平均勞動量의 減少와 勞動者가 消費하는 其他生活手段의 生産에 投下되는 平均勞動量의 減少로써 說明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II W-W' 過程에서 作用하는 交換法則

다음에는 交換過程에서 作用하고 있는 交換法則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交換은 社會的分業의 不可缺의 補完措置로서 發生되었다. 經濟를 發展시키는 唯一의 起動力인 經濟原則은, 生産力의 發展形態의 하나로서 社會的分業을 發生시켜 놓았지만, 社會的分業은 社會的消費와 直接的으로 結付될 수 없고 社會的消費와 結付되기 위해서는 交換이 그 中間에 介入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自明의 理致에 屬한다. 그런데 모든 經濟現象에서 自己自身을 貫徹하려는 經濟原則은, 社會的分業의 補完措置인 交換現象에 있어서도 絶對로 例外일 수가 없다. 그리하여 交換法則은 交換過程에 發現된 經濟原則이라는 大命題가 成立된다. 換言하면 交換過程에서 作用하는 經濟剩餘의 極大化가 곧 交換法則을 形成한다는 것이다.⁴¹⁾

먼저 우리는 가장 根本的이면서도 가장 單純한 形態의 交換 즉 物物交換 W-W' 過程에서 作用하는 交換法則을 究明해보기로 하자.

41) Wicksell도 交換法則을 「經濟原則의 系」(corollary of economic principle)라고 規定지우고 있다. K. Wicksell,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I, (Kelley) p.72

1.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

1) 物物交換 또는 商品交換에 있어서 問題되는 것은,

- ① 交換의 基準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 ② 交換比率(相對價格)은 어떻게 해서 決定되며
- ③ 人間對人間的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은 어떻게 되느냐
의 세 가지에 歸着된다고 할수있다.

먼저 우리는 交換의 基準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밝혀두어야 하겠다. 즉 交換의 基準이 되는 것은 財貨의 客觀的必要要素가 아니라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라는 것이다. Böhm-Bawerk 는, 「人間的 行動一般이 그런것같이 交換去來에 있어서의 態度도 動機의 支配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⁴²⁾ 交換을 發生시키는 이 心理的動機 乃至는 目的을, Jevon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交換은 効用을 極大化하고 (maximizing of utility) 勞動을節約하는 (saving of labour) 極히 重要한 過程」이라고.⁴³⁾ 여기서 Jevons 가 말하고 있는 것은, 交換過程에서도 經濟原則이 貫徹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經濟剩餘의 極大化는 交換의 目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商品交換에 있어 基準을 이루는것은 財貨의 두개의 主觀的 必要要素 즉 手段의 必要要素(手段必然)인 勞動과 目的的 必要要素(目的必然)인 効用이다라고. 여기서 다시한번 注意를 喚起해 둘 것은, 이 두가지는 서로 independent and irreducible factors 라는 事實이다. 이리하여 交換法則 I 로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成立된다.

2) 그런데 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은 物物交換經濟 밑에 있어서는 効用一元基準交換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1人對1人의 物物交換 $W-W'$ 過程에서, W 商品의 所有者를 A , W' 商品의 所有者를 B 라고 하기로 하자. 그리고 W 商品의 x 量(xW)과 W' 商品의 y 量(yW')과 交換되었다고 하고 (W' 로써 表示한 W 의 相對價格 $P_w = \frac{y}{x}$, W 로써 表示한 W' 의 相對價格 $P_{w'} = \frac{x}{y}$), x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xW)$, y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yW')$ 라고 表示하기로 하며, 또 A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A(xW)$, $U_A(yW)$, B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B(xW)$, $U_B(yW')$ 로써 各各 表示하기로 한다. 그럴때 xW 와 yW' 가 交換되었다고하면 ($xW-yW'$),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

42) E. von Böhm-Bawerk, a.a.O., S. 260

43) W.S. Jevons, op. cit., p. 75

$$\left. \begin{aligned} U_A(yW') > L(xW) \\ U_A(yW') > U_A(xW) \\ U_B(xW) > L(yW') \\ U_B(xW) > U_B(y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1)$$

不等式 (1)이 意味하는 바는, 交換은 各交換當事者가, ① 自己가 提供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投下勞動量이 自己가 獲得하고자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보다 작은것이 確認되었으며, ② 自己가 提供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이 自己가 獲得하고자 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보다 작은 것이 確認되었을때 行해지며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 ③ 相對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의一致에 의해서 決定된다는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W 商品의 x 量은 價格 $\frac{y}{x}$ 또는 $\frac{x}{y}$ 밑에 있어 A 에게는 供給량을 나타내지만 B 에게는 需要량을 나타내며, W' 商品의 y 量은 反對로 A 에게는 需要량을, B 에게는 供給량을 各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U_A(yW')$, $U_A(xW)$, $U_B(xW)$, $U_B(yW')$ 의 全部効用勞動量을 各各 $L_A(yW')$, $L_A(xW)$, $L_B(xW)$, $L_B(yW')$ 로써 表示하면, 不等式(1)은 다음과 같이도 表示될 수 있다.

$$\left. \begin{aligned} L_A(yW') > L(xW) \\ L_A(yW') > L_A(xW) \\ L_B(xW) > L(yW') \\ L_B(xW) > L_B(y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2)$$

여기서 $L_A(yW')$, $L_A(xW)$ 는 $L(xW)$ 와 同一種類의 具體的勞動의 量으로, $L_B(xW)$, $L_B(yW')$ 는 $L(yW')$ 와 同一種類의 具體的勞動의 量으로 各各 表示될 수 있으므로, $L_A(yW')$, $L_A(xW)$, $L(xW)$ 는 相互比較가 可能하며, $L_B(xW)$, $L_B(yW')$, $L(yW')$ 도 相互比較가 可能하다.

그런데 不等式(2)는 다음과 같은 意味를 갖는다. 즉 交換은 各交換當事者가, ① 自己가 提供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投下勞動量이 自己가 獲得하고자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보다 작은것이 確認되었으며, ② 自己가 提供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이 自己가 獲得하고자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보다 작은것이 確認되었을 때 行해지며, ③ 相對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不等式(2)는, 交換에 의한 經濟剩餘(이것을 앞으로 「交換剩餘」라고 부르기로 한다)를 勞動量으로 表示하고 있는 特色을 갖고있다. 지금 A 에 관해서 보면, $L_A(yW') - L(xW)$ 는, A 가 交換에 의해서 獲得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으로 부터 A 가 交換에 의해서 拋棄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投下勞動量을 控除한 交換剩餘를 勞動量

으로 表示하고 있고, $L_A(yW') - L_A(xW)$ 는, A가 交換에 의해서 獲得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으로부터 交換에 의해서 喪失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을 控除한 交換剩餘를 역시 勞動量으로 表示하고 있다. 兩者를 比較해보면 後者が 前者보다 작다는것을 알수있다. 이것은 不等式 $L_A(yW') > L(xW)$ 는 不等式 $L_A(yW) > L_A(xW)$ 속 에 包含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 理由는 항상

$$L_A(xW) > L(xW)$$

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L_A(xW) \leq L(x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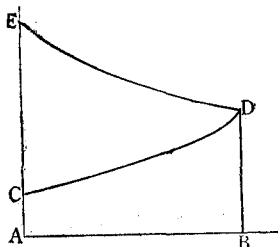
이 成立된다고 하면, 經濟剩餘가 負值 또는 零值를 取하게 되므로 그 生産活動은 전혀 無意味한것이 되고말기때문이다⁴⁴⁾. 따라서 物物交換에 있어서의 交換條件인 不等式(1)또는(2)는 不等式(3)으로 簡略化된다.

$$\left. \begin{array}{l} L_A(yW') > L_A(xW) \\ L_B(xW) > L_B(yW') \end{array} \right\} \dots\dots\dots(3)$$

不等式(3)은, 곧 Walras, Wicksell, Jevons 의 効用基準交換理論과 一致된다. 즉 Walras, Wicksell, Jevons 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은,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物物交換經濟에 適用된 理論이라고 할수있다. 投下勞動量이 交換基準에서 捨象될 수 있었던 것은 交換되는 各商品의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가 되고 있으며 또 交換에 提供되는 一定量의 商品의 全部効用勞動量이 全部投下勞動量보다 크다는데 緣由한다.

3) 交換當事者들은, 各各 一定의 相對價格 밑에서 交換剩餘가 極大가되는 需要量과 供給

44) 限界投下勞動量遞增의 法則(限界生産力遞減의 法則)과 限界効用勞動量遞減의 法則(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을 前提로 한다면, 生産量은 限界効用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 [$L'_A(xW) = L'(xW)$]의 點에서 決定된다 [$L'_A(xW)$, $L'(xW)$ 는 $L_A(xW)$, $L(xW)$ 의 第一次 導函數를 表示함]이것은 곧 J.B. Clark 의 理論이다. 이 Clark 의 理論에 있어서는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이기도 한 「孤立勞動者」가 前提되고 있다.



cf. J.B. Clark, Distribution of Wealth, pp. 384~385

량을 갖는다. 이로부터 個別需要函數・總數要函數와 個別供給函數・總供給函數가 誘導된다. 그리고 또 이들 總需要函數와 總供給函數에 의해서 均衡相對價格이 決定된다. 만약 어떠한 相對價格 밑에서 超過需要 또는 超過供給이 發生될 경우에는, 그 相對價格은 變動을 일으켜서 超過需要 또는 超過供給을 解消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運動을 일으키게 하는 起動力도 다름아닌 바로 交換剩餘의 極大이다. 왜냐하면 一定價格 밑에서 W 商品의 超過需要現象이 發生되면, W 商品의 供給者는 W 의 (W'로써 表示한) 相對價格($P_w = -\frac{y}{x}$)를 높임으로써 交換剩餘의 增加를 期할 수 있으며, 反對로 W 商品의 超過供給現象이 發生되었을 경우에는, W 商品의 供給者는 相對價格을 低下시켜 W 商品의 需要者 즉 W' 商品의 供給者로 하여금 交換剩餘의 增加를 可能하게 해줌으로써 供給者의 隊列속에서 脫落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商品이 超過需要狀態에 있을 때에는, 그 商品의 供給者의 交換剩餘極大化가 市場價格上向運動의 動機가 되고, 反對로 超過供給狀態에 있을 때에는, 그 商品의 需要者의 交換剩餘極大化가 市場價格下向運動의 動機가 된다. 이리하여 結局 相對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이 均等하게 되는 點에서 決定되는데, 이 競爭의 需要供給의 法則을 뒷바침해주는 原理도, 上記한 바에 따라서, 交換剩餘極大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相對價決定理論을 提供해준 사람은 Walras 였었다. Walras 가 『純粹經濟學要論』에서 展開한 交換理論은, W-W' 過程에서 作用하고 있는 交換法則에 관한 理論이었다. Walras 는 二商品 交換理論을 다음과같이 展開했다. 먼저 어떠한 相對價格에 있어 個人의 交換剩餘가 極大가 되는 A, B 二商品의 需要量을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에 의해서 各各 確定지운다. 이리하여 A·B 二商品의 個別需要函數와 總需要函數가 決定된다. 그리고 A·B 二商品의 個別需要函數와 總需要函數로부터 自動적으로 B·A 의 個別供給函數와 總供給函數가 決定된다. 따라서 A·B 二商品의 均衡價格은 各商品의 總需要量과 總供給量이 一致되는 點에서 名名 決定된다. 그리고 또 A 商品의 需給이 均等하게 되면 그 價格에서 必然적으로 B 商品의 需給도 均等하게 된다. 이것을 方程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rray}{l} P_a P_b = 1 \\ r_a = P_a r_b \qquad r'_b = P_b r'_a \\ D_a = F_a(P_a) \qquad D_b = F_b(P_b) \\ O_b = D_a P_a = F_a(P_a) P_a \qquad O_a = D_b P_b = F_b(P_b) P_b \\ D_a = O_a \text{ 또는 } D_b = O_b \end{array} \right\} \dots\dots\dots (4)$$

但 P_a 는 B 로써 表示한 A 의 價格을, P_b 는 A 로써 表示한 B 의 價格을, r_a 는 B 所有者의 A 에 대한 限界効用을, r_b 는 B 所有者의 B 에 대한 限界効用을, D_a 는 A 에 대한 總需要量을, O_b 는 B 의 總供給量을, r'_a 는 A 所有者의 A 에 대한 限界効用을, r'_b 는 A 所有者의 B 에 대한 限界効用을, D_b 는 B 에 대한 總需要量을, O_a 는 A 의 總供給量을 各各 表示한다.⁴⁵⁾ 그런데 $D_a=O_a$ 또는 $D_b=O_b$ 와 $P_aP_b=1$ 로 부터 P_a, P_b 의 値를 求할수있다.

그리고 $D_a=F_a(P_a), D_b=F_b(P_b)$ 는 $r_a=P_br_b, r'_b=P_br'_a$ 로 부터 各各 誘導될 수 있고⁴⁶⁾, 또 $D_a=F_a(P_a), D_b=F_b(P_b)$ 로부터 $O_b=D_aP_a=F_a(P_a)P_a, O_a=D_bP_b=F_b(P_b)P_b$ 가 誘導되므로 方程式 (4)의 基本은 $r_a=P_ar_b, r'_b=P_br'_a$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r_a=P_ar_b, r'_b=P_br'_a$ 는, 不等式(3)에 「交換剩餘의 極大」(non plus ultra)를 附加시킨 것에 差없다. 이리하여 需要量과 供給量에 의해서 相對價格이 決定된다는 交換法則 II 는 交換法則 I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 과 「交換剩餘의 極大」 合計할것이라는 命題가 成立된다.

[不等式(2)→不等式(3)—{交換剩餘의 極大}→方程式(4)]

Böhm-Bawerk 는, 「需要供給의 法則」은 그 自體로서는 「曖昧와 模糊로 充滿」(eine Fülle von Unklarheiten und Verschwommenheiten)되고 있으며, 한낱 「標語」(Schlagwort)에 지나지 않으며, 「空虛하고 無意味한 公式」(leere und nichtssagende Formel)에 不過하다고 하며, 그것은 어떠한 基本原理에 의해서 begründen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Böhm-Bawerk 는, 需要供給의 法則을 限界効用理論에 立脚해서 begründen 하려고 하고 있

45) 記號는 Walras 가 使用한 것을 그대로 옮겼는데 r'_a, r'_b 만은 筆者가 添附한 것이다. L. Walras, *Elements of Pure Economics*, translated by W. Jaffé, Part 2

46) 方程式 $r_a=P_ar_b$ 에

$r_a=\varphi_a(d_a)$ [B 所有者의 A 에 대한 限界効用函數]
 $r_b=\varphi_b(y)$ [B 所有者의 B 所有量 q_b 에서 O_b 를 交換에 提
 $=\varphi_b(q_b-O_b)$
 $=\varphi_b(q_b-d_aP_a)$ 供한 後에 남는 y 量에 대한 限界効用函數]

를 代入하면

$\varphi_a(d_a)=P_a\varphi_b(q_b-d_aP_a)$

가 되는데, 이 方程式을 d_a 에 관해서 풀면

$d_a=f_a(P_a)$

가 된다. 이것은 곧 個別需要函數를 表示한다. 總需要函數 D_a 는 d_a 의 合計로서 表示된다.

$D_a=f_{a1}(P_a)+f_{a2}(P_a)+f_{a3}(P_a)+\dots\dots\dots=F(P_a)$

(L. Walras, *op.cit.*, p. 125, p. 94)

a_1, a_2, \dots, a_m 는 A 商品의 各所有者의 所有量을, b_1, b_2, \dots, b_n 는 B 商品의 各所有者의 所有量을, $x_1, x_2, \dots, x_m \cdot y_1, y_2, \dots, y_m$ 는 A 商品의 各所有者의 交換에서 授受되는 A, B의 數量을, $x'_1, x'_2, \dots, x'_n \cdot y'_1, y'_2, \dots, y'_n$ 는 B 商品의 各所有者의 交換에서 授受되는 A, B의 數量을 ($x_1 \neq x'_1, y_1 \neq y'_1, \dots$), $F_1(a_1 - x_1), F_2(a_2 - x_2), \dots, F_m(a_m - x_m) \cdot f_1(y_1), f_2(y_2), \dots, f_m(y_m)$ 는 A 商品의 各所有者의 A, B에 대한 限界効用을, $F_1(x'_1), F_2(x'_2), \dots, F_n(x'_n) \cdot f_1(b_1 - y'_1), f_2(b_2 - y'_2), \dots, f_n(b_n - y'_n)$ 는 B 商品의 各所有者의 A, B에 대한 限界効用을 各各 表示한다.

$$\left. \begin{aligned} \frac{F_1(a_1 - x_1)}{f_1(y_1)} = \frac{y_1}{x_1} = P & \quad \frac{F_1(x'_1)}{f_1(b_1 - y'_1)} = \frac{y'_1}{x'_1} = P \\ \frac{F_2(a_2 - x_2)}{f_2(y_2)} = \frac{y_2}{x_2} = P & \quad \frac{F_2(x'_2)}{f_2(b_2 - y'_2)} = \frac{y'_2}{x'_2} = P \\ \dots\dots\dots & \quad \dots\dots\dots \\ \frac{F_m(a_m - x_m)}{f_m(y_m)} = \frac{y_m}{x_m} = P & \quad \frac{F_n(x'_n)}{f_n(b_n - y'_n)} = \frac{y'_n}{x'_n} = P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9)$$

方程式 (9), (7) 또는 (8)은 Wicksell의 相對價格決定 理論이다.⁴⁸⁾ 方程式의 數 [2(m+n)+1]와 未知數 ($x_1 \dots x_m, y_1, \dots, y_m, x'_1 \dots x'_n, y'_1 \dots y'_n, p$)의 數가 一致되므로 方程式 (9), (7) 또는 (8)은 理論의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Walras의 方程式 (4)와 理論의으로 一致된다.

Jevons는 一商品의 所有者全體와 他商品의 所有者全體를 各各 一團體 [「去來團體」(trading party)]로서 看做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Jevons는 「이 各 去來團體에 있어 各 商品에 關하여 一種의 集合的 限界 効用(collective marginal utility)를 認定하고 그것을 總所有量 그리고 總獲得量의 函數로서 看做하려고 한다」.⁴⁹⁾ 따라서 a, b를 兩去來團體 A, B의 兩商品 X, Y의 所有量, x, y를 兩商品 X, Y의 交換量, $\phi_1(a-x), \phi_1y$ 를 交換後에 있어서의 A의 X, Y에 대한 限界効用, $\phi_2x, \phi_2(b-y)$ 를 역시 交換後에 있어서의 B의 X, Y에 대한 限界効用이라고 하면, 다음 方程式 (10)이 成立된다.⁵⁰⁾

$$\frac{\phi_1(a-x)}{\phi_1y} = \frac{y}{x} = \frac{\phi_2x}{\phi_2(b-y)} \dots\dots\dots(10)$$

여기서 決定되어야 할 相對價格은 $p = \frac{y}{x}$ 이다. 그리고 x는 價格 p 밑에서 第一團體 A에게는 商品 X의 供給量을 表示하지만, 第二團體 B에게는 商品 X에 대한 需要量을 表

48) 記號는 Wicksell이 使用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 K. Wicksell, *Value, Capital and Rent*, (George Allen & Unwin), pp. 71~72

49) *ibid.*, p. 73

50) W.S. Jevons, *op. cit.*, p. 100

示한다. 꼭같이 y 도 한편에서는 需要量을 表示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供給量은 表示한다.⁵¹⁾ 이리하여 方程式 (10)은 効用基準交換과 同時에 需要供給에 의한 價格決定도 나타낸다. 그리고 方程式 (10)은 方程式이 둘인데다가 未知數도 둘(x, y)이므로 理論的으로 풀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問題가 있다. 그것은 「一團體의 一商品에 대한 限界効用」(集合的 限界効用)이라는 概念이 曖昧하며, Jevons는 그것을 한번도 明確한 말로써 表現한 일이 없다는 事實이다. 이리하여 Wicksell은 一團體의 一商品에 대한 限界効用 즉 集合的 限界効用을 一團體의 成員의 個人的 限界効用의 算術平均 즉 「平均的 限界効用」으로서 看做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平均的 限界効用이 어떻게 相對價格을 決定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總所有量의 函數가 될수 있는지 여전히 疑問은 남는다고 Wicksell은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Wicksell은, Jevons는 理論의 根本思想은 옳게 把握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解答은 充分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⁵²⁾

5) 우리는 Walras, Wicksell, Jevons 등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이, $W-W'$ 過程에서 단 通用될 수 있는 相對價格決定理論이라고 말했다. $W-W'$ 過程은 生産者가 自己가 生産한 財貨를 自家消費하고 殘餘를 交換에 提供하는 半商品經濟이다. 따라서 $W-W'$ 過程에서는 交換되는 各商品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며, 交換되는 各商品마다 効用勞動量이 投下勞動量보다 크다는 것이 前提되어야 한다. 그런 限에 있어서 投下勞動量은 交換基準에서 捨象될 수 있었다. Walras, Wicksell, Jevons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은 이와같이 投下勞動量이 交換基準에서 捨象된 理論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投下勞動量을 交換基準에서 全的으로 除外해 버리는 理論的造作은 역시 誤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Walras, Wicksell, Jevons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은 事後的으로는 옳지만 事前的으로 옳지 못한 理論이라고. 事後的으로 옳다는 것은, 不等式 (3)이 不等式(2)와 一致되는 範圍內에서 옳다는 말이고, 事前的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은, 不等式(3)이 Walras, Wicksell, Jevons의 경우, 不等式(2)로 부터 誘導되지를 못하고 獨自的으로 誘導되었다는 바로 그 事實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 投下勞動量이 交換基準에서 除外되어 버린 結果, Walras, Wicksell, Jevons의 効用基準交換理論에서는, 交換過程에서 發生되는 人間對人間的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의 側面이 完全히 度外視되고 말았다.

51) 「나의 理論은 需要供給의 法則과 完全히 一致된다. ……우리는 x 를 한편에 있어 需要量 다른 한편에 있어 供給量으로, 그리고 y 도 한편에 있어 需要量 다른 한편에 있어 供給量으로 看做할 수 있다」(W.S. Jevons, *op. cit.*, p.101)

52) K. Wicksell, *op. cit.*, p.74

6) Jevons 는, 「交換은 効用을 極大化하고 勞動을 節約하는 極히 重要한 過程」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즉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을 前提하고 있으면서도, 交換方程式(10)에 있어서는,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이 展開되고 있다. 「効用의 計算學(calculus of utility)은 人間普通의 欲望을 勞動의 最小費用(the least cost of labour)으로 充足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⁵³⁾는 命題는, 交換方程式에서는 전혀 適用되고 있지를 않다. 그러나 Jevons 에 있어서도 勞動이 交換理論에 反映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Jevon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勞動은 供給을 決定하고, 供給은 最終効用度(限界効用)를 決定하며, 最終効用度(限界効用)는 또 價値 즉 交換比率을 決定한다」.⁵⁴⁾이리하여 投下勞動量도 迂回的으로 接間的으로 價値決定에 參與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經濟學理論』第五章「勞動理論」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定式化되고 있다⁵⁵⁾

$$\text{交換比率} = \frac{y}{x} = \frac{X \text{의 限界効用}}{Y \text{의 限界効用}} = \frac{X \text{의 單位當生産費}}{Y \text{의 單位當生産費}}$$

이 關係를 Jevons 는 다음과 같이 誘導해 냈다. 一個人이 二財貨를 生産해 낸다고 한다. 지금 ϕx , ψy 가 生産하는 二財貨에 대한 限界効用, ω_1, ω_2 가 二財貨의 限界勞動生産性を 各各 表示한다고 하면, 그 生産하는 個人이 効用極大化를 追求하는 限, 다음과 같은 均衡關係가 成立될 것이다.

$$\phi x \cdot \omega_1 = \psi y \cdot \omega_2$$

지금 이 生産하는 個人이 다른 사람과 交換한다고 하면, 生産條件도 變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x_1 과 y_1 를 交換했다고 하면, x 의 所有量은 $x+x_1$ 이 되고 y 의 所有量은 $y-y_1$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交換方程式이 成立된다.

$$\frac{\phi(x+x_1)}{\psi(y-y_1)} = \frac{\omega_2}{\omega_1}$$

그리고 또 上記 生産方程式은 다음과 같이 變更된다.

$$\phi(x+x_1) \cdot \omega_1 = \psi(y-y_1) \cdot \omega_2$$

$$\text{또는 } \frac{\phi(x+x_1)}{\psi(y-y_1)} = \frac{\omega_2}{\omega_1}$$

以上の 交換方程式과 生産方程式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結論이 誘導된다.

53) W.S. Jevons, *op. cit.*, p.27

54) *ibid.*, p.165

55) *ibid.*, p.192

$$\frac{\omega_2}{\omega_1} = \frac{y_1}{x_1}$$

이것은 相對價格은, 生産性的 比率 또는 同一勞動量에 의해서 生産되는 量의 比率과 一致한다는 것을, 또 換言하면, 相對價格은 單位當投下勞動量(單位當生産費)과 反比例한다는 것을 意味한다⁵⁶⁾. 여기서 投下勞動量은 相對價格을 決定하는 直接的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結局 Jevons의 理論도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으로 落着되는 셈이 된다.

7) Walras, Wicksell, Jevons의 供給은, 모두가 Blaug의 所謂「뒤집은 需要로서의 供給」(supply as reversed demand)이었다.⁵⁷⁾ 따라서 Walras, Wicksell, Jevons의 供給은, 勞動費用(實質費用)과는 아무런 關係도없고 代替費用과 關聯을 갖는다.⁵⁸⁾ 「代替費用의 理論은 모든費用은 先行의 効用に 歸屬還元시킴으로써 需要와 供給을 다같이 効用に 依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⁵⁹⁾

8) Marx는 「同一의 크기의 共通要素」(ein Gemeinsames von derselben Größe)가 交換의 基準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客觀的必要要素가 交換의 基準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客觀的必要要素를 交換의 基準으로 삼으면, Böhm-Bawerk가 Marx에 대해서 加한 批判이 그대로 適用될 수 있게 된다. Böhm-Bawerk에 의하면, 「同一의 크기의 共通要素」가 될수 있는 것은 비단 勞動만이 아니고, 使用價値도 自然素材도 즉 客觀的必要要素全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使用價値·自然素材等の 客觀的必要要素가 交換의 基準이 되었을때 다음과 같은 nonsense가 惹起된다고 Böhm-Bawerk는 말하고 있다. ① 交換의 基準에 관해서, 勞動의 경우에는, Marx가 試圖한 대로 「抽象的人間勞動」 또는 「社會的平均勞動」이 交換의 基準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事實은 「主觀的必然」에 屬한다는 것은 後述하는 바

56) dl 을 勞動의 增加分, dx 를 x 의 增加分, dy 를 y 의 增加分, L 을 X, Y 에 包含되고 있는 全 勞動量이라고 하면

$$\omega_1 = \frac{dx}{dl} \quad \omega_2 = \frac{dy}{dl} \quad \frac{y_1}{x_1} = \frac{\frac{dy}{dl}}{\frac{dx}{dl}} = \frac{\frac{dl}{dx}}{\frac{dl}{dy}} = \frac{\frac{L}{X}}{\frac{L}{Y}}$$

가 成立된다.

57) M. Blaug, *op. cit.*, p.490

58) 「費用의 性質에 관한 問題에는 Walras는 그다지 關心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要論』에는 資源分配에의 代替費用理論의 極히 明快하다고 생각되는 適用이 있다」. (G. Stigl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1941, pp.229~230)

59) M. Blaug, *op. cit.*, p.492

와 같다), 自然素材의 경우에는 「共通平均物質」 또는 「單純物質」을 交換의 基準으로서 想定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것도 「實在物」이 아니고 「通用物」이라고 Böhm-Bawerk 는 말하고 있으므로, 嚴密히 따지면 이것도 純客觀的必然이라고는 할 수없다), 使用價値의 경우에도 「使用價値一般」을 想定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交換의 基準으로서의 「共通平均物質」 또는 「單純物質」의 想定은 完全히 nonsense 에 屬하고, 한편 交換의 基準으로서의 「使用價値一般」의 想定도 적어도 客觀的必然의 立場에 서는 限 究明될 수 없는 主題에 屬한다는 것이다. ② 相對價格決定에 관해서. 客觀的必然이 交換의 基準이 될 경우, 相對價格은 交換되는 兩商品에 內在되고 있는 「共通要素」의 「同一의 크기」에 立脚해서 決定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리하여 相對價格決定은 어떠한 形態에 있어서의 等價交換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 된다. 使用價値의 경우에는, 交換基準인 「使用價値一般」이 客觀的으로 指定될 수 없으므로 等價交換에 立脚한 相對價格決定도 成立될 수 없지만, 自然素材의 경우에는 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nonsense 가 發生된다고 Böhm-Bawerk 는 말하고 있다. 「同一한 論法에 의해서, 交換價値의 原理와 尺度는 商品의 自然素材 속에 介在한다는, 즉 商品은 그에 包含되고 있는 物質量에 따라서 交換된다는 命題가 成立될 수 있다. 하나의 商品 속에 包含되고 있는 10kg의 物質은, 다른 商品속에 包含 되고 있는 10kg의 物質과 交換된다. 만약 10kg의 金이 10kg의 銀이 아니라, 1,000kg의 鐵 또는 그보다 顯著하게 더 많은 石炭과 交換되므로 옳지 않다고 反對한다면, 우리는 Marx 에 본받아서 다음과 같이 對答할 수 있다. 價値形成을 決定하고 測定의 單位가 되는 것은 共通平均物質 (gemeiner Durchschnittstoff)의 量이다라고. 그리고 特殊質의 高級의 稀少的인 物質은 數乘된 또는 數倍로 곱한 單純物質(einfacher Stoff)이며, 따라서 少量의 特殊物質은 大量의 單純物質과 같다고」(傍點原書).⁶⁰⁾

그리하여 Böhm-Bawerk 는 「同一의 크기의 共通要素」를 交換의 基準으로 삼는 限, 上記한 nonsense 도 「抽象的인 人間勞動에 의한 等價交換」과 꼭 같은 論理的正當性을 가지고 그 成立을 要求하게 되며, 적어도 論理上으로는 그 不當性을 主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 抽象的인 人間勞動

1) 不等式 (2) 또는 (3) 이 말하자면 交換을 誘發시키는 事前的條件, 交換을 發生시키는 動機를 表示하고 있다고 하면

$$xW - yW'$$

60) E. von Böhm-Bawerk, „Zum Abschluß“, SS.40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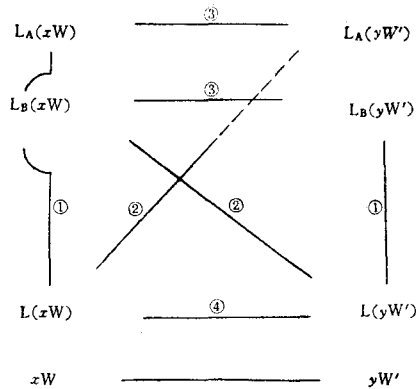
는 交換이 終了된 後의 事後的結果를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xW - yW'$$

는

$$L(xW) - L(yW')$$

와 꼭 같은 意味를 갖는다. 第2圖에서



第 2 圖

① $[L_A(xW) > L(xW) \cdot L_B(yW') > L(yW')]$, ② $[L_A(yW') > L(xW) \cdot L_B(xW) > L(yW')]$, ③ $[L_A(yW') > L_A(xW) \cdot L_B(xW) > L_B(yW')]$ 의 關係는 (①, ②의 關係는 모두 ③의 關係로 要約된다), 모두가 交換을 위한 事前的條件에 屬하지만, ④의 關係만은 交換의 事後的結果에 屬한다. 그런데 交換의 事前的條件 또는 交換의 動機③은, 그 成果를 모두 ④ 즉

$$L(xW) - L(yW')$$

에 投影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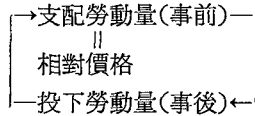
$$L(xW) - L(yW')$$

는 事前的動機까지 內包하고 있는 被媒介의인 事後的結果를 表示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L(xW) - L(yW')$$

에는 다음과 같은 辨證法이 成立된다. ① $L(xW)$ 는 xW 의 投下勞動量이며, $L(yW)$ 는 yW' 의 投下勞動量이다. ② xW 의 投下勞動量 $L(xW)$ 는 yW' 가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는 勞動量이며, yW' 의 投下勞動量 $L(yW')$ 는 xW 가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는 勞動量이다.

③ 支配勞動量의 側面은 事前的의 側面을 表示하는데 대해서 投下勞動量의 側面은 事後的의 側面을 表示한다. 그 理由는 支配勞動量은 곧 相對價格의 實體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圓環關係가 成立된다(第3圖).



第 3 圖

投下勞動量은 支配勞動量(相對價格)을 成立시키는 基礎가 되지만, 또 支配勞動量(相對價格)을 媒介로 하는 事後的의 結果도 表示한다. 그리하여 結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交換法則Ⅰ)과 需要供給에 의한 相對價格決定(交換法則Ⅱ)은 곧 支配勞動量交換이 된다. 이 支配勞動量交換은 交換法則Ⅲ을 形成하게 된다.

2) 上記한 바와 같이,

$$L(xW) - L(yW')$$

에는, 事前的의 能動的인 支配勞動量(相對價格)의 側面과 事後的의 被動的인 投下勞動量의 側面의 兩側面이 있다. 그런데 支配勞動量(相對價格)의 側面이, 人間對財貨의 自然的 關係의 側面을 表示하고 있는데 대해서, 投下勞動量의 側面은 人間對人間の 社會的 關係의 側面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支配勞動量(相對價格)의 側面에 관해서는 이미 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投下勞動量의 側面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다.

投下勞動量의 側面에서 볼 때 問題되는 것은,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同一 또는 大小에 관한 比較이다. 왜 이것이 問題되느냐 하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同一 또는 大小를 比較함으로써, 交換을 통한 人間對人間の 社會的 關係에서 發生되는 利得損失이 判斷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利得損失은 純全히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同一大小에 의해서만 決定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利得損失과 交換剩餘와는 전혀 別個의 것이라는 것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交換을 통해서, 人間對財貨의 自然的 關係에 있어서는 交換剩餘가 獲得되면서도, 人間對人間の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는 損失이 發生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交換剩餘는 事前的의 動機에 屬하지만 利得損失은 事後的의 結果에 屬한다. 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의 同一大小를 比較하려면, ① 異質的인 具體的 勞動(例, 紡織勞動, 建築勞動)의 差別을 어떻게 單一化하며, ② 單純勞動과 複雜勞動의 差別을 어떻게 單一化해야 하느냐의 問題가 惹起된다. 그러나 이 問題에 관해서는, Marx가 『資本論』 第一卷 第一篇・第二篇에서 거의 完全無缺하게 解決해 놓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사람은 異種의 對象의 크기가 同一單位에 換算된 後에 비로소 量的으로 比較가 可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同一單位의 表現으로써만 이들 商品은 同分母의, 따라서 通約이 可能한 크기를 나타낸다」⁶¹⁾ Marx 는 「同一單位」 또는 「同分母」를 「抽象的人間勞動」(abstrakt-menschliche Arbeit) 「社會的平均勞動力」(gesellschaftliche Durchschnittsarbeitskraft) 「單純平均勞動」(einfache Durchschnittsarbeit) 또는 「單純한 社會的平均勞動」(einfache gesellschaftliche Durchschnittsarbeit) 등에서 찾았다. Marx 는 抽象的人間勞動을, 「無差別的인 人間勞動 즉 그 支出形態를 考慮하지 않는 人間勞動力의 支出」이라고 하고, 具體的勞動을 그의 特定の 「支出形態」로서 規定짓고 있다.⁶²⁾ 그리고 또 具體的勞動은 抽象的人間勞動의 「實現形態」라고도 말하고 있다. 「具體的勞動은 抽象的人間勞動의 表現이다. 이를테면, 上衣가 抽象的인 人間勞動의 單純한 實現이 되고 있다면, 上衣에 實現되고 있는 裁縫은, 抽象的人間勞動의 單純한 實現形態가 된다」⁶³⁾ 社會的平均勞動力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價値의 實體를 이루는 勞動은, 同一의 人間勞動(gleich menschliche Arbeit)이다. 즉 同一人間勞動力의 支出이다. 商品世界의 價値에 나타나고 있는 社會의 全勞動力은,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같은 人間勞動力으로서 取扱된다. 물론 그것은 無數의 個人的 勞動力에 의해서 成立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各各은, 그것이 社會的平均勞動力の 性質을 가지며 또 그러한 社會的平均勞動力으로서 作用하고, 따라서 一商品의 生産에 있어서도, 다만 平均的으로 必要한 또는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時間만을 使用한다는 前提 밑에서 다른 것과 同一한 人間勞動力인 것이다」⁶⁴⁾ 또 Marx 는 「勞動의 形態轉換」이라는 見地에서 「同一單位」를 考慮하고 있다. 「裁縫과 베짜기는 異質的인 勞動이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狀態가 있다. 거기에서는 同一人間이 裁縫도 하고 베짜기도 하고, 따라서 이 두가지의 다른 勞動樣式은, 一個人의 勞動의 變形에 지나지 않으며 異質的인 個人的 特殊한 固定된 機能이 아니며, 그것은 마치 裁縫帥가 오늘 만든 上衣와 來日 그가 만드는 下衣가, 同一한 個人的 勞動의 變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하는 것과 같다. 또 우리는 每日 이러한 것을 보고 알고 있다. 즉 우리들의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勞動需要의 方向의 變化에 따라서, 一定量의 人間勞動이 裁縫의 形態로서 供給되기도 하고 베짜기의 形態로서 供給되기도 한다. 이러한 勞動의 形態轉換은 摩擦없이 行해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반드시 行해져야 되는 것이다. 生産의 活動의 特定성과 勞動의 有用한 性質을 無視하면, 勞動

61) K. Marx, *a.a.O.*, S. 54

62) *ibid.*, S. 42

63) *ibid.*, S. 63

64) *ibid.*, S. 43

에 남는 것은 그것이 人間勞動力의 支出이라는 것이다」⁶⁵⁾ 또 Marx 는, 抽象的인 人間勞働 = 社會的인 平均勞働은 單純平均勞働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勞働은, 모든 普通的인 人間이 特別한 發達도 없이 平均的으로 그 肉體的인 有機體속에서 갖고 있는 單純勞働力의 支出이다. 單純平均勞働 自體는 國家가 다르고, 또 文化的인 時代가 다른데 따라서 그 性格도 달리 하지만, 一定의 現存하는 社會內에 있어서는 주어져 있다. 複雜勞働은 數乘된 또는 數倍의 單純勞働으로서 通用되며, 따라서 小量의 複雜勞働은, 多量의 單純勞働과 같아진다」⁶⁶⁾ 「高級의 勞働은 항상 社會的인 平均勞働에 換算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하루의 高級勞働은 X日間의 單純勞働으로. 이리하여 資本家에 의해서 雇傭되는 勞働者의 勞働은, 單純한 社會的인 平均勞働이라는 假定에 의해서, 不必要한 操作이 省略되고 分析이 單純化해진다」⁶⁷⁾ 이와같이 異質的인 具體的인 勞働의 差別, 그리고 複雜勞働과 單純勞働의 差別을 解決하는 「同一單位」 「同分母」로서, 抽象的인 人間勞働 · 社會的인 平均勞働力 · 單純平均勞働 또는 單純한 社會的인 平均勞働 (이 모든 것은 同一物을 指稱한다) 등이 登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Marx 의 理論的인 遺産을 그대로 繼承하기로 한다.

3) Marx 는 「同一單位」 또는 「同分母」를 誘導해 내는데 있어, 다음 두 가지 事項을 假定했다. ① 社會에는, 오직 한 사람의 아무런 特殊한 技術的인 訓練도 받지 않고 또 先天的으로 뛰어난 素質도 갖지 않는, 平均型의 勞働者가 存在하며, ② 그 平均型의 唯一의 勞働者가, 그 社會의 全勞働者가 生産하는 모든 商品을 차례차례로(오늘 · 내일 · 모레식으로) 生産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다음과 같은 事態가 發生된다. 만약 그 사람이 오늘 綿絲 10 온스를 짜는 紡績勞働에 8時間을 消費했으며, 내일 책상 한 개를 만드는 木工勞働에 6時間을 消費한다고 하면, 綿絲 10 온스를 生産하는데 所要되는 抽象的인 人間勞働은 8時間, 책상 한 개를 만드는데 所要되는 抽象的인 人間勞働은 6時間이 되며, 서로 「同一單位」 또는 「同分母」의 土臺위에 立脚하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그 同一大小의 比較가 可能해진다. 지금 同一人間이라는 前提를, 物理的인 勞働力의 觀點에서 同一하다고 看做되는 A, B 두사람으로 바꾸어, A는 綿絲 10 온스를, B는 책상한개를 다같이 오늘 만들었다고 하면, A·B가 綿絲 10 온스 책상한개를 만드는데 所要된 具體的인 勞働의 量 8時間 6時間은, 곧 抽象的인 勞働의 量으로 換算되며 그 同一大小의 比較가 可能해진다.

그리고 複雜勞働을 單純勞働의 數倍 또는 數乘으로 換算하는 理論的인 正當性을 主張하면서, Grabski 는 複雜勞働習得에 要求되는 勞働量 즉 「習得勞働量」(Quote der Erlernungsarbeit)

65) *ibid.*, S. 48

66) *ibid.*, S. 49

67) *ibid.*, S. 207

이 加算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⁸⁾ 즉 만약 1時間의 複雜勞動習得에 4時間의 習得勞動量(單純勞動의 量)이 要求되었다고 하면, 그 1時間의 複雜勞動은 5時間의 單純勞動으로 換算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複雜勞動과 單純勞動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이다.

1時間의 複雜勞動의 量

=1時間의 複雜勞動이 要求하는 習得勞動量(單純勞動의 量)+1時間의 單純勞動의 量.

4) Böhm-Bawerk는 Marx의 上記 換算理論은 다음 두가지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⁶⁹⁾ ①「實在物」(Sein)을「通用物」(Gelten)로 代替시켰으며, ②「換算基準」(Reduktionsmaßstab)을 社會의 交換關係의 事實에서 誘導해내고 있는데, 그 社會의 交換關係가 說明을 必要로 하므로 結局이 換算理論은 循環理論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結論부터 말하면, 이 Böhm-Bawerk의 말은 옳지 않다. 먼저 ①부터 檢討해보기로 하자. Böhm-Bawerk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arx는 분명히 複雜勞動은 數倍 또는 數乘의 單純勞動으로서 通用된다(gelten)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通用된다는 것과 存在한다(sein)는 것은 同一한 것이 아니다. 理論은 事物의 存在를 取扱한다」.⁷⁰⁾ 즉 Böhm-Bawerk에 의하면, Marx가 試圖한 單純勞動으로 換算된 複雜勞動은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實在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Böhm-Bawerk는, 이 實在物의 通用物에 의한 代替의 矛盾性을, 「共通要素」가 自然素材에 通用될 경우, 그것은 「共通平均物質」=「單純物質」이 되며, 다음과 같은 non-sense가 成立된다는 것을 主張함으로써 反證하려고 한다. 「上級優良質의 高貴한 物質은 數乘된 또는 數倍의 單純物質로서 通用되며 따라서 小量의 優良質의 物質은 大量의 單純物質과 同一하다」(傍點原書)⁷¹⁾ 그러나 Böhm-Bawerk의 이 말은 옳지 못하다. Böhm-Bawerk의 Marx 批判은, 論點의 거의 모두가 正當性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나, 個中에는 正鵠를 잃은 論點도 있는데, 複雜勞動의 單純勞動에의 換算不可能의 主張은 그 가운데 尤甚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Böhm-Bawerk의 이와같은 誤謬의 基底에는, 交換過程에서 勞動이 갖는 必然的意義에 대한 外面이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Böhm-Bawerk의 見解를 批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 Böhm-Bawerk가 批判한대로 單純勞動으로 換算된 複雜勞動은 嚴密하게 말하면 實在物이 아니라 通用物에 屬한다고 할수있다. 換言하면 그것은 嚴密한意味에 있어서의 fact가 아니고 fiction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그것은 必要不可缺의 fiction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複數價格의 平均値인 物價指數가, 嚴密

68) Vgl. E. von Böhm-Bawerk, „Zum Abschluss“, S. 400

69) *ibid.*, S. 401

70) *ibid.*, S. 397

71) *ibid.*, SS. 401~402

한 意味에 있어서는, 實在의 意義를 갖지않은 fiction 이면서도, 必要不可欠의 fiction 이라는 것과 꼭같다. 만약 物價指數가 實在物이 아니라고 그 使用을 拋棄해 버리면, 物價全般의 動向에 관한 認識은 부득이 斷念할 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換言하면, 사람이 物價全般의 動向에 관한 認識을 欲求하는 限, 實在物(個別價格)을 超越한 어떠한 造作된 通用物(物價指數)의 措定을 必要로 하게 되는데, 問題는 그것이 客觀的 妥當性을 지닌 通用物이나 아니냐에 있는 것이며 實在物이나 非實在物이냐에 있는것이 아니다.

또하나의 例를 들기로 하자. A, B, C 3 學生이, 各各 國語 80 點 英語 90 點 獨語 85 點 數學 70 點 漢文 90 點 歷史 80 點 體育 80 點, 國語 70 點 英語 80 點 獨語 80 點 數學 90 點 漢文 80 點 歷史 90 點 體育 80 點, 國語 90 點 英語 85 點 獨語 90 點 數學 80 點 漢文 80 點 歷史 80 點 體育 80 點의 成績을 올렸다고 하자. A 는 B, C 보다 英語·漢文에서 優秀하고, B 는 A, C 보다 數學·歷史에서 優秀하고, C 는 A, B 보다 國語·獨語에서 優秀하다. 實在物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事實(個別的인 成績)뿐이며, A, B, C 의 「綜合成績의 順位」는 實在物이 아니므로 直接的으로는 알 道理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綜合成績의 順位」를 알려고하면 比較의 基準으로서의 平均點의 算出(A 82 點, B 81 點, C 83 點)이 不可欠條件으로서 要求되는데, 平均點이 實在物이 아니고 通用物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反對로 말하면, 平均點이라는 非實在的 通用物의 助力없이, A, B, C 의 綜合成績의 比較가 不可能하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도 問題되는 것은, 平均點이 實在物이나 通用物이나 하는것이 아니고, 그것이 客觀的 妥當性을 지닌 通用物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다.

抽象的人間勞動=單純勞動은, 物價指數·平均點과 같이 實在物·fact 가 아니고 通用物·fiction 이기는 하지만, 物價指數·平均點이 어떠한 目標認識의 不可欠의 手段인것같이 抽象的人間勞動=單純勞動도 어떠한 目標認識의 不可欠의 手段이다. 그 어떠한 目標認識이란, 交換過程에서發生되는 人間對人間の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에 관한 認識이다. 이와같이 具體的勞動·複雜勞動의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에의 換算의 基礎에는 動機가 嚴然히存在한다. Böhm-Bawerk 는 이 點을 全的으로 沒却하고 있다. 以上の 見地에서 볼때, 「上級優良質의 高貴한 物質」의 「單純物質」에의 換算은 無意味하다는 結論이 저절로 誘導될줄안다. 왜냐하면 그 換算의 根據에는 아무런 目標·動機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複雜勞動의 單純勞動에의 換算이 循環理論에 빠지고 있다는 Böhm-Bawerk 의 批判이 立되지 않는다는것도, 以上の 說明에 의해서 明白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5) 以上에서, 우리는 Marx 의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을, 所謂 「價值形成實體」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單純히 「換算基準」의 觀點에서 取扱하고, 그 誘導의 必然性을 確認하

었다. 따라서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이 「客觀的必然」에 屬하지 않고 「主觀的必然」에 屬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具體的勞動・複雜勞動의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에의 換算은, 前記한바와 같이, 各種의 異質的인 具體的勞動과 複雜勞動의 量의 同一大小의 比較를 可能케 하는 不可避한 節次이다.

이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에 等價交換을 合計하면 Marx의 價値法則이 成立된다. 즉 Marx의 價値法則을 因數分解하면,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과 等價交換의 두 개의 要素를 얻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Marx의 價値法則의 成立不可能은, 抽象的 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의 成立不可能和 同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事實은 그렇지 않다. Marx의 價値法則의 成立不可能은, 等價交換의 탓이고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의 탓이 아니다. 즉 우리는 Marx의 價値法則은 버리고, 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의 概念만을 取하기로 한다.

3. W—W'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1) 商品交換이 이루어지기 위한 條件은, 前記한 바와 같이 (1—2), (4), 不等式 (3) 또는 (5) 그리고 方程式 (6), (7) [또는 (8)]이 成立되는 것이다. 不等式 (3) 또는 (5) 그리고 方程式 (6), (7) [또는 (8)]이 成立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또는 複數의 交換當事者가 交換을 통해서 各其 主觀的인 交換剩餘를 獲得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交換의 基準이 되는 것은, 主觀的인 效用 즉 效用勞動量(어떠한 特殊한 具體的勞動의 量에 의해서 表示된)이며, 그에 의해서 規制되는 支配勞動量이 곧 相對價格의 實體를 形成한다. 이리하여 效用勞動 二元基準交換은, W—W' 過程에서 效用基準交換이 되고, 그것은 다시 支配勞動量에 의한 交換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交換의 動機 또는 事前的條件에 關聯된 事項이다. 이와같이 해서 交換된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의 相對比率은, 人間의 意圖 즉 交換의 動機와는 直接的으로는 아무런 關聯도 없다. 그리고 또 事後的으로 볼때, 交換된 兩商品의 投下勞動量(抽象的人間勞動=單純平均勞動의 量으로써 表示된)이 必然的으로 等價이어야 된다는 법도 存在하지 않는다. 이것은 換言하면, ex post로서의 交換結果

$$L(xW) - L(yW')$$

에 있어서,

$$L(xW) \cong L(yW')$$

와 같은, 多義的인 關係가 一般的으로 成立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리하여 W—W' 過程에 있어서는, 支配勞動量(相對價格)에 의한 交換, 그리고 無意圖的인 不等價交換(等價交換을

包含한)이 이루어진다는 交換法則Ⅲ이 成立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注意를 喚起해 두어야 할 것은, 不等價交換은 人間의 意圖·意識과 相關없이, 즉 無意圖의으로, 그리고 無意識裡에 行해진다는 事實이다. 그것은, 交換은 人間對財貨의 關係에 着眼해서, 交換剩餘極大化의 動機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Marx 는, 商品交換에 있어, 必然的인 等價交換이 行해지는 根據를 明示하지 못하고 있다. 客觀的必然의 觀點에서, Böhm-Bawerk 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만 「同一한 크기의 共通要素」가 交換의 基準이 된다고 主張만 할뿐, 그것을 證明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Marx 가 等價交換이 行해지는 理由로서 主觀的인 動機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Marx 의 다음의 Le Trosne 의 말의 引用에 의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Marx 는, 「商品交換은, 그 純粹한 樣態에 있어서는 等價의 交換이며, 價值增殖을 위한 手段이 아니다」라고 말한 끝에, 다음과 같은 Le Trosne 의 말을 註로서 붙이고 있다. 「交換은 그 性質上 平等契約(Gleichheitsvertrag)이며, 이 契約은 하나의 價值와 그것과 같은 價值와의 사이에서 成立된다. 그것은 결코 致富의 手段(이것을 不等價交換이라고 바꾸어 表現해도 무방하다 筆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것만큼 주기 때문이다」.⁷²⁾ Marx 는 여기서, 人間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 勞動極小化가 作用하며, 그 結果가 必然的으로 等價交換 즉 均衡狀態를 招來한다는 것을, Le Trosne 의 말의 引用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主張하고 있는 셈이다.⁷³⁾

等價交換을 證明하려고 意圖한 사람은 Sweezy 였었다. Sweezy 는, Adam Smith 가 等價交換을 例示하기 위해서 『國富論』에서 提示한 사슴과 海狸(beaver)의 例를 引用하면서, Adam Smith 의 「狩獵人」은 Marx 의 「單純商品生産者」라고 解釋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약간 길지만 全文引用키로 한다).

「狩獵人은 2時間을 消費함으로써, 한마리의 海狸 아니면 두마리의 사슴을 獲得할 수 있다. 지금 市場에 있어 한마리의 海狸가 한마리의 사슴과 交換된다고 想像해 보자. 이러한 事情 밑에 있어서는, 아무도 海狸를 잡으려고는 하지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時間으로써 한 마리의 사슴을 잡은 뒤에 交換에 의해서 한마리의 海狸를 獲得할 수 있는데 대하여, 만약 海狸를 직접 獲得하려고 하면 2時間이 消費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狀態는 不安定하며 오래 持續될 수가 없다. 사슴의 供給은 增大되고 海狸의 供給은 減少됨으로써, 市場에는 사슴以外의 것은 나타나지를 않고, 그것을 찾는 사람도 存在할 수 없게될 것

72) K. Marx, *a.a.O.*, S. 166

73) 等價交換의 前提로 부터, 「價值」=社會의 平均投下勞動量이 誘導된다. 그러므로 Marx 에 있어서는, 等價交換의 前提가 投下勞動量交換에 先行한다. 이에 대하여 不等價交換의 理論에 있어서는, 支配勞動量交換이 不等價交換의 事後의 結果에 先行한다.

이다. 以上과 같은 推理過程을 追究해 나가면, 오직 하나의 交換比率, 즉 두마리의 사슴에 대해서 한마리의 海狸라는 比率만이 安定狀態를 成立케 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이 交換比率이 市場을 支配하면, 海狸를 잡는 사람들은 사슴의 捕獲에 轉換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슴을 잡는 사람들도 海狸의 捕獲에 轉換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均衡의인 交換比率이다. 즉 海狸 한마리의 價値는 사슴두마리이며, 反對로 사슴 두마리의 價値는 海狸한 마리가 된다. Adam Smith의 命題는 이와같이 해서 옳다는 것이 證明된다. 위의 結果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暗黙의 前提가 要求된다. 즉 狩獵人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地位를 改善할 수 있을 때에는, 사슴의 捕獲으로부터 海狸의 捕獲으로 自由롭게 移動할 用意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移動에 있어서는 아무런 障礙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狩獵人들은, 하나의 分野로부터 다른 分野로 勞動을 移動시킴으로써, 交換過程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을 追求하여 自由롭게 競爭하는 것을 希望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單純商品生産社會에 있어, 이러한 競爭이 存在하면 需要와 供給은 各商品의 價格이 그 生産에 投下된 勞動時間에 比例할 때에만 均衡을 이룬다. 이것을 反對로 말하면, 競爭의인 供給과 需要의 힘이 自由로이 다 發揮되었을 때에만 勞動時間에 比例하는 價格이 成立된다. 즉 價格決定에 있어서의 競爭의需要供給의 理論은, 勞動價値論과 一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往往 看過되고 있는 點이지만, 그것은 또 勞動價値論의 不可缺의 一部分(an integral part of labor theory of value)을 이루고 있다. Marx는, 『資本論』第一卷에 있어서는, 이 點에 言及하고 있지않다. 古典學派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을 當然한 것으로 보는 傾向이 있었다』(傍點原書).⁷⁴⁾ 여기서 Sweezy는, 必然的인 等價交換을, 두가지 方法에 의해서 證明을 하려고 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 즉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에 관한 假定과, 「競爭的需供給의 理論」에 의해서. 우선 前者부터 檢討해 보기로 하자.

3)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에 관한 假定은, Marx의 抽象的인 人間勞動의 理論으로부터 쉽게 誘導될 수 있는 假定이다. 그런데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의 妥當성이 極히 制限되고 있다는 點에 바로 問題가 있는 것이다. 端的으로 말하면, 生産分野에 있어서의 아무 支障이 없는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은, ① 勞動手段과 原材料를 使用하지 않고 勞動만으로써 生産이 行해지고 있으며, ② 複雜勞動이 存在하지 않고 單純勞動만이 存在하며, ③ 交換當事者들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 (投下勞動時間)을 知悉하고

74) P. Sweezy, *op. cit.*, pp. 46~47

있다는 假定위에서만 그 成立이 可能하다. 이 세가지 條件에다가, ④ 交換條件 不等式(3) 또는 不等式(5) 方程式(6), (7) [또는 (8)]이 成立될 때 必然的인 等價交換이 成立된다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이 成立되더라도 거기다 交換條件도 成立된다고 할 때,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는 경우, 交換에서 不利하게 商品을 提供하는 사람들은 即刻 交換을 中止하고 自己가 交換에서 獲得하고자하는 商品을 自家生産하게 된다. Sweezy가 提示한 例를 빌어 말하면, 한마리의 海狸와 한 마리의 사슴이 交換된다고 할때, 海狸를 捕獲하는 사람들은 即刻 交換을 中止하고 사슴을 손수 잡게될 것이다. 이리하여 不等價交換은 修正되고 均衡的인 等價交換이 成立된다. 즉 上記 四個條件은 等價交換이 成立되기 위한 必要且充分條件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것은, 上記 ①②③의 三個條件은 物物交換經濟의 初期에서만 成立될 수 있는 極히 制限된 性質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Marx의 價値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은 物物交換經濟 W-W'의 初期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는 法則이라고. 物物交換經濟의 初期, 즉 ①②③의 三個條件이 充足될 수 있는 時期에 있어서는, 第2圖의 ④도 交換의 事前的條件, 換言하면 交換當事者들의 計算의 條件이 된다. 그리하여 物物交換經濟初期, 즉 Marx의 價値法則이 適用되는 時期의 交換條件은, 不等式(3) 또는 不等式(5) 方程式(6), (7) [또는 (8)]以外에, 또 하나의 條件

$$L(xW) = L(yW')$$

이 追加되어야 한다. Marx의 價値法則은, 不等式(3) 또는 不等式(5) 方程式(6), (7) [또는 (8)]을 度外視했다는 點에있어, 역시 抽象性을 甞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社會的分業이 進行됨으로써, 職業間的 아무 支障없는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이 사실상 不可能事에 屬하게 된 時期에 있어서는, 必然的인 等價交換은 一般的으로 成立되지 못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그렇더라도 Marx의 抽象的인 人間勞動의 假定的 妥當性은 조금도 喪失되지 않는다.

4) 다음에는 需要와 供給에 의한 「均衡化의 메카니즘」(Sweezy)에 관해서 言及하기로 하겠다. Sweezy는 위에서 引用한 文章의 後半에서,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는 需要供給의 作用은 等價交換을 成立케 하는 「不可缺의 一部分」이라고 말하고 있다. Eato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하면 社會가 多數의 鐵工과 少數의 織布工을 갖고 있다고 하자. 鐵工은 供給이 需要를 超過하므로 그 生産物을 쉽게 處理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와 交換으로 少量의 勞動時間을 包含한 生産物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織布工에게

는 立場이 反對가 된다. 明白히 鐵工의 生活은 보다 困難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다른 보다 적게 勞動하는 사람이 얻는 同量의 것을 얻기 위하여, 보다 強度를 높여 그리고 보다 長時間 勞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事情下에서는 누가 鐵工이 되기를 좋아할 것인가. 이 職業은 다른 職業에 踰려서 外面당하고 말 것이다. 이리하여 事態는 또다시 本來의 狀態로 되돌아 가게 된다. 이와같이 競爭 및 需要供給의 作用의 結果로서 商品은 또다시 그 價値에 따라서 交換이 行해지게 될 것이다. 價値法則은 貫徹되고 等價交換으로부터의 乖離는 是正될 것이다.⁷⁵⁾

Marx 는, 需要供給關係를 『資本論』第一卷 第一章에서는 取扱하고 있지 않지만, 第三卷에서는, 그에 관해서 다음과같이 言及하고 있다. 「그러므로 需要供給關係는, 한편에서는 다만 市場價値로부터의 市場價格의 偏差를 說明할 뿐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이 偏差의 解消에의, 즉 需要供給作用의 解消에의, 傾向을 說明할 뿐이다」⁷⁶⁾ 「商品이 그 市場價値에 따라 販賣될 경우에는 需要와 供給은 一致된다」.⁷⁷⁾ 또 『價値 價格 및 利潤』에서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需要와 供給이 均衡을 이루어 따라서 作用을 하지 않게 되는 瞬間, 어떠한 商品의 市場價格은 그 眞實價値와 一致한다. 즉 市場價格의 動搖中心點인 標準價格(standard price)과 一致한다」.⁷⁸⁾

우리는 다음에, 果然 需要와 供給의 作用이 必然的인 等價交換을 成立케 하는 要因이 될 수 있으나에 관해서, 慎重한 檢討를 加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우리는 Marx 가 需要供給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나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Marx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品의 價値는 結局 需要供給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諸君이 想像한다면, 그것은 全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需要供給은 市場價格의 一時的變動(temporary fluctuation) 以外의 아무것도 規制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Marx 에 의하면, 需要供給은 市場價格의 「一時的變動」만을 說明하는데 그치며, 「決코 그 價値自體를 說明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傍點原書).⁷⁹⁾ 그리고 市場價値 乃至는 「標準價格」을 說明하는 것은 다름아닌 價値論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市場價値 乃至는 標準價格으로부터 離脫된 市場價格으로 어떠한 財貨가 賣買된다는 것은 需要量과 供給量이 一致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 市場價格으로 賣買된다는 것은, Marx 에 있어서는, 곧 不等價交換이 行해진다는 것과 同一意味를 갖게 된다. 그리하

75) J. Eaton, *Political Economy*, 1952, pp. 21~22

76) K. Marx, *Das Kapital*, III, S.216

77) *ibid.*, S. 215

78) K. Marx, *Value, Price and Profit*, 1899, p.36

79) *ibid.*, p.36

여 競爭의 結果 「需要와 供給이 均衡을 이루어, 따라서 作用을 하지 않게 되는 瞬間, 어떠한 商品의 市場價格은 그 眞實價值와 一致」되며, 또 그 瞬間 不等價交換도 是正된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이 理論은, prima facie [一見해서는], 勞動價值論위에 需要供給의 法則을 成功的으로 begründen 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Böhm-Bawerk 도 말하고 있듯이, 「이 奇妙한 理論이 全的으로 틀린 理論이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에 屬한다」.⁸⁰⁾ Marx 의 需要供給의 理論을 Walras 의 相對價格決定理論위에 立脚해서 批判해보면, 即刻 그 抽象性을 露出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市場價值대로의 價格(相對價格)이 均衡價格이 되기 위해서는, 그 價格에 있어서의 需要量이 供給量과 一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一致는 반드시 實現될 수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市場價值는 곧 均衡價格(Marx 의 所謂「標準價格」)이 된다는 命題는 成立될 수 없다. 그리고 또 Marx 의 絕對價格決定理論에 있어서, 固定的生産量에 대한 固定的 平均投下勞動量이 規定되고 있을 뿐, 可變的生産量에 대한 可變的 平均投下勞動量이 規定되고 있지를 앎다. 따라서 Marx 에 있어서 平均費用曲線이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고 限界費用曲線(限界投下勞動量曲線)에 이르러서는 더욱 存在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Marx 에 있어서, 供給曲線이 存在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한편 數量의 函數 또는 價格의 函數로서의 需要曲線은 물론 存在할 수가 없었다. 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存在하지 않는 곳에서 論議된 需要供給의 法則은, Böhm-Bawerk 가 表現한대로, 「曖昧와 模糊로 充滿」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空虛하고 無意味한 公式」以上の 意味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Marx 의 需要 供給의 理論에 의하면, 市場價值=30, 生産量=100 이라고 하고, 需要量=120 일 때에는 市場價格>30이 된다. 그런데 「需要量」 「市場價格」 등의 概念은, Marx 의 立場에서는, 모두 「曖昧하고 模糊」하고 한낱 「標語」에 지나지 않는 用語들이다. 따라서 Marx 의 다음의 規定도, 「空虛하고 無意味한 公式」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需要와 供給이 一致한다면 그것은 作用을 하는 것을 中止하고, 그 商品은 그 市場價值로서 販賣된다. 두개의 힘의 反對의 方向으로 均等하게 作用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서로 止揚하고 部에 대하여는 전혀 作用을 하지 않는다」.⁸¹⁾ 要約하면, Marx 의 勞動價值論 위에 立脚한 需要供給의 理論은 그 自體가 極히 不安定한 理論이고, 또 必然的인 等價交換을 論證해 주지 못한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5) Adam Smith는 物物交換에 있어서 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80) E. von Böhm-Bawerk, "Zum Abschluss", S.410

81) K. Marx, *Das Kapital*, III, S. 157

Malthus는 物物交換에 있어서도 不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순히 土地가 共有일 뿐만 아니라, 또 筋肉의 努力을 돕기 위해서 資本이 거의 使用되지 않았던 初期의 時代에는, 各財貨의 投下勞動量과 거의 無關係로 交換이 行해졌을 것이다. 交換되는 對象 가운데 그 大部分은 勞動의 成果나 아니냐가 항상 不確實한 鳥類·魚類·果實等과 같은 여러가지 種類의 粗生産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것은 一對象을 獲得하는데 5 日의 勞動을 投下했으며, 그것을 나중에 보다 幸運한 勞動者에게 겨우 2 日 또는 1 日의 努力밖에 投下되지 않았던 他財貨와 交換하는 것을 極히 幸福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對象의 交換價値와 그것이 生産에 있어 投下된 勞動과의 不均衡은 끊임없이 發生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⁸²⁾ 그러나 資本(原料를 包含한)이 生産에 使用될 때에는 事態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한다. 「極히 初期에 있어서도, 利潤은 供給의 必要條件으로서 交換價値의 問題에 크게 介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弓)이나 箭(矢)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木材또는 갈대가 適當히 乾燥되어야 하고 말려져야 된다는 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勞動者가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이들 原料를 保持해야 할 時間(the time which these materials require to be kept by the workman before his work is completed)은, 價値의 計算에 새로운 一要因을 導入한다. 收益回收의 速度의 差異(the varying quickness of the returns)도 資本에 使用된 勞動量과 無關係한 전혀 새로운 要因이며, 初期의 時代와 最近의 時代를 통한 社會의 모든 時代에 있어서 交換價値의 決定에 있어 가장 重要한 要因을 이루고 있다.」(榜點原書)⁸³⁾ 즉 投下勞動量과 두 種類의 時間을 勘案한 利潤과의 合計로써 表示되는 支配勞動量(相對價格)에 의해서 不等價交換이 行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Malthus는 말하자면 事前的計劃的 不等價交換을 主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Malthus는 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의 理論을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에도 適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前記한 바와같이, 物物交換에 있어서의(통틀어 前資本主義的인) 不等價交換은 事後的無意識의 不等價交換인데 대해서, 資本主義의 不等價交換은 意圖的計劃的 不等價交換이라는 對照的인 特色을 갖는다. 그러므로 Malthus의 支配勞動量說·不等價交換理論은, 그것이 前資本主義時代에 適用된 範圍內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다는 結論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에 Malthus는 等價交換이 行해지는 特殊한 경우로서, 「勞動만이(labour alone) 使用되며, 또 生産物이 即時로(immediately) 市場에 供給되는 稀少한 경우」를 認定하고 있

82) R.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st ed., 1820, p.87

83) R. Malthus, *Principles*, 2nd ed., 1836, pp.85~86

다.⁸⁴⁾ 이것은 必然的인 等價交換이 行해지기 위한 前記四個條件 가운데의 하나에 該當된다 (Ⅱ의 3—2) 參照). Malthus 도 必然的인 等價交換에 關係서 無關心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6) Marx 는 不等價交換의 背後에는 「使用價値와 交換價値의 混同」이 숨어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Condillac 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商品交換에 있어같은 價値와 같은 價値가 交換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실은 그 反對이다. 兩契約者의 各各은 항상 보다 큰 價値에 대해서 보다 작은 價値를 준다.……………實際로 항상 同一價値가 交換된다면, 어떠한 契約者도 조금의 利得도 獲得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兩者가 다같이 利得을 보고 있으며 또 利得을 보아야 한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財貨의 價値는 단순히 財貨와 우리들의 欲望의 關係에만 依存한다. 한 사람에게 큰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작다. 그리고 그 反對도 成立된다.……………우리들이 우리들의 消費에 不可缺의 것을 販賣한다는 것은 前提되고 있지 않다.……………우리들은 우리들에게 必要한 財貨를 獲得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不必要한 것을 提供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보다 큰 것을 얻고 보다 작은 것을 준다.……………(以下略)》 Condillac 는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混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럼에도 不拘하고, Condillac 의 議論은 近代經濟學者에 의해서 反復되고 있다⁸⁵⁾」 여기서 Condillac 가 말하고 있는 것은 不等式 (3)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 內容이 正當性과 妥當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Condillac 는 全部効用의 內容을 明確하게 把握하고 있었다. Marx 가, Condillac 가 「使用價値와 交換價値의 混同」을 했다고 말한것은, 實은 Condillac 가 誤謬를 犯했던 것이 아니고, Marx 自身이 Condillac 等の 効用理論을 充分히 吸收하지 못했다는 證據라고 보는 것이 옳을 줄 생각된다. 이리하여 Marx 가 効用理論을 自身の 理論體系에 吸收하지 못했던 것은, Marx 가 處하고 있었던 時代의 歷史的 制約 때문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parti pris [偏見]도 그 하나의 要因을 이루고 있다는 見解도 成立될 법하다.

7) Walras, Wicksell, Jevons 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이, 物物交換經濟全期間에 걸쳐서 通用될수있는 理論이라는것을 밝히는 것이 Ⅱ의 主要眼目の 하나인데, 그에 關係서는 이미 2—2),3),4)에서 論及한바 있다. 2—2),3),4)에서 우리는, 交換되는 各商品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며, 또 全部効用勞動量이 全部投下勞動量보다 큰限에 있어서 (限界効用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交換基準에서 投下勞動量이 捨象될 수 있다는 意味에서, Walras, Wicksell,

84) *ibid.*, p. 92

85) K. Marx, *Das Kapital*, I, S.166

Jevons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은 物物交換經濟에 있어 妥當性を 갖는다는것을 斷定지운바 있다. 그러나 同時に 우리는, 그들 理論은 抽象性を 벗어나지 못한다는 制限條件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抽象성이란, 交換基準에서 投下勞動量이 完全히 除去됨으로써,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交換法則 Ⅲ)이 理論적으로 誘導될수없었다는 바로 그 事實을 가리킨다. 이리하여 Walras, Wicksell, Jevons의 効用基準交換理論에 있어서는, 交換過程에서 發生되는 人間對人間的 關係에 있어서의 利害得失의 解明이 完全히 沒却되고 있다.

Ⅱ의 主要眼目的 또하나는, Marx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이 物物交換의 極히 初期의 段階에 있어서는 妥當性を 갖는 理論이라는것을 證明하는데 있었다.

III 貨幣의 一般理論

1. 貨幣의 一般定式

1) 筆者는 다음에 貨幣의 機能分析을 통해 貨幣의 効用・勞動의 二元的本質을 確認하고, 完全한 條件을 갖춘 貨幣 즉 本位貨幣=世界貨幣는 어떻게 必然적으로 金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證明하고자 한다. 먼저 筆者는 貨幣의 機能에 관한 다음과 같은 通說을 確認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즉 貨幣의 基本的機能은, ① 一般的交換手段 ② 一般的價值尺度라는 것, 그리고 其他 貯藏手段・支拂手段으로서의 機能은, 말하자면 第二次的派生的部分的機能이며, 두 개의 基本的機能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에 一般的交換手段의 一般的은 時間的空間的인 無差別을 意味하며, 特히 空間的意味에 있어서의 一般性은 곧 世界를 意味하므로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一般的交換手段은 유독 世界貨幣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떠한 特殊한 地域內에서 밖에 通用性を 갖지 못하는 國家貨幣는 決코 完全한 意味에 있어서의 一般的交換手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一般的價值尺度의 一般的은 個別的主觀的差別을 超越한 客觀的單一尺度를 意味하며, 價值尺度는 곧 交換基準의 尺度를 가리킨다. 그런데 모든 交換은 効用・勞動에 立脚한 二元基準交換이므로, 價值尺度도 効用・勞動의 量을 測定하는 二元的尺度가 되지 않을 수 밖에 된다. 그러나 効用은 効用勞動量으로 表示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價值尺度로서의 貨幣는 結局 單一的으로 勞動量의 測定尺度라는 結論을 얻게 된다.

우리는 貨幣의 本質解明을, ①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分析과, ② 貨幣의 一般的價值尺度機能의 分析 및 ③ 貨幣素材의 物理的適格性的 分析等 三個側面의 分析을 통해서

達成하고자 한다.

2) 먼저 우리는,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과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이 相互依存關係에 있으며 論理上 前後의 關係가 成立될 수 없다는 前提위에 立脚하고자 한다. 그것은 一般的價値尺度 아닌 一般的交換手段은 存在하지 않으며, 또 一般的交換手段 아닌 一般的價値尺度도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⁶⁾

그러면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은 대체 무엇에 基因하는 것일까. 여기서 먼저 한가지 指摘해 두어야 할 點은, 交換手段의 一般性은 立法 또는 權力 등에 의해서 造作된 人爲의 一般性이 아니라, 交換手段이 스스로 갖는 固有的 自然的 一般性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貨幣가 갖는 이러한 自然的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은 어디에서 緣由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解明할 理論으로서, Menger의 「商品의 販賣力」(marketability of commodities)의 理論을 援用하려고 한다. Menger의 「商品의 販賣力」의 理論은, 그의 弟子 Wieser에 의해서 後에 若干 變形發展을 보게 되었으나, 그렇더라도 Menger의 「商品의 販賣力」의 理論은 그 創意性과 有效性이 조금도 喪失되지 않았으며, 오늘에 있어서도 十二分으로 通用될 수 있는 眞理라고 생각한다. Menger에 의하면, 貨幣는 모든 財貨 가운데에서, 「가장 販賣力이 있는 商品」(the most saleable of all commodities)이라는 것이다.⁸⁷⁾ Meng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自己의 商品과 交換으로 自己가 必要로 하는 商品만을 받으려고 하며, 그에게 있어서는 역시 商品性格 밖에 갖지 않으나 그의 商品보다 더 큰 販賣力을 갖는 (greater marketability than his own commodity) 다른 商品 즉 그를 所有하면 그가 願하는 商品의 所有者의 發見이 쉽게 될 수 있는 商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商品의 交換은 不可能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莫大한 時間浪費라는 犧牲을 치루고서 겨우 商品交換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傍點原書).⁸⁸⁾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어떠한 時間과 場所에 있어, 가장 販賣力이 큰 商品은 누구에게나 交換에 있어 引受되고, 따라서 其他 어떠한 商品과도 交換될 수 있다」 「그는 보다 작은 販賣力을 갖는 自己의 商品대신에, 보다 큰 販賣力을 갖는 商品을 獲得했으므로, 이러한 商品의 所有가 그 自身이 必要로 하는 消費財의 販賣者를 市場에서 發見할 수 있는 確率을 倍加시킨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⁸⁹⁾ 그러한 「가장 販賣力이 있는 商品」으로서, 古代社會에 있어, 한때

86) 新庄博, 貨幣論, pp. 46~47

87) C. Menger, *op. cit.*, p. 259

88) *ibid.*, p. 259

89) *ibid.*, p. 260

家畜이 貨幣의 機能을 했다고, Menger 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Menger 는, 貨幣商品說에 立脚하고 있으나, 注意해야 할 點은, Menger 는 貨幣商品의 販賣力을 全部効用의 視點에서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음의 Menger 의 文章에 의해서 確認될 수 있다. 「이(交換을 통해서 獲得되는) 利益은 어느 商品이 貨幣로서 一般的으로 承認되느냐 또는 안되느냐와 아무 關係가 없다.」(傍點原書)⁹⁰⁾ 이와 같이 Menger 가 「最大販賣力을 갖는 商品」으로서의 貨幣를 規定지움에 있어 根據로 삼았던 財貨의 要素는, 바로 効用이었다. 즉 Menger 에 있어 貨幣는, ① 効用이었으며, ② 最大通用性을 지닌 効用(=最大販賣力을 가진 商品)이었다. 우리는 이 Menger 의 理論을 貴重한 理論的遺產으로서 繼承하기로 한다. 筆者는 이 Menger 의 理論이 貨幣의 自然的一般的交換手段機能을 解明할 수 있는 唯一의 正當한 見解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自然的貨幣가 지니는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根據는 商品으로서의 自然的貨幣가 지니는 効用의 最大通用性 가운데 있다 라는 命題가 成立된다. 「効用의 最大通用性」이란, 「萬인이 다 같이 使用하는 財貨」(goods of very general use) 또는 「萬인이 꼭 같이 希求하는 財貨」(goods of most general desire)를 指稱한다.⁹¹⁾ 그러므로 金이, 유독 金만이, 世界貨幣가 될 수 있다는 것은, 金이 世界的規模에서 그 効用이 最大通用性을 갖고 있으며, 萬國의 「萬인이 꼭 같이 希求하는 財貨」, 萬國의 「萬인이 다 같이 使用하는 財貨」에 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밖에 慣習(custom)이 貨幣發生에 至大한 功獻을 했다는 것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다.⁹²⁾ 그리고 또 貨幣가 지녀야 할 物理的適格性(運搬의 容易性·品質의 均一性·分割可能性等)도 이 貨幣의 自然的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擴大와 並行해서 점차 追加整備되어 갔다.

3) 다음에는 貨幣의 一般的價值尺度機能에 관해서 考察해 보기로 하자. 前記한 바와 같이, 모든 商品交換은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므로, 價值尺度도 効用·勞動의 量을 測定하는 二元的尺度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主觀的인 効用도 客觀的인 勞動量으로 表示될 수 있기 때문에, 價值尺度도 勞動量測定尺度라는 一元的尺度로 歸着된다는 極히 重要的 結論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價值尺度論은, Marx 의 價值尺度論과 結果적으로 同一內容을 갖게 된다. 그러나 Marx 의 價值尺度論이, 말하자면 單純한 一元的勞動價值尺度論인데 대하여, 우리의 價值尺度論은 効用勞動量測定도 包含하고 있는,

90) *ibid.*, pp. 260~261

91) *ibid.*, p. 266

92) Cf. *ibid.*, p. 260

말하자면, 二元的勞動價値尺度論이라고 할 수 있다. 「價値尺度로서의 貨幣는 商品의 內在的인 價値尺度인 勞動時間의 必然的인 現象形態이다」 「金은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하며 단지 이 機能단으로서 金이란 特殊的인 等價商品은 우선 첫째로 貨幣가 된다」⁹³⁾ 「一商品의 金에 의한 價値表現—A 商品 X 量=貨幣商品 Y 量—은, 그 商品의 貨幣形態이며 또 그 價格이다」⁹⁴⁾ 以上에 表明된 Marx 의 見解는, 모두가 單純한 一元的勞動價値尺度論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素朴한 一元的勞動價値尺度論으로써는, 金이 一般的價値尺度가 된다는 것을 決코 證明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Marx 는 上記引用文章에서, 金이 一般的價値尺度라는 것을 그저 主張만 하고 있을 뿐 證明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왜 金이, 유독 金만이,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을 營爲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證明하려고 한다. 무게를 測定하는 尺度가 그 自身 무게를 가져야 하고, 길이를 測定하는 尺度가 그 自身 길이를 가져야 하듯이, 勞動量을 測定하는 尺度가 그 自身 勞動量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貨幣商品이 表示할 수 있는 勞動量에는 前記한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① 그 貨幣商品의 投下勞動量, ② 그 貨幣商品의 効用勞動量.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現象이 個人을 中心으로發生되는 것이 보통이다. 但 그 個人이 貨幣商品의 生産者인 同時에 또 消費者이기도 하다고 假定해 두기로 한다.

- ① 平均投下勞動量의 可變
- ② 限界投下勞動量의 可變
- ③ 限界効用勞動量의 可變
- ④ 平均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限界効用勞動量

그러나 이러한 現象이 發生되면, 그 貨幣商品은 도저히 그 個人에 있어서도 單一的인 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貨幣商品이 어떠한 個人에 있어 單一的인 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다음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① 平均投下勞動量의 一定
 - ② 限界投下勞動量의 一定
 - ③ 限界効用勞動量의 一定
 - ④ 平均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
=限界効用勞動量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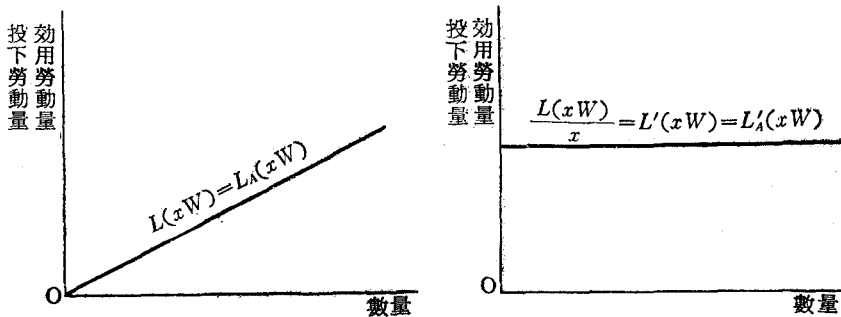
93) K. Marx, *Das Kapital*, I, S. 99

94) *ibid.*, S. 100

여기서 ③의 限界効用勞動量一定은, Marshall의 「貨幣의 限界効用一定」의 命題와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 그러면 例를 들어 이것을 說明해 보기로 하자. 家畜貨幣 이룰때면 한마리의 羊에 대한 A의 平均投下勞動量이 10 勞動時間이라고 하고, A의 이에 대한 價値評價 즉 限界効用勞動量이 15 勞動時間이라고 한다. 그럴때 A는 한 마리의 羊에 대하여 10 勞動時間으로서 評價하기도 하고 또 15 勞動時間으로서 評價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A의 羊에 대한 評價(効用勞動量)가 各個의 羊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룰때면 어떠한 羊에 대해서는 15 勞動時間, 어떠한 羊에 대해서는 14 勞動時間, 어떠한 羊에 대해서는 13 勞動時間 等과 같이 各個의 羊마다 限界効用勞動量이 다르다고 하면, 그 때에도 單一的인 價値尺度가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貨幣商品이 單一的인 價値尺度機能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해서는, 平均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의 成立이 要求되며, 그리고 또 그것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그 前提條件으로서 平均投下勞動量一定・限界投下勞動量一定의 成立이 要求된다. 그런데

- ① 平均投下勞動量의 一定
- ② 限界投下勞動量의 一定
- ③ 平均投下勞動量=限界投下勞動量

의 三條件은, 原點을 通過하는 線型的 全部投下勞動量曲線 (이것은 곧 linear simplification 된 長期總費用曲線이다)으로부터 誘導될 수 있다. 이리하여 (11)은 貨幣商品의 全部投下勞動量曲線과 全部効用勞動量曲線(直線)은 一致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第4圖).



第4圖

그리고 (11)을 方程式으로 表現하면

$$\left. \begin{aligned} L(xW) &= L_A(xW) \\ \frac{L(xW)}{x} &= L'(xW) = L'_A(x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2)$$

이 된다. 여기서 $L'(xW)$ 는 $L(xW)$ 의 第一次導函數를, $L'_A(xW)$ 는 $L_A(xW)$ 의 第一次導函數를 各各 表示한다.

다음에 어떠한 개인에 있어貨幣商品 이單一的인 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하기 위한 條件 (11)은, 모든 개인에 있어서도 同一條件으로, 즉 個人的區別 없이 適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貨幣商品의 一般的單一價値尺度機能은 發揮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關係가 成立되어야 한다.

$$\begin{aligned}
 & A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平均投下勞動量} \\
 & = B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平均投下勞動量} \\
 & = C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平均投下勞動量} \\
 & = \dots\dots\dots \\
 & = A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投下勞動量} \\
 & = B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投下勞動量} \\
 & = C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投下勞動量} \\
 & = \dots\dots\dots \\
 & = A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 B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 C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 \dots\dots\dots \\
 & = U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 V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 Z \text{의 貨幣商品에 대한 限界効用勞動量} \\
 & (\text{但 } U \cdot V \cdot Z \text{ 는 貨幣商品의 生産者가 아니다.})
 \end{aligned} \tag{13}$$

물론 (13)은 (11)의 基礎위에서 그 成立이 可能하다. (13)은 또 方程式 (14)로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 L(xW_1) = L_A(xW_1) & \frac{L(xW_1)}{x} = L'(xW_1) = L'_A(xW_1) \\
 & = L(xW_2) = L_B(xW_2) & = \frac{L(xW_2)}{x} = L'(xW_2) = L'_B(xW_2) \\
 & = \dots\dots\dots & = \dots\dots\dots \\
 & = L(xW_n) = L_N(xW_n) & = \frac{L(xW_n)}{x} = L'(xW_n) = L'_N(xW_n) \\
 & = \dots\dots\dots & = \dots\dots\dots \\
 & = L_U(xW_u) & = L'_U(xW_u) \\
 & = L_V(xW_v) & = L'_V(xW_v) \\
 & = L_Z(xW_z) & = L'_Z(xW_z)
 \end{aligned} \tag{14}$$

但 xW_1, xW_2, \dots, xW_n 은, x 量의 同一種類의 貨幣商品 W 의 所有者別區別을 表示하며, $L'(xW_2), \dots, L'(xW_n)$ 는 $L(xW_2), \dots, L(xW_n)$ 의 第一次 導函數를, $L'_B(xW_2), \dots, L'_N(xW_n)$ 는 $L_B(xW_2), \dots, L_N(xW_n)$ 의 第一次 導函數를 各各 表示한다.

(11)과 (13), 또는 方程式 (14)는, 말하자면 貨幣商品이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하기 위한 必要且充分條件을 表示한다고 할 수 있다.⁹⁵⁾ 그리고 上記 (14)의 一般的價値尺度의 條件을 充足시켜 줄 수 있는 貨幣商品은 金이며, 金뿐이다.

4) 歴史的으로 볼 때, 貨幣는, 一般的交換手段으로서 「効用의 最大通用性」을 獲得함과 同時に 誕生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初期의 貨幣商品은, 「効用의 最大通用性」은 지니고 있었으나, 「限界効用勞動量一定」이라는 一般的價値尺度機能遂行을 위한 必要條件을 充足시키지를 못했으며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이 適用됨으로써), 따라서 또 그 可變의인 限界効用勞動量과 平均投下勞動量, 限界投下勞動量이 서로 一致되지 않은 幣端이 따로있었다. 그 뿐아니라 個人間에 있어서의 平均投下勞動量, 限界投下勞動量 및 限界効用勞動量の 差異도 激甚하였다. 그것은 初期의 貨幣商品이, 「萬人이 꼭 같이 希求하는」 直接的인 消費의 對象으로서 一般的交換手段의 資格을 獲得했기 때문이다. 貨幣商品이 直接的 消費의 對象이 될 경우, 사람에 따라 그리고 또 同一個人에 있어서도 數量에 따라, 그 貨幣商品의 限界効用이 各各 다르게 되므로, 따라서 個別的인 限界効用勞動量은 千差萬別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初期의 貨幣商品은,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은 감당해냈으나,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은 圓滑히 遂行할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家蓄貨幣(羊)는, 「萬人이 다 같이 使用하는 財貨」 또는 「萬人이 꼭 같이 希求하는 財貨」로서, 最大通用性を 지닌 商品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家蓄貨幣는 一般的交換手段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家蓄貨幣는 直接的消費의 對象이 되는 商品이므로, 그 數量에 따라서, 또 그것을 使用하는 사람의 嗜好에 따라서, 限界効用 즉 限界効用勞動量이 各個의 家蓄貨幣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價値尺度機能을 遂行하는데 있어, 家蓄貨幣는 重大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또 個別的 投下勞動量에 差異가 있다면, 더욱 價値尺度機能은 圓滑히 遂行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價値尺度機能이 圓滑히 遂行되지 못한다면 자연 交換手段機能도 圓滑히 遂行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이리하여 家蓄貨幣는 必然的으로 金屬貨幣로 代替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⁹⁶⁾ 金屬貨幣는 家蓄貨幣와 달라 直接的인 消費의 對象이 아니고 間接的인 消費의 對象이라는 特色을 갖는다. 그렇더라도 「萬人이 꼭 같이 希求하는 財貨」로서 最大販賣力을 갖는 商品이며, 그것을 提供하면 自己가 願하는 어떠한 商品도 獲得할 수 있는 商品이라는 點에 있어서는 아무런 變動도 없다는 것은 말할 것없다. 金屬貨幣는

95) 따라서 貨幣商品의 生産에 있어서는 剩餘가 發生되지 않는다. 그러면 貨幣商品은 무엇때문에 生産되는가. 그 自體에 의한 剩餘獲得보다 一般的交換手段의 獲得이 生産의 主目的이라고 우리는 理論을 展開시킨다.

96) C. Menger, *op. cit.*, pp. 266~267

家蓄貨幣에 比하여 다음과 같은 優越한 特色을 갖고 있다. ① 家蓄貨幣의 경우에 있어서는 限界効用 遞減의 法則이 銳利하게 適用되지만, 金屬貨幣의 경우에 있어서는 限界効用 遞減의 法則이 銳利하게 適用되지 않는다. 실사 限界効用 遞減의 法則이 適用된다고 하더라도 極히 緩慢한 遞減傾向을 나타낸다. ② 同一種類的 金屬貨幣에 대한 여러 個別的 限界効用 勞動量이 거의 類似하며 家蓄貨幣에 있어서와 같이 差異가 甚하지 않다. ③ 同一種類的 金屬貨幣의 生産에 投下되는 勞動量이 地域의으로 큰 差異가 없으며, 또 長期間에 있어 一定量의 同一種類的 金屬貨幣의 生産에 投下되는 勞動量에 큰 變動이 없다. 이에 대하여 家蓄貨幣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④ 여러 個別的 限界効用 勞動量과 여러 個別的 平均·限界投下勞動量 사이에 큰 差異가 存在하지 않는다(一致된다). ⑤ 貨幣가 지녀야 할 物理的適格性도 家蓄貨幣에 比해서 金屬貨幣가 더 有利하게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곧 金屬貨幣는 家蓄貨幣보다 (14)의 條件을 더욱 充分하게 具備하고 있다는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鐵·銀·銅·靑銅·白銅·니켈·알루미늄 等 金屬貨幣 가운데에서, 金이 유독 本位貨幣로서의 位置를 獲得하게 된 理由는, 金이 다른 어떠한 有用金屬貨幣보다도, ① 보다 큰 販賣力을 갖고 있는 까닭으로 一般의 交換手段機能을 보다 圓滑히 遂行할 수 있고, ② 거의 一致되는 複數의 個別的 平均·限界投下勞動量과 또 거의 一致되는 複數의 個別的 限界効用 勞動量들이 또 거의 一致됨으로써 價値尺度機能을 다른 어떠한 有用金屬보다도 細密하게 遂行할 수 있으며, ③ 그리고 一定量의 金生産에 投下되는 勞動量은 天下公知의 事實이 되고 있으며, 또 ④ 貨幣의 物理的適格性을 完全無缺하게 具備하고 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金이 다른 어떠한 金屬貨幣보다도, 「効用의 最大通用性」을 지니고 있으며, 또 (14)의 條件을 가장 理想的으로 充足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貨幣의 發展史는 金の 登場으로써 그 前史를 끝맺었다고 할 수 있다.

5) 「價値尺度(Mass der Werte)로서 또 價格基準(Maßstab der Preise)으로서 貨幣는 두 가지 전혀 別個의 機能을 營爲한다. 貨幣는 人間勞動의 社會的化身으로서는 價値尺度이다. 確定된 金屬重量으로서는 價格基準이다. 貨幣는 價値尺度로서는 여러가지로 다른 商品의 價値를 價格으로, 즉, 觀念化된 金量으로 轉化하기 위해서 使用된다. 價格基準으로서는, 貨幣는 이 金量을 測定한다」⁹⁷⁾ 여기서 Marx는 價値尺度和 價格基準과의 關係에 관해서 言及하고 있다. 즉 勞動量과 價格은 一定의 金量을 媒介로 해서 關聯지워지고 있다. 이 Marx의 規定으로써, 價格의 根元의 解明이 이루어지며, 價格理論도 비로소 前進的 體系的展開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根元의 方法에 의하지 않는 어떠한 價格의 說明

97) K. Marx, a. a. O., S. 103

도 循環理論에 빠지고 만다는 것은 貨幣理論·價格理論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以上과 같은 Marx의 理論에 하나의 量大한 修正을 加해 兩事項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니라 勞動量은, 單純한 一元的인 勞動量이 아니라, 限界効用(限界効用勞動量)도 包含하고 있는 二元的·二重的인 勞動量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金 1 온스 生産에 投下되는 平均勞動量이 35勞動時間이라고 하면, 美貨 1 달라는 1勞動時間分の 金量에 대한 命名이 되는 셈이다. (金 1 온스는 35 달라의 法定價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나 留意해야 될 것은, 「1勞動時間分の 金量」에는 두 가지 意味가 內包되고 있다는 것이다. ① 複數의 個別的平均·限界投下勞動量이 均一的으로 1勞動時間이 되는 金量이라는 뜻과, ② 複數의 個別的限界効用勞動量이 또한 均一的으로 1勞動時間이 되는 金量이라는 두 가지 뜻이다. Marx의 價値尺度論·價格基準論은, ①만을 取扱하고, ②는 전혀 度外視하고 있다. 그러므로 Marx의 理論으로부터는, 勞動量과 價格을 媒介하는 使用價値로서의 金의 必然性이 誘導될 수 없었다. 本位貨幣로서의 金의 必然性은, Marx의 一元的勞動價値論 또는 Menger의 一元的効用價値論으로부터는 도저히 誘導될 수 없는 命題에 屬한다. 그것은 오직 貨幣의 効用勞動二元本質論으로부터서만 誘導될 수 있는 命題이다. 이리하여 (14)에다가 다음 (15)가 追加됨으로써 貨幣의 一般定式은 完成되는 셈이 된다.

$$L(mG) = mG = P \dots\dots\dots(15)$$

但 $L(mG)$ 는 金 m 量 (mG)의 投下勞動量을, P 는 價格을 各各 表示한다.

6) 그러면 紙幣(paper currency)는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Mar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價値없는 標가 그것이 流通過程內部에서 金을 代表하는 限價値證券이며, 그리고 이들 標는 金自體가 鑄貨로서 流通過程에 들어서는 範圍內에 있어서만 金을 代表한다. 그리고 이 流通過程에 들어가는 金의 量은 諸商品의 交換價値 및 이들 商品의 轉形速度가 주어지면 金自身の 價値에 의해서 決定된다」⁹⁸⁾ 이와 같이 紙幣는 金에 의해서 뒷받침됨으로써만, 즉 兌換券으로써만, 價値를 갖는다. 그러면 不換紙幣(inconvertible paper currency)는 어디에서 價値의 根源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날 本位貨幣인 金과 外觀上 結付되지 않고 있는 不換紙幣가 多數國家에서 通用되고 있는 것은 嚴然한 事實이 아닌가. 이리하여 다음의 Hilferding의 말이 成立된다. 「貨幣理論家를 괴롭히는 것은 自由鑄造가 禁止되고 있는 本位制(紙幣本位制)에서는 무엇이 價値尺度가 되느냐하는 問題이다」⁹⁹⁾ 그러나 다음 事項만은 움직일 수 없는 事實로서 認定해야 될 줄 생각한다. ① 紙

98)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30. S. 113.

99) R. Hilferding, *Das Finanzkapital*, 1927, S. 28

幣本位制는 金本位制를 代替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補充하는 制度라는 것.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本位貨幣인 金이 國內流通市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대신 國家가 強制力을 통해서 그 通用을 可能케 하고 있는 不換紙幣가 發生된 것은, 本位貨幣인 金이 無用之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도리어 從前보다 對外支拂手段(世界貨幣)으로서의 그 價値가 커진데 緣由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Hilferding 이 말한, 「絶對的紙幣本位の 不可能」((Unmöglichkeit der absoluten Papierwahrung)의 命題가 成立된다.¹⁰⁰⁾ 「純粹紙幣本位에 있어서도 完全價値있는 貨幣가 事實上 尙상 이를테면 對外支拂을 위해서 流通되고 있다」¹⁰¹⁾ 「金은 世界貨幣이며 모든 對外支拂의 準備를 形成한다.……金은 流通의 外部에 있어서도 獨立된 價値의 擔當者이나, 紙幣는 다만 流通의 內部에 있어서만 하나의 通用力을 保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傍點原書)¹⁰²⁾ 이리하여 金이 世界貨幣로서의 威力를 發揮하면 할수록 國內流通過程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대신 不換紙幣의 流通을 促求했다는 逆說이 成立된다. 이것이 곧 「貨幣의 矛盾의 辯證法」의 論理이다. 그러던 무엇이 이와 같은 「貨幣의 矛盾의 辯證法」을 成立케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資本主義의 發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貨幣의 矛盾의 辯證法」의 解明은, 資本主義의 發展의 解明을 기다려서 비로소 可能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② 따라서 國內不換紙幣의 窮極의 根據도 역시 金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³⁾ 이와 같이 名目主義貨幣理論은 金屬主義貨幣理論으로부터 誘導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며, 그 反對가 될 수 없다.

2. Menger · Wicksell · Marshall 의 貨幣理論

1) Menger 는, 貨幣의 一般의 交換手段機能의 根據를, 그 最大販賣力, 즉 「萬人이 다 같이 使用하는 財貨」 「萬人이 꼭 같이 希求하는 財貨」 등에서 볼 수 있는 「効用의 最大通用性」 가운데에서 찾았다. 自然的貨幣의 一般의 交換手段機能에 관한 合理的說明은, Menger 의 「商品의 販賣力」의 理論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可能하지 않으며, 이러한 意味에 있어 Menger 의 貨幣理論에 대한 貢獻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enger 의 貨幣理論에 대한 寄與는, 단지 貨幣의 一般의 交換手段機能의 解明에만 그친다는 것을 또한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貨幣의 一般의 價値尺度機能에 관한 Menger 의 理論은 完全히 復環理論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貨幣의 一般의 價値尺度機能은 前述한 바와 같이, 二重의 意義를 갖고 있다. 投下勞動量과 効用勞動量이 一致됨으로써 一般의 價

100) *ibid.*, S. 46

101) *ibid.*, S. 45

102) *ibid.*, S. 41

103) 新庄博, 貨幣論, p. 23

值尺度機能을 營爲할 수 있다는 것이고, 勞動量은 그 使用價値의 物質量을 媒介로 해서 價格基準으로 轉化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貨幣의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은 窮極의으로는 價格의 根元的基準을 設定하는데 있다. 이를테면 1 달라는 무엇을 가리켜서 1 달라라고 하느냐는 것을 指示하는 것이 곧 貨幣의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이고 價格의 基準設定機能이다. 그런데 Menger의 貨幣理論에 있어서는, 一般的價値尺度=價格基準이라는 概念이 전혀 存在하지를 않는다. Menger는 「交換價値」=「交換價値의 尺度」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 | 「有效價格 (百封度)」 | 平均價格 (百封度)」 |
|-------|-----------------|----------------|
| 砂 糖 | 24—26 타렐 | 25 타렐 |
| 綿 | 29—31 " | 30 " |
| 小 麥 粉 | 51/2—61/2 " | 6 " |

여기서 商品의 平均價格을, 이들 商品이 購買도 되고 販賣도 될 수 있는 그러한 價格이라고 假定하면, 이를테면 4百封度の 砂糖은, 3¹/₂百封度の 綿의 等價物이 되며, 그리고 16²/₃百封度の 小麥粉, 그리고 또 百타렐의 等價物이 된다. (그 反對도 成立된다). 우리는 一商品의 이러한 等價物, 또는 그 許多한 等價物 가운데의 一等價物을 그 交換價値라고 부르며, 또 이 商品이 그에 의해서 賣買될 수 있는 貨幣額을 優越한 意味에 있어서의 交換價値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一般的으로는 交換價値에 관한, 特殊的으로는 交換價値의 尺度에 관한, 우리들의 科學에 있어서의 支配的인 見解에 到達하게 된다」(傍點原書)¹⁰⁴⁾ 여기서 Menger의 論理는, 完全히 顛到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認識할 必要가 있다. Menger는, 貨幣額(타렐)을 통해서 交換價値의 尺度를 說明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면 그 貨幣額(타렐)의 本質은 무엇이나 하는 核心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解答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다. 核心的인 問題는 1 타렐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Menger는 答해야 할 對象을 前提함으로써 petitio principii의 誤謬에 빠지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金 a gram의 價格을 1 타렐이라고 부르는데, 그 a gram의 金은, 그를 生産하는데 投下되는 世界各處의 勞動量이 大同小異하고, 또 相當한 期間 그 投下勞動量에 큰 變動이 없으며(複數的인 個別的平的·限界投下勞動量이 一致), 또 그를 評價하는 世界各處의 모든 사람의 心的態度도 大同小異하며(複數的인 個別的限界効用勞動量이 一致), 그리고 그 大同小異한 投下勞動量이 天下公知의 事實이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世界各處의 사람들의 大同小異한 効用勞動量과 거의 一致하는 條件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前提 위에

104) C. Menger, *op. cit.*, p. 272

서 砂糖·綿·小麥粉 等の 有效價格이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다. 砂糖의 生産者는, 砂糖 百封度を 이룰데던 96 勞動時間(抽象的勞動時間)을 投下해서 生産해 냈으며, 거기 대하여 어떠한 砂糖의 需要者(特定人)는 砂糖 百封도에 대한 主觀的評價=効用=効用勞動量이 이룰데던 104 勞動時間(抽象的勞動時間)이라고 하면, 이 投下勞動量·効用勞動量을 a gram의 金量 속에 包含되고 있는 投下勞動量=効用勞動量= l 로 나는 商에다가 a 를 乘한 值, 즉 $96 a/l$, $104 a/l$ 의 「觀念化된 金量」(Marx)이 表示하는 價格이 곧 供給價格 24 타렐, 需要價格 26 타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賣買는 24 타렐과 26 타렐 사이의 市場價格(이것을 Menger는 平均價格이라고 불렀다)에서, 이룰데던 25 타렐에서, 行해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25 타렐의 「觀念化된 金量」이 表示하는 勞動量(100 勞動時間)은, 또 百封度の 砂糖이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는 金의 勞動量을 表示한다. (其他 綿·小麥粉의 경우도 이와 꼭 같다).

2) Menger의 貨幣理論은 金屬主義에 立脚한 効用貨幣理論(utility theory of money)이었다. Menger에 있어 効用理論은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說明에 있어서는 適切하게 그리고 成功的으로 適用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의 說明에 있어서는 반대로 成功的으로 適用되지 못했다는 것에 관해서 이제까지 說明해 왔다. 다음에는 名目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効用貨幣理論의 古典的代表的 하나인 Wicksell의 理論을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Wicksell은, 貨幣의 基本的機能으로서 價値尺度機能·價値貯藏機能·交換手段機能等 세 가지를 들고 있다.¹⁰⁵⁾ 그런데 이 세 가지 基本的機能 가운데에서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貨幣의 不可缺的인 機能은 交換手段機能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Wicksell은, 一般商品은 市場에 出現했다가 市場에서 사라지는 것이, 즉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from producer to consumer)의 經路를 밟는 것이, 原則이지만, 貨幣는 항상 市場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만 그 所有者단을 바꾸는 特性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貨幣의 特性 때문에 貨幣는 一般商品과 다른 特異點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商品으로서의 貨幣의 그 具體的인 質(concrete qualities)은, 그것이 交換手段으로서 使用됨에 따라 점점 뒷전으로 退却을 強要當 하고 있으며, 그것이 貨幣임을 中止하고 一般商品으로 還元할 때에만 다시금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Wicksell에 있어, 貨幣는 「抽象的인 象徴」(abstract symbol) 「單純한 價値量」(mere quantity of value)을 意味하게 된다.¹⁰⁶⁾ 그리고 또 Wicksell에 의하면,

105) K. Wicksell,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II, (Kelley), pp. 6~7

106) *ibid.*, p. 19

「貨幣의 交換價値를 支配하는 法則」, 또는 이것과 同一한 內容의 것이지만, 「一般物價水準과 그 變動을 支配하는 法則」은, 「商品相互間의 交換價値를 支配하는 法則」과 전혀 다르며, 이것을 沒却하고 商品一般과 商品相互間에 適用되는 것이 無條件 貨幣商品 및 그와 一般商品과의 關係에도 適用될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貨幣에 의해서 媒介되는 財貨의 交換은 다음 法則에 의해서 規制된다. 모든 商品의 供給과 需要는 一致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또 모든 個別的消費者는 限界効用均等の 法則의 支配를 받는다는 것이다. 貨幣自體는 即刻 또는 將來 어느 時期에 消費되기 위해서 考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限界効用을 갖지 않는다. 貨幣는 그와 交換으로써 確保할 수 있는 財貨와 等値의 間接의 限界効用(indirect marginal utility)을 갖는다. 그러나 그間接의 限界効用은 또 貨幣自體의 交換價値·購買力에 따라서 決定되며, 間接의 限界効用이 貨幣의 交換價値·購買力을 規制하지 않는다」(傍點原書)¹⁰⁷⁾ 「事實 商品의 固有價値와 比較하고 그를 測定할 수 있는 貨幣의 內的價値(intrinsic value)란 存在하지 않는다. 貨幣의 主觀的價値(subjective value of money), 즉 그 限界効用은, 우리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앞에서 引用한 文章이 바로 그것), 主로 貨幣의 客觀的價値·購買力에 의해서 決定된다. 물론 其他 消費財와 같이 產業的目的에 의해서 使用된 金屬自身은 그의 用途와 限界効用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 있어, 이것은 二次的意義 밖에 갖지 못하며, 그리고 本質上 可變的이며 極히 稀少한 經濟的重要性 밖에 갖지 않으므로, 貨幣의 價値를 決定지을 수 없다」¹⁰⁸⁾ 이와 같이 貨幣의 主觀的價値(間接의 限界効用)는 貨幣의 客觀的價値·購買力에 의해서 決定되는데, 그러면 그 貨幣의 客觀的價値·購買力은 무엇에 의해서 決定되는가 하면 그것은 貨幣量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Wicksell의 効用貨幣理論은 結局 貨幣數量說에 歸着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貨幣의 價値와 物價는 同義語(synonymous)이며, 좀더 正確하게 말하면 相關概念(correlative ideas)이다」¹⁰⁹⁾ 「이제까지 提出된 오직 하나의 固有의 貨幣價値理論, 그리고 또 참으로 科學的인 重要性을 띤 오직 하나의 것은 貨幣數量說이다. 貨幣數量說에 의하면, 貨幣의 價値 또는 購買力은 貨幣量에 反比例로 움직이며, 따라서 其他 條件이 變함없을 때, 貨幣量의 增加·減少는 그에 正比例한 貨幣의 他財貨에 대한 購買力의 減少·增加를, 따라서 物價의 上昇·下落을 가져오게 한다」 「數量說의 特殊한 固有性은, 貨幣量과 物價 사이에 要

107) *ibid.*, p. 20

108) *ibid.*, p. 130

109) *ibid.*, p. 129

求되는 比例關係이다」¹¹⁰⁾

3) 우리는, 이 Wicksell의 効用貨幣理論이,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과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을 둘 다 說明할 수 없다는 것을 主張하고자 한다. Menger의 効用貨幣理論이 金屬主義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해서, Wicksell의 効用貨幣理論은 名目主義에 立脚하고 있다는 差異가 있다. 金屬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Menger의 効用貨幣理論은,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의 說明에는 失敗했지만,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說明에는 成功할 수 있었다. 그러나 名目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Wicksell의 効用貨幣理論은, 一般的價値尺度機能의 說明에도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說明에도 다 같이 失敗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의 見解이다.

「最近 貨幣數量說은, 貨幣自體를 富의 本質로 보며, 단순히 그 外部的表現으로서 보지 않는 重商主義論에 대한 反動으로서 發生되었다. 重商主義理論은 따라서 貨幣에 交換機能과 關係 없는 固有的 價値를 歸屬시키고 있다. 이와 正反對의 見解는, 貨幣自體는 아무런 價値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見解에 의하면, 貨幣는 交換手段으로서 奉仕함으로써만 完全한 價値를 얻는다는 것이며, 그 價値는 貨幣機能을 만족스럽게 營爲하기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것이다」¹¹¹⁾ 그러나 「價値 없는 貨幣」가 「交換手段으로서 奉仕함으로써만 完全한 價値를 얻는다」는 理論은, 完全히 顛到된 理論이다. 사실은 그 反對이며, 「完全한 價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交換手段機能을 遂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見解이다. 물론 一定領土內에서는, 國家의 強制力이 「價値 없는 貨幣」의 交換手段機能을 케 營爲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完全한 意味에 있어서의 一般的交換手段이라고는 할 수 없다. 完全한 意味에 있어서의 一般的交換手段은, 國家의 強制力이 미치지 않는 地域에서도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實體라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國家의 強制력과 無關聯한, 즉 人爲的造作의 限界를 超越한, 一般的交換手段 즉 自然發生的인 世界貨幣의 必然性을 名目主義는 說明해내지 못한다. Wicksell은 一般商品이 市場에 나타났다가 잠시 후에 市場에서 사라지는 對象,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의 經路를 거치는 對象에 인데 대하여, 貨幣는 항상 市場에 머무르면서 다만 그 所有者만을 바꾸는 對象이기 때문 兩者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 理論은 다음과 같은 誤謬를 犯하고 있다. Wicksell이 말 하는대로, 一般商品은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의 經路를 거치고 있는 對象인데 대하여 貨幣는 市場에 머무르고 있는 對象인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 될 事實은, 貨幣가 「市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의 經路

110) *ibid.*, p. 141

111) *ibid.*, p. 144

에서 疎外된 對象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 反對로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의 經路를 其他 어떠한 商品보다 公高하게 確保하고 있는 商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貨幣가 市場에서 머무를 수 있는 第一의 條件은, 그것이 우선 「生産者로부터 消費者로」의 經路를 確保해야 된다는 것이고, 第二의 條件은 그 經路를 最大普遍性的 範圍에서 確保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商品으로서의 貨幣의 具體的인 質은 그것이 交換手段으로서 使用됨에 따라 점점 뒷전으로 退却을 強要당하고 있으며, 그것이 貨幣임을 中止하고 一般商品으로 還元할 때에만 다시금 나타난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商品으로서의 貨幣의 그 具體的인 質은 그것이 交換手段으로서 使用됨에 따라 점점 高揚된다」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 같이 Wicksell 에 있어, 効用理論은 貨幣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說明에 아무런 實質的奇興도 하지 못하고 있다.

名目主義貨幣理論으로부터는 당연히 또 價値尺度論이 誘導될 수 없으며, 貨幣價値=物價水準의 理論이 이에代 替하게 된다. 이리하여 貨幣數量說은, 名目主義貨幣理論의 中樞를 形成하게 된다. 그런데 Wicksell 은, 「貨幣의 交換價値를 支配하는 法則」=「一般物價水準을 支配하는 法則」과 「商品相互間의 交換價値를 支配하는 法則」을 전혀 別個의 것으로 區別하고 있으며, 商品相互間의 法則을 貨幣商品과 및 그와 一般商品과의 關係에까지 適用시키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Wicksell 의 見解로부터는, ① G-W 또는 W-G 가 成立되는 必然性, 즉 G-W 또는 W-G 過程에 있어서의 交換剩餘의 成立이 說明될 수 없고, ② 相對價格理論의 延長으로서의 絶對價格理論이 誘導될 수 없게 된다.

지금 ②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Wicksell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品交換 그 自體, 그리고 그것을 決定짓는 生産 및 消費의 條件은 交換價値 또는 相對價格을 決定지을 뿐이며, 絶對貨幣價格水準(absolute level of money prices)에는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는다」(傍點原書)¹¹²⁾ 이것은 相對價格決定과 絶對價格決定은 전혀 別個의 原理에 立脚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가지 事實이 確實하다. 相對價格과는 달리, 貨幣價格은 商品市場自體의 條件에 의해서 절대로 支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貨幣價格을 規制하는 原因은 商品市場과 貨幣市場과의 關係에서 찾아야 된다」(傍點原書)¹¹³⁾ 즉 相對價格은 商品市場에서 効用基準에 立脚한 需要供給의 法則에 의해서 決定되지만, 絶對價格(貨幣價格)은 貨幣數量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商品市場과 貨幣市場과의 關係」란,

112) K. Wicksell, *Interest and Prices*, translated by R.F. Kahn, p. 23

113) *ibid.*, p. 24

곧 商品交換過程에서 流通되고 있는 貨幣量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相對價格이 주어지면 거기에 乘因子를 乘해서 貨幣價格이 決定되는데, 그 乘因子의 値를 決定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貨幣數量方程式이라는 理論이 成立된다.¹¹⁴⁾ 이것은 古典派의 二分法(dichotomy)의 體系 위에서 순히 別個의 것인 相對價格決定理論과 絕對價格決定理論의 둘을 機械적으로 一致시키려는 理論이다.

Marx 는, 이 貨幣數量說을, 「價格을 갖지 않는 財貨」(Waren ohne Preis)와 「價値를 갖지 않는 貨幣」(Geld ohne Wert)가 流通過程에 들어간다는 「不合理한 假設」 위에 立脚한 「幻想」이라고 하였다.¹¹⁵⁾

4) Marshall 도 貨幣의 基本的機能을 交換手段과 價値尺度의 둘로 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機能을 「貨幣의 一般的購買力」(general purchasing power of money)이라는 概念으로써 統合하였다. 그런데 Marshall 은, 金·銀은 短期間에 있어서 一般的購買力의 좋은 尺度(good standard)가 된다고 하였다.¹¹⁶⁾ Marshall 에 의하면, 金·銀에 대한 需要供給의 均等이 그 一般購買力의 均一性을 維持시켜 주며, 價値尺度機能을 圓滑하게 遂行시켜 준다고 한다.¹¹⁷⁾ 이것은 金·銀의 경우에 있어서, 限界投下勞動量=限界効用勞動量의 關係가 成立된다는 Marshall 의 見解의 表明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金·銀의 價値는, 供給面에서 生産費에 의해서, 그리고 需要面에서 購買力으로서의 金·銀에 대한 사람들의 欲求에 의해서, 決定된다」¹¹⁸⁾ 「이 (需給)均衡은 相當期間 持續될 수 있을 것이다」¹¹⁹⁾ Marshall 은 또 金·銀의 投下勞動量이 長期間에 걸쳐 一定不變하다는 見解도 갖고 있었다. 「百封度の 金·銀의 生産費는 相當期間동안 其他原生産物과 比較해서 比較的 同一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金·銀의 生産費가 가까운 將來 其他生産物과 比較해서 上昇할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理由도 存在하지 않는다」¹²⁰⁾ 그리고 또 Marshall 은 金·銀의 効用勞動量이 一定하다는 것도 認識하고 있었

114) 「우리는 均衡相對價格이 決定된 後에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를 단지 絕對價格水準을 決定지우기 위해서, 方程式 (10) (11) (12)에서는 決定될 수 없는 乘因子 (multiplicative factor)를 決定하기 위해서 導入한다. [(10) (11) (12)는 商品의 需給方程式] 貨幣數量方程式은 緊要한 (essential) 方程式 (10) (11) (12)에 대한 하나의 附錄(appendix)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均衡相對價格은 貨幣와 關係없이 決定된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한다」 (傍點原書) (E. Schneider, *Pricing and Equilibrium*. translated by T.W. Hutchison, p. 306)

115) K. Marx, *a.a.O.*, S. 129

116) A. Marshall, *Money, Credit and Commerce* 1924, p. 52

117) *ibid.*, pp. 52~53

118) *ibid.*, p. 40

119) *ibid.*, p. 53

120) *ibid.*, p. 53

다. 「金銀의 有用性은 金·銀의 貯藏量을 短時日內에는 큰 變動을 일으키지 않게 만들며, 一般的購買力으로 하여금 急激스러운 變動을 일으키지 않게 만들고, 또 數年間 滯拂된 債務에 대한 支拂手段으로서 比較的 좋은 價値尺度(fairly good standards of value)가 된다는 것은 疑心할 수 없다」¹²¹⁾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金·銀은, 모든 時代에 걸쳐서 人類의 生活手段이었던 主要穀物보다는 덜 安定된 價値尺度이었다는 Adam Smith의 見解를 踏襲하고 있다.) 「金貨價値의 安定性은 裝飾用·工業用 金에 대한 需要의 安定性에 基因한다」¹²²⁾ 이와 같이 보면, Marshall은 비록 明示的으로는 定式化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밝힌 바 있는 本位貨幣로서의 金(또는 銀)의 一般的價値尺度機能에 관해서 올바른 見解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Marshall이, 世界貨幣로서의 金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의 根據를 効用의 最大通用性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Marshall의 다음의 文章에 의해서 確認할 수 있다. 「金·銀의 支配는 대체로 모든 時代에 걸쳐 더욱 擴大되어 왔으며 強化되어 왔다」¹²³⁾ 이렇게 보면, Marshall은, 本位貨幣=世界貨幣로서의 金의 一般的交換手段機能·一般的價値尺度機能의 解明에 있어, 대체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을 適用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價値尺度論에서 價格基準論을 誘導해 내는 過程에 이르러서는, Marshall은 貨幣數量說을 提示하고 있다. 즉 Marshall은 絶對價格表示를 위한 價格基準의 理論을 提示하는 대신 貨幣價値=一般物價水準의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3. Marx의 貨幣理論

1) 『資本論』 第一卷 第一篇 第一章 第三節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値形態論도, 等價交換·投下勞動量基準交換의 前提 때문에 誤謬를 犯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은, Marx의 價値形態論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取捨選擇할 必要性에 直面하게 된다. 먼저 옳지 않은 것부터 指摘하기로 하자. Marx가 設定한 X 量商品 $W=y$ 量商品 W' 이라는 「價値方程式」이 實際로는 成立될 수 없으므로, 이 價値方程式의 基礎 위에서만 그 誘導가 可能的한, 「相對的價値形態」「等價形態」「等價物」 등의 Marx의 貨幣理論에 있어서의 核心的인 여러 概念은 自然的으로 廢棄를 免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論』 第一卷 第一篇 第一章 第三節 「價値形態 또는 交換價値」에서 展開되고 있는 理論은 一切成立되지 않는다는 判決이 내려진다. 다음에 옳다고 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오직 하나 「一般的等價物」의 概

121) *ibid.*, p. 54

122) *ibid.*, p. 49

123) *ibid.*, p. 53

念 뿐인데, 이 「一般的等價物」이라는 概念도, 「等價物」(Equivalent)이라는 誤謬概念 때문에 嚴密히 말하면 成立不可能의 概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一般的等價物」이라는 概念은, 다른 適當한 概念으로 代替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概念으로 代替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하자.

| | | | |
|-------|---------|---|-----------|
| 上衣 | 1 着 = | } | 亞麻布 20 에레 |
| 茶 | 10 封度 = | | |
| 커피 | 40 封度 = | | |
| 小麥 | 1 퀴터 = | | |
| 金 | 2 온스 = | | |
| 鐵 | 1/2 噸 = | | |
| A 商品 | x 量 = | | |
| 其他 商品 | 量 = | | |

Marx 에 의하면, 上記 價値方程式에서 亞麻布 20 에레는 上衣 1 着, 茶 10 封度, 커피 40 封度, 小麥 1 퀴터 等과의 사이에 等價交換이 行해지므로 「一般的等價物」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等價物」 또는 「等價形態」는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이 行해진다는 前提下에서 指定된 「價値尺度」와 同義語가 된다. 그러므로 「一般的等價物」은 一般的價値尺度라는 뜻을 갖게 된다.

그러나 「等價物」은 다른 또 하나의 뜻을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商品의 等價形態는……—商品의 다른 商品에 대한 直接的인 交換能力(Austauschbarkeit)의 形態이다」¹²⁴⁾ 즉 Marx 는 「等價物」의 概念 속에 「交換手段」의 意味도 包含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一般的等價物」은 一般的交換手段도 意味하게 된다.

이와 같이 Marx 의 「一般的等價物」이라는 概念은, 一般的價値尺度和 一般的交換手段의 두 개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嚴密하게 따지면 一般的價値尺度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한다. 「一般的等價物」의 「一般的」은, 亞麻布 20 에레가 上衣 1 着, 茶 10 封度, 커피 40 封度 等等的 多種目的 商品의 「價値」=平均投下勞動量의 共通測定尺度가 된다는 것 以外的 것을 意味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一般的交換手段의 「一般的」은, 「그것을 所有하면 그 사람이 要求하는 財貨의 所有者의 發見이 極히容易하게 될 수 있는」¹²⁵⁾ 그러한 特性, 「어떠한 時間과 場所に 있어 最大販買力을 갖는

124) K. Marx, *a.a.O.*, S. 60

125) C. Menger, *op. cit.*, p. 259

(those that are most easily saleable at a given time and place), 萬人에 의해서 交換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其他 어떠한 商品과도 交換될 수 있는 (acceptable to everyone in trade, and thus capable of being given in exchange for any other commodity)¹²⁶⁾ 그러한 特性, 「萬人이 다 같이 使用하는 (very general use)」 「萬人이 꼭 같이 希求하는 (most general desire)」 그러한 特性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Marx의 所謂 「價值」=平均投下勞動量과는 아무런 關聯도 없는 屬性이다. 이리하여 Marx의 貨幣理論에 있어서는, 一般的交換手段이라는 概念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Mar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一般的等價形態는 이를 發生케한 瞬間의인 社會的接觸에 따라 成立하고 消滅한다. 그것은 이 商品 저 商品으로 끊임없이 바뀌어진다. 그러나 商品交換의 發達에 따라 一般的等價形態는 主로 特別한 商品種에 附着된다. 어떠한 商品種에 附着되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偶然(zufällig)이다.¹²⁷⁾ 이와 같이 金이 貨幣로 選拔된 것은, Marx에 의하면, 必然的現象이 아니고 하나의 偶然的事項이라고 한다. 이것은 貨幣가 一般的交換手段으로서 지녀야 할 「効用の 最大通用性」이 全적으로 考慮되고 있지 않는데서 나오는 當然한 見解이다. 貨幣가 「이 商品 저 商品」으로 轉轉 바뀌어진 것은, 첫째로는 보다 큰 販買力의 貨幣商品이 보다 작은 販買力의 貨幣商品을 驅逐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一般的交換手段이 價值尺度機能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해서, 즉 効用勞動量과 投下勞動量과의 乖離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貨幣商品을 交替했기 때문이다.¹²⁸⁾

그리하여 結局『資本論』第一卷 第一篇 第一章 第三節에서 展開되고 있는 價值形態論은, 一般的價值尺度라는 「一般的等價物」의 代替概念만을 남겨놓고 蒸發되어버리는 水蒸氣的 理論이라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2) 價值尺度에 관한 Marx의 論議도 抽象的인 缺陷을 꺾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 理由도 Marx의 價值尺度論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基準交換과 等價交換만이 考慮되고 있기 때문이다. 投下勞動量・効用勞動量 거기다가 不等價交換을 想定하면 價值尺度論도 자연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價值尺度로서의 貨幣는 商品의 內在的인 價值尺度인 勞動時間의 必然的인 現象形態이다」(1-4)에서 引用)의 Marx의 規定은, 等價交換과 投下勞動量基準交

126) *ibid.*, p. 260

127) K. Marx, *a.a.O.*, S. 94

128) 宇野弘藏教授는 一般的交換手段을 「모든 사람에 대한 使用價值——一般的使用價值」라고 規定 지우고 있다 (『價值論』 一六二項). 이 「一般的使用價值」라는 概念은 「効用の 最大通用性」의 未熟한 概念規定이다. 그리고 「一般的使用價值」라는 概念은 Marx의 貨幣理論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概念이다.

換의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는 規定인데, 그 內容을 具體化·眞實化하기 위해서는 그 內容을 投下勞動量効用勞動量二元基準交換(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의 觀點에서 修正을 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Marx의 價値尺度의 概念內容自體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은 어떠한 商品의 「價値」=平均投下勞動量이, 等價交換이라는 前提 위에서 表示될 等價商品(金)의 平均投下勞動量の 크기가 아니고, 그 商品이 不等價交換을 통해서 支配하는 金의 勞動量的 크기가야 된다는 것이다. 즉 貨幣의 價値尺度는 商品이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는 貨幣의 勞動量測定尺度를意味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價値尺度로서의 貨幣는 商品의 內在인 價値尺度인 勞動時間의 必然인 現象形態」라는 命題대신에, 「一商品에 投下된 勞動量은 그 價値의 主要原因이긴 하나 그 尺度가아니다. 一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은 그 價値의 原因(cause)이 아니고 그 尺度(measure)이다」(傍點原書)라는 Malthus의 命題가 成立되어야 한다.¹²⁹⁾

그러나 商品의 支配勞動量測定尺度로서의 貨幣도, 「交換價値表現의 材料」를 提供하고, 또 商品의 交換價値(支配勞動量)를 「同分母를 갖는 크기 즉 質적으로 同一하고 量的으로 서로 比較할 수 있는 크기로써 表示」(Marx)하는 機能을 遂行해야 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變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機能은, 貨幣가 (14)(15)의 條件을 具備함으로써만 完全히 遂行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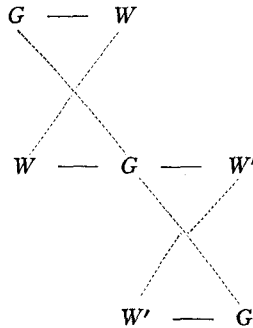
IV W-G-W' 過程에서 作用하는 交換法則

1. 前資本主義的絕對價格決定

1) 物物交換 W—W'는 貨幣의 介入을 통해서, 間接交換 W—G—W'로 移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偶然的 閉鎖인 物物交換은 止揚되고, 대신 開放적이고 多角的인 貨幣經濟가 成立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間接交換 乃至 貨幣經濟를 圓滑하게 運行케하는 推進력이, 貨幣의 一般의 交換手段機能과 一般의 價値尺度機能=價格基準設定機能이라는 것은 더 말할

129) R. Malthus, *Principles.*, 2nd ed., p.83 footnote. Malthus는 價値尺度의 두개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모든 商品의 相對價値를 쉽게 簡便하게 測定하고, 모든 販賣者로 하여금 그들이 販賣에 의해서 벌수 있는 利潤을 計算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은 貨幣에 의해서 完全히 이루어진다. 둘째로 모든 供給의 條件을 包含한 商品獲得의 困難性을 測定한다. 그리고 두개 또는 그 以上の 商品이 時間이 흐르는 過程에서 交換比率에 있어 變動을 일으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商品에서, 또 各商品에서, 어느 程度의 變化가 發生되었느냐는 것을 確認할 수 있게 만든다」(R. Malthus, op. cit., p. 84) Malthus가 物物交換經濟에서도 利潤動機가 作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II의 3—4)參照)

必要가 없다. 그리고 또 貨幣經濟의 成立과 더불어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商品生産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流通은 生産物交換의 時間的場所的 및 個人的인 限界를, 다음과 같이 打破하고 있다. 즉 流通은, 自身の 勞動生産物을 交換에 提供하는 것과 他人이 그것을 交換해 오는 것의 生産物交換에 있어서의 直接的인 一致를, 販賣와 購買와의 對立으로 分裂케 한다」는 것이다.¹³⁰⁾ 이와같이 間接交換에 있어서는, Marx가 말한대로 物物交換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는 潜在的으로 存在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販賣 $W-G$ 와 購買 $G-W$ 라는 貨幣經濟에 特有的 交換行爲가 表面에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또 販賣即 購買, 購買即 販賣라는 *coincidentia oppositorum*[對立의 統一]이 成立된다. 「販賣는 購買이다. $W-G$ 는 同時에 $G-W$ 이다,」¹³¹⁾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流通過程이 成立된다(第5圖).



第5圖

이 流通過程에서는, 「4個의 極과 3人의 登場人物」이 想定되고 있다. 즉 第一段階에서는, 販賣者인 商品所有者에 대해서 購買者인 貨幣所有者가 對應하며, 第二段階에서는, 第一段階에서 販賣者인 商品所有者가 購買者인 貨幣所有者가 되며 거기에 대하여 第三의 販賣者인 商品所有者가 對應한다.

$W-G-W'$ 는, 또 「購買하기 위해서 販賣」하는 商品流通過程이다. 즉 「出發點에서는 商品은 그 所有者에게 非使用價値이지만, 終局點에서는 使用價値이다」¹³²⁾ 그리고 또 「貨幣는 流通手段으로서 항상 流通部面에 머무르고 있으며 항상 여기서 回轉하고 있다」¹³³⁾ 以上の Marx의 말들은 모두가 옳은 말이다.

130) K. Marx, *a.a.O.* S., 118

131) *ibid.*, S. 113

132) *ibid.*, S. 116. 여기서 Marx가 自己所有의 財貨가 「非使用價値」이기 때문에 交換에 提供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嚴密히 말하면 틀린 理論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後述하기로 한다 (2-3).

133) *ibid.*, S. 122

2) 이와같이 商品流通에 관해서 Marx가 『資本論』第一卷 第一篇 第三章에서 展開하고 있는 理論은 모두가 妥當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하나의 重大한 誤謬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商品의 絶對價格決定에 관한 理論이다. Marx는 「價格은 商品에 對象化되고 있는 勞動(vergegenständlichte Arbeit)의 貨幣名」(傍點原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말이다.¹³⁴⁾ 이 誤謬도 投下勞動量基準交換과 等價交換을 內容으로 하는 Marx의 價値法則에 緣由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結論부터 먼저 말하면, $W-G-W'$ 過程에서는, Marx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은 適用될 수 없고,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이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Marx는 商品의 絶對價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지우고 있다. 「이미 貨幣商品으로서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商品, 이를테면 金에 의한 一商品 이를테면 亞麻布의 單純한 相對的價値表現이 價格形態이다. 亞麻布의 『價格形態』는 따라서

亞麻布 20에테 = 金 2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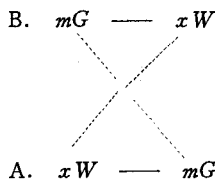
또는 金の 鑄貨名이 2 파운드·스터링이라고 하면,

亞麻布 = 2 파운드·스터링이 된다」¹³⁵⁾

「여기서 金은 直接의 勞動生産物로서, 同一價値의 다른 勞動生産物과 交換된다. 이 瞬間부터 항상 金은 實現된 商品價格을 나타내고 있다」¹³⁶⁾ 이리하여 結局 「價格은 商品에 對象化된 勞動의 貨幣名」이라는 理論이 成立할 수 있게 된다.

3) 그러나 事實은 그렇지가 않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確認해야 할 事項은, $W-G-W'$ 過程에 있어서도 交換條件으로서 II의 1의 不等式 (2)가 그대로 成立된다는 것이다.

지금 商品所有者인 A와 貨幣所有者인 B사이에서 x 量의 W 商品과 m 量의 貨幣金 G 의 交換이 行해졌다고 하자. $xW-mG$ (第 6圖). (W -單位の 價格 $\frac{mG}{x} = P$)



第 6圖

134) *ibid.*, S. 106

135) *ibid.*, S. 76

136) *ibid.*, S. 114

그럴때 A 에게 있어서는 다음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

$$L_A(mG) > L_A(xW)$$

$$L_A(mG) > L(xW)$$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W 商品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므로

$$L_A(xW) > L(xW)$$

가 成立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不等式

$$L_A(mG) > L_A(xW)$$

은 不等式

$$L_A(mG) > L_A(xW)$$

에 包含된다. 여기서 또 한가지 注意해둘 事項은, 生産者=消費者는 自己所有의 財貨가, Marx 가 말한대로, 「非使用價值」이기때문에 交換에 提供하는 것이 아니고, 그 財貨도 效用을 갖지만 그 代價로써 보다큰 效用의 財貨가 獲得될 수 있기때문에 交換에 提供한다는 것이다(註 131 參照).

다음에 B 에 있어서도 똑같이 다음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

$$L_B(xW) > L_B(mG)$$

그러나 幣幣의 一般定式에 의해서

$$L(mG) = L_A(mG) = L_B(mG)$$

이므로

$$L_B(xW) > L(mG) > L_A(xW) \dots\dots\dots(16)$$

가 成立된다.¹³⁷⁾ 지금 W 商品의 (最終의) 一單位에 대한 A, B의 效用勞動量을 $L_A(1W)$, $L_B(1W)$ 로서 表示하면, $L_A(1W)$, $L_B(1W)$ 는 同一勞動量의 金量, 따라서 價格으로 表示될

137) 「Jevons 以來의 모든 經濟學자가 認識하고있었는바와 같이, 最適交換條件은 決코 效用의 個人間比較(interpersonal comparison of utility)에 依存하지 않고 效用의 個人內比較(intrapersonal comparison of utility)에만 依存한다는 것이다.」(M. Blaug. op. cit., p. 589) 이 Blaug의 말은 不等式 (3)에는 適用되지만 不等式(16)에는 適用되지를 않는다. 즉 W-W'過程에서는 交換條件은 「效用의 個人內比較」에 依存하지만, W-G-W'過程에서는 交換條件은 「效用의 個人間比較」에 依存한다는것을 不等式(3)과 (16)은 가르쳐주고있다.

수 있다. 이것이 곧 A, B 의 W 商品 一單位에 대한 (限界) 需要價格에 다름없다. 그리고 $L_A(1W)$, $L_B(1W)$ 는 $L_A(xW)$, $L_B(xW)$ 의 第一次 導函數 $L'_A(xW)$, $L'_B(xW)$ 와 같다. 이리하여 (限界) 效用勞動量의 貨幣名이 곧 (限界) 需要價格이라는 命題가 成立된다.

$$\left. \begin{aligned} L_A(1W) &= L'_A(xW) = L(uG) = uG = P_d^A \\ L_B(1W) &= L'_B(xW) = L(vG) = vG = P_d^B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7)$$

P_d^A , P_d^B 는 A, B 의 W 商品 一單位에 대한 (限界) 需要價格을 表示한 것이다. 이와같이 需要價格은 效用勞動量概念, 貨幣理論을 媒介로 함으로써 비로써 到達될 수 있는 概念이다. 그리고 또 販賣者 A 의 需要價格 P_d^A 는 供給價格 P_s^A 로 轉換된다. 따라서 $P_d^A = P_s^A = \varphi(s)$ [但 $s = a - x$, s 는 供給量을, a 는 A 의 W 商品의 所有權을 各各 表示함]가 成立된다. 이리하여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이 成立된다고 하면, $\varphi(s)$ 는 右上曲線이 되고 $L'_B(xW)$ 는 右下曲線이 된다.¹³⁸⁾

$$\begin{aligned} \varphi'(s) &> 0 \quad [\because L''_A(xW) < 0] \\ L_B''(xW) &< 0 \end{aligned}$$

但 $L'_A(xW)$, $L'_B(xW)$ 는 $L_A(xW)$, $L_B(xW)$ 의 第二次 導函數를 表示한다.

그런데 不等式(16)이 「交換剩餘의 極大」를 表示한다고하면 $P = P_s^A$, $P = P_d^B$ 가 成立되므로, 不等式(16)은 理論上方程式(18)과 同一한 意味를 갖게된다.

$$\left. \begin{aligned} P &= P_s^A = P_d^B \\ d &= d(P) \\ s &= s(P) \\ d(P) &= s(P)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8)$$

但 P 는 W 商品 一單位의 貨幣金으로 나타낸 價格, d 는 個別需要量, s 는 個別供給量을 各各 表示한다.¹³⁹⁾ $d = d(P)$, $s = s(P)$ 는 $P = P_d^B$, $P = P_s^A$ 로 부터 各各 誘導될 수 있다.¹⁴⁰⁾ 그리고 方程式 $d(P) = s(P)$ 가 理論적으로 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4) (16) 또는 (18)에서 絶對價格決定의 指針이 되고 있는 것은, 交換當事者들의 W 商

138) 여기서 供給은 「뒤집은 需要」가 된다.

139) $P = \frac{m}{x}G = L\left(\frac{m}{x}G\right)$. 이것은 또 (14)의 條件을 充足시켜야한다.

140) $P_d = f(d)$ 이므로 [$f'(d) < 0$] $P = P_d$ 일 때는 $P = f(d)$ 가 된다. 이로부터 $d = g(P)$ 가 誘導된다. 그리고 P_s 는 販賣者의 P_d 와 一致하므로 ($P_s = P_d$), $P_s = \varphi(s)$ 가 成立된다. 但 $s = a - d$ (a 는 所有量) $P = P_s$ 일 때는 $P = \varphi(s)$ 가 되며 이로부터 $s = \phi(P)$ 가 誘導된다. 그리고 $f'(d) < 0$ 일 때에는 $\varphi'(s) > 0$ 가 成立된다.

品에 대한 主觀的인 (限界) 効用勞動量=(限界)需要價格이다. 그리하여 xW 또는 $1W$ 에 대한 反對給付로 얻어지는 mG 또는 $\frac{m}{x}G$ 의 金量은 바로 W 商品의 x 量 또는 一單位의 價格인데, 그것은 $[L(mG), L(\frac{m}{x}G)]$ 또 W 商品의 x 量 또는 一單位가 交換過程에서 支配하는 金量의 勞動量을 表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價格은 商品에 對象化된 勞動의 貨幣名」이라는 命題대신에 「(絶對) 價格은 商品이 支配하는 一定의 金量의 勞動量의 貨幣名」이라는 命題가 成立된다. 여기서 注意해야될것은, $W-G-W'$ 過程 즉 單純商品生産에서 形成되는 價格은, 다만 第二章에서 본 交換條件 不等式(3)에 의해서 規制될뿐, 즉 効用基準交換에 立脚한 交換剩餘極大化에 의해서 決定될뿐, 그외에 價格形成에 參與하는 其他 動機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W-G-W'$ 過程 즉 單純商品生産에서 形成되는 絶對價格은 前資本主義的 絶對價格이라고 할수 있다. 前資本主義的 絶對價格은 $G-W-G' \cdot G-W \dots P \dots W'-G'$ 등의 資本主義的 交換過程에서 成立되는 資本主義的 絶對價格과 嚴密히 區別되어야 한다. 資本主義的 絶對價格의 形成에는 利潤動機가 參與하기 때문이다.

5) 그런데 不等式(16) 또는 方程式(18)은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과 結果적으로 一致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Böhm-Bawerk¹⁴¹⁾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人的 交換希望者사이의 孤立交換에 있어서는, 價格은 購買者에 의한 商品의 主觀的評價를 上限으로하고 販賣者에 의한價值評價를 下限으로 하는 範圍內에서 決定된다」¹⁴¹⁾ 여기서 Böhm-Bawerk가 말하는 「購買者에 의한 商品의 主觀的評價」란, 곧 商品을 獲得하고자하는 貨幣所有者의 商品에 대한 効用勞動量=需要價格, 즉 $L_B(xW) = L_B(1W) = P_d^B$ [Böhm-Bawerk의 경우 $x=1$ 이므로]을 意味하며, 「販賣者에 의한 價值評價」란, 곧 貨幣를 獲得하고자 商品을 提供하려고하는 商品所有者의 自己所有商品에 대한 効用勞動量=需要價格, 즉 $L_A(xW) = L_A(1W) = P_d^A = P_s^A$ 를 意味한다. 그런데 Böhm-Bawerk는, 「主觀的 評價」(効用)를 (17)의 理論的 媒介없이 價格으로써 表示하고 있다. 「農夫 A가 말(馬)을 必要로 하고, 그리고 그 個人的 事情에 의해서 그 必要는 말의 所有에 300 프로린의 돈의 所有와 같은 價值를 둘 程度라고 하자 云云」¹⁴²⁾ 그리하여 購買者는 말을 300 프로린 [= $L_B(xW) = L_B(1W) = P_d^B$]으로 評價하고 販賣者는 말을 100 프로린 [= $L_A(xW) = L_A(1W) = P_d^A = P_s^A$]으로 評價할때에는, 價格은 300 프로린과 100 프로린사이에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L_B(xW) > P > L_A(xW)$]. 그러나 이와같은 Böhm-Bawerk의 理論은, 300 프로린, 100 프로린 등의 需要價格 및 供給價格表示가

141)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I. S. 270

142) *ibid.*, S. 269

根元的解明없이 이루어졌으므로, 結局 循環理論의 誤謬에 빠지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Böhm-Bawerk 에 있어서는, 貨幣理論이 缺如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Böhm-Bawerk 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은 循環理論에 빠지고있는 缺陷은 있으나, $W-G-W'$ 過程에서는 通用될수 있는 妥當性を 갖는다. 마치 Walras·Wicksell·Marx 等の 相對價格決定理論이, $W-W'$ 過程에서단은 通用될 수 있는 制限된 妥當性を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하여 우리의 當面課題는, Böhm-Bawerk 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을 (14)(15)(16)(17)로써 補充함으로써 그것을 循環理論으로부터 脱却시키는 일이 된다.

6) Böhm-Bawerk 는 價格決定을, ① 孤立交換에 의한 價格決定, ② 購買者의 一方的的競爭에 의한 價格決定, ③ 販賣者의 一方的的競爭에 의한 價格決定, ④ 雙方的競爭에 의한 價格決定等 4 個의 case 로 分類하고 있다.¹⁴³⁾ ①은 이미 보았으므로 나머지 3 個 case 를 차례로 보아야 하겠으나, ②③은 省略하고 ④만을 取扱하기로 하겠다. 「雙方的競爭에 의한 價格決定」을, Böhm-Bawerk 는 有名한 周知의 다음과 같은 例로써 說明하고 있다.¹⁴⁴⁾ 즉 말(馬)을 한마리씩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 人이 있고, 또 말을 한마리씩 팔려고 하는 사람이 8 人이 있다고 하고, 各交換當事者들의 말에 대한 主觀的評價(=効用=効用勞動量=需要價格)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第 7 圖).

| 販賣者 | | | 購買者 | | |
|----------------|------------|--------|-----------------|------------|--------|
| B ₁ | 의 말에 대한 評價 | =100fl | A ₁ | 의 말에 대한 評價 | =300fl |
| B ₂ | " | =110fl | A ₂ | " | =280fl |
| B ₃ | " | =150fl | A ₃ | " | =260fl |
| B ₄ | " | =170fl | A ₄ | " | =240fl |
| B ₅ | " | =200fl | A ₅ | " | =220fl |
| B ₆ | " | =215fl | A ₆ | " | =210fl |
| B ₇ | " | =250fl | A ₇ | " | =200fl |
| B ₈ | " | =260fl | A ₈ | " | =180fl |
| | | | A ₉ | " | =170fl |
| | | | A ₁₀ | " | =150fl |

第 7 圖

이와같은 狀況下에서는, 價格은 「2 組의 限界對偶(A₅, A₆B₅B₆)의 主觀的評價」에 따라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즉 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을 均等하게 만드는 範圍內에서 (5頭), 즉 215 프로린을 上限으로 하고 210 프로린을 下限으로 해서 그사이에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上表(第 7 圖)로 부터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需要函數와 供給函數가 誘導된다. 이리하여

143) *ibid.*, SS. 269~279

144) *ibid.*, S. 271

價格은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의 交叉點에서 決定된다.

그런데 Böhm-Bawerk의 경우에 있어,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非連續曲線이 되므로, 價格이 一義的으로 決定되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이 一致하는 範圍內에서, 즉 어떠한 價格을 上限으로 하고 어떠한 價格을 下限으로 하여, 그사이에서 決定된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이리하여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인 「限界對偶의 法則」이 成立되며, 價格形成에 所謂「흥정의 餘地」(Spielraum für das Feilschem)¹⁴⁵⁾가 介入하게 된다. 그러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連續曲線이 된다고 하면, 價格은 一義的으로 決定되며 「흥정의 餘地」도 消失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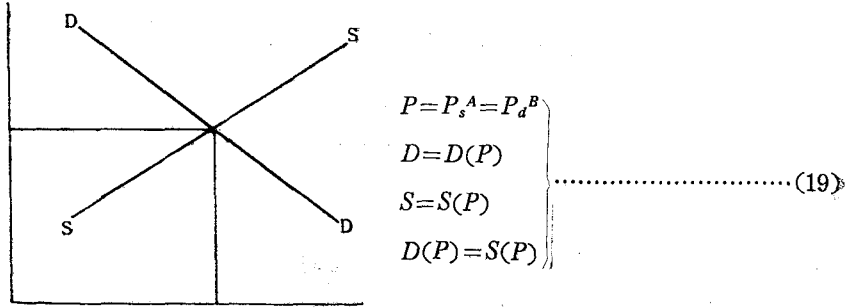
그런데 Walras의 供給이 Blaug가 말한 「뒤집은 需要」이었던 같이, Böhm-Bawerk의 供給函數도 뒤집은 需要函數였었다. 「뒤집을수 있는 供給曲線(reversive supply curve)이라는 概念을 最初로 提示한 것은, Böhm-Bawerk의 有名한 말(馬)市場의 例—거기에서는 말의 販賣者自身이 말에 대한 用途를 갖고 있는 農民이다—에서였다. 여기서는 供給은 商品生産에 드는 實質費用(real cost)에 의해서가 아니라, 供給者自身이 갖고 있는 用途를 包含한 其他用途를 排除하는 費用(cost of excluding other uses)에 의해서 決定된다」(傍點原書)¹⁴⁶⁾ 이와같은 需要價格=供給價格의 理論이 代替費用의 理論에 屬한다는 것을, Blaug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代替費用의 理論은 모든 費用을 先行의 効用에 歸屬還元시킴으로써 需要와 供給을 둘다 効用에 依存시킨다」¹⁴⁷⁾ 前記한바와 같이 (Ⅱ의 1—2), 代替費用의 理論은 交換되는 各商品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는 單純商品生産에서 妥當性を 갖는다.¹⁴⁸⁾ 이리하여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을 方程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D 를 總需要量, S 를 總供給量이라고하면, 方程式(19)가 成立된다 (第8圖).

145) *ibid.*, S. 269

146) M. Blaug, *op. cit.*, P. 491. Wicksteed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需要曲線과 나란히 보통 價格의 一決定要因으로서 나타나는 供給曲線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나는 大膽하게 그리고 率直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러한 것은 存在하지 않는다」(傍點原書). 「보통 供給曲線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은 財貨所有者들의 需要曲線이다.」(Wicksteed, *Common Sense of Political Economy* P. 785) cf. Blaug, *op. cit.*, P. 490

147) *ibid.*, P. 492

148) 「代替費用의 理論의 重要性은, 그 信奉者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모든 實質費用價值論의 誤謬를 밝혀주는데 있다는 것이다」(傍點原書) (M. Blaug, *op. cit.*, P. 492). 그러나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代替費用의 理論과 實質費用의 理論은, Entweder-oder의 關係에 있는것이 아니고, 各其 固有의 妥當性領域을 지닐수 있다는 것이다. 즉 代替費用의 理論은, $W-W'$, $W-G-W'$ 의 過程 즉 前資本主義的의 商品生産에 있어 妥當性を 갖는 反面, 實質費用(勞動費用)의 理論은 資本主義的의 商品生産에 있어 妥當性を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總括하는 것이, 交換의 一般理論의 着眼點의 하나이다.



第 8 圖

$P = P_d^A$, $P = P_s^B$ 는 「交換剩餘의 極大」를 表示하며, 또 個別需要函數 $d = d(P)$, 個別供給函數 $s = s(P)$ 를 誘導해내는 基礎가 되며, 그리고 또 $d(P)$, $s(P)$ 의 合計가 $D(P)$, $S(P)$ 가 된다.

$$D(P) = \sum d(P)$$

$$S(P) = \sum s(P)$$

그리고 $D(P) = S(P)$ 가 理論的으로 値를 가질수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리고 이 需給均衡을 必然化하는 것도 「交換剩餘의 極大」이다.

그리고 또 方程式(19)가 다음 不等式(20)과 理論的으로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begin{aligned}
 &L(m_1 G) > L_{A_1}(x_1 W) \quad L_{B_1}(x_1' W) > L(m_1' G) \\
 &L(m_2 G) > L_{A_2}(x_2 W) \quad L_{B_2}(x_2' W) > L(m_2' G) \\
 &\dots\dots\dots \\
 &L(m_r G) > L_{A_r}(x_r W) \quad L_{B_r}(x_r' W) > L(m_r' G)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dots = \frac{m_r}{x_r} = P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dots = \frac{m_r'}{x_r'} \\
 &m_1 + m_2 + \dots\dots + m_r = m_1' + m_2' + \dots\dots + m_r' \\
 &(x_1 + x_2 + \dots\dots + x_r = x_1' + x_2' + \dots\dots + x_r')
 \end{aligned}
 \tag{20}$$

結局 Böhm-Bawerk 의 絶對價格決定理論도, Walras 의 相對價格決定理論과 同一構成內容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交換法則 I)과 需要供給의 法則(交換法則 II)의 둘로써 構成되고 있으며 後者는 前者로부터 「交換剩餘의 極大」를 媒介로해서 誘導될 수 있다는 것이다. 但 Böhm-Bawerk 의 絶對價格決定理論에는 理論的性質上 貨幣理論이 包含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Böhm-Bawerk 에 있어서는 缺如되고 있다. Böhm-Bawerk 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의 抽象性이 여기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이 具體化

되기 위해서는, 貨幣數量說에 의해서가 아니라, (14) (15) (16) (17)에 의해서 補充되어야 한다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

7) 以上을 통해서 Böhm-Bawerk의 絶對價格決定理論은, W—G·G—W 過程에서 通用될 수 있는 理論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從前의 W—W' 過程에서 成立되는 交換剩餘가, W—G·G—W 過程에서는 Marshall의 所謂 消費者剩餘와 生産者剩餘의 두가지 形態의 交換剩餘로 分裂된다는 事實이다.

W—W' 過程에서는 第二章 I의 不等式 (5)의 경우에 있어

$$\begin{aligned}
 &L_{A_1}(y_1 W') - L_{A_1}(x_1 W) \quad L_{B_1}(x_1' W) - L_{B_1}(y_1' W') \\
 &L_{A_2}(y_2 W') - L_{A_2}(x_2 W) \quad L_{B_2}(x_2' W) - L_{B_2}(y_2' W') \\
 &\dots\dots\dots \\
 &L_{A_m}(y_m W') - L_{A_m}(x_m W) \quad L_{B_n}(x_n' W) - L_{B_n}(y_n' W') \\
 &\sum_{r=1}^m \{L_{A_r}(y_r W') - L_{A_r}(x_r W)\} \quad \sum_{r=1}^n \{L_{B_r}(x_r' W) - L_{B_r}(y_r' W')\}
 \end{aligned}$$

의 交換剩餘가 成立된다. 但 $\frac{y_1}{x_1} = \frac{y_2}{x_2} = \dots = \frac{y_m}{x_m} = P = \frac{y_1'}{x_1'} = \frac{y_2'}{x_2'} = \dots = \frac{y_n'}{x_n'}$, $x_1 + x_2 + \dots + x_m = x_1' + x_2' + \dots + x_n'$, ($y_1 + y_2 + \dots + y_m = y_1' y_2' + \dots + y_n'$.)

그런데 W—G·G—W 過程에서는, 貨幣金 G의 介入을 통해서, W—G 過程에서는 生産者剩餘라는 形態의 交換剩餘가, G—W 過程에서는 消費者剩餘라는 形態의 交換剩餘가 各各 成立된다. 즉 不等式(20)에서 다음과같은 生産者剩餘와 消費者剩餘가 成立된다.

| | |
|--|--|
| 生産者剩餘 | 消費者剩餘 |
| $L(m_1 G) - L_{A_1}(x_1 W)$ | $L_{B_1}(x_1' W) - L(m_1' G)$ |
| $L(m_2 G) - L_{A_2}(x_2 W)$ | $L_{B_2}(x_2' W) - L(m_2' G)$ |
| | |
| $L(m_r G) - L_{A_r}(x_r W)$ | $L_{B_i}(x_i' W) - L(m_i' G)$ |
| $\sum_{i=1}^r \{L(m_i G) - L_{A_i}(x_i W)\}$ | $\sum_{i=1}^i \{L_{B_i}(x_i' W) - L(m_i' G)\}$ |

但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 P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i'}{x_i'}$,

$m_1 + m_2 + \dots + m_r = m_1' + m_2' + \dots + m_i'$
 $(x_1 + x_2 + \dots + x = x_1' + x_2' + \dots + x_i')$

그리고,

$$\begin{aligned} & \sum_{i=1}^r \{L(m_i G) - L_{A_i}(x_i W)\} \\ &= \sum_{i=1}^r \sum_{j=1}^n (P - P^{A_i s_j}) \\ & \sum_{i=1}^t \{L_{B_i}(x_i' W) - L(m_i' G)\} \\ &= \sum_{i=1}^t \sum_{j=1}^n (P^{B_i d_j} - P) \end{aligned}$$

(但 n는 $P=P_d$, $P=P_s$ 이 될때의 需要量, 供給量)

로 表示될 수 있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2. W—G—W' 過程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1) 貨幣를 媒介로 한 間接交換, 또는 貨幣를 媒介로 한 商品生産의 成立과 더불어, 社會的分業은 本格化하기 시작했다. W—W'로부터 W—G—W'에로의 發展은, 確實히 人類文明의 巨大한 一步前進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文明의 巨大한 一步前進이었다고 하더라도, W—W'와 W—G—W'의 兩交換形態의 사이에는 本質的인 差異가 없다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왜냐하면 兩交換形態의 出發點에는 꼭같이 商品이 있고 또 終局點에도 역시 꼭같이 商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둘다 消費를 目的으로 한 商品交換을 意味하며, 다만 形態에 있어서의 差異를 나타낼 뿐이다. (G—W—G', G—W...P... W'—G'는 決코 消費를 目的으로 한 商品交換이 아니다.) 따라서 兩交換形態에 있어 作用하는 交換法則도 消費를 目的으로 하는 商品交換의 法則뿐이다. 즉 거기서는 交換을 통한 効用に 立脚한 交換剩餘의 獲得이 唯一한 交換行動의 動機가 된다. 그것은 W—G와 G—W의 二段階를 거쳐서 貫徹된다. 물론 그 反對方向 G—W·W—G에서 第二人者·第三人者에 의해서 交換剩餘가 追求되고 있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W·G·W' 등이 表示하는 具體的勞動量을 抽象的單純勞動으로 換算해서 考察할 때, W—G—W'가 반드시 事後的으로 等價交換이 된다는 保障은 없다는 것도 自明의 理致에 屬한다. 물론 等價交換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必然性도 存在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一般의으로는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는데 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偶然的인 特殊 case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Marx는, II의 3-2에서 보았는 바와같이, W—W'過程에서는 必然的인 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W—G—W'過程에서도 必然的인 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고 하였다. 그리하여 貨幣는, 其他 모든 商品의 價値의 「一般的等價物」이 될 수 있었다.¹⁴⁹⁾

그런데 Marx의 等價交換의 法則은, Sweezy가 말한 바와 같이, 「生産分野間에 있어서의 아무 支障이 없는 勞動의 即刻的인 自由移動」이 可能한 限界內에서만 成立될 수 있다. 그리고 「生産分野間에 있어서의 아무 支障이 없는 勞動의 即刻的인 自由移動」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II의 3-2), ① 勞動手段과 原材料를 使用하지 않고 勞動만으로 生産이 行해지고 있으며, ② 複雜勞動이 存在하지 않고 單純勞動만이 存在하며, ③ 交換當事者들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을 知悉하고 있다는 三個條件이 成立되어야 한다. (그밖에 交換條件 不等式 (3) 또는 (5) 方程式 (6) (7) [또는 (8)] 도 成立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三個條件은 社會的分業의 初期的段階인 W-W' 時代에 있어서만 成立이 可能하며, 貨幣의 發生을 契機로 社會的分業이 本格化된 W-G-W' 時代에 있어서는, 그 成立이 絶對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W-G-W' 過程에서는, 一般的으로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며 等價交換은 하나의 偶然的인, 特殊한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3) 우리는 이제까지 交換當事者들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에 관한 情報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等價交換이 成立되지 않는 條件의 하나로 看做해 왔다. 그러나 設使이 條件이 充足된다고 하더라도, 이 條件의 充足하나만으로써는 等價交換의 成立은 可能하지않다는 것을 다음에 밝히고자 한다. 즉 交換當事者들이, 서로가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抽象的單純勞動量으로 算出된)을 知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문에 等價交換이 行해진다는 保障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어떠한 사람이, 金 $ag=5$ 勞動時間(=投下勞動量=効用勞動量)을 支拂하고 빵한쪽=1 勞動時間(=投下勞動間)을 購買했다고 하자. 물론 이 購買者는 金 ag 과 빵한쪽에 包含되고 있는 勞動量(抽象的單純勞動으로 換算된)을 알고 交換했기 때문에 意識的事前的인 不等價交換이 行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이 購買者는 그와같은 不利한 不等價交換을 認識하면서 購買行動을 했을까. 그 理由는 明白히, 그 購買者의 빵한쪽에 대한 主觀的評價=効用勞動量이 이틀테면 10 勞動時間으로서 (飢餓狀態에 있었다고 하면), 5 勞動時間보다 컸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不利한 不等價交換을 認識하면서도 그 購買를 통해서 交換剩餘가 獲得된다는 것이 確實히 認識되면, 그 購買行動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빵의 販賣行動에 의해서도 꼭 같이 交換剩餘가 獲得된다고 假定한다.) 물론 거기에는 빵의 購買者는 自己自身の 勞動에 의해서 빵을 生産할 수 없다는 것이 前提되고 있어야 한다. 즉 交換되는 兩商

149) K. Marx, a.a.O. S. 106

品の 投下勞動量에 관한 情報는 주어지고 있으나 「生産分野間에 있어서의 아무 支障이 없는 即刻的인 勞動의 自由移動」은 不可能하다는 것은 계속 前提되고 있어야 한다.

4) 그리고 또 販賣行動 $W-G$ 와 購買行動 $G-W$ 는, 그 不等價交換의 形態에 있어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販賣行動 $xW-mG$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交換剩餘가 獲得되어야 한다. 즉 다음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販賣者를 A 라고 한다.)

$$L_A(mG) > L_A(xW)$$

$$L_A(mG) > L(xW)$$

그런데 $L_A(mG) = L(mG)$ 이므로

$$L(mG) > L_A(xW)$$

$$L(mG) > L(xW)$$

가 成立된다. 이것은 곧 A 에게 有利한 不等價交換을 表示한다.

한편 購買行動 $mG-xW$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역시 交換剩餘가 獲得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條件이 成立되어야 한다. (購買者를 B 라고 한다.)

$$L_B(xW) > L_B(mG)$$

$$L_B(xW) > L(mG)$$

그리고 역시 $L_B(mG) = L(mG)$ 이므로

$$L_B(xW) > L(mG)$$

가 成立된다. 이것은 B 에게 有利한 不等價交換인지 不利한 不等價交換인지 分明치 않으나, 이 條件만 充足되면 B 는 購買行動을 한다는 그러한 條件이다. 그러나 販賣行動 $xW-mG$ 와 購買行動 $mG-xW$ 는 同一交換行動의 分裂된 兩側面이므로, $L_B(xW) > L(mG) > L(xW)$ 라는 條件으로써 賣買行動이 이루어진다면, 販賣者 A 에게 有利한 不等價交換은 분명히 購買者 B 에게 不利한 不等價交換이 된다는 것은 自明의 理致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一般의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金의 一定量에 包含되고 있는 投下勞動量(= A 의 效用勞動量= B 의 效用勞動量)이, 모든 商品의 價値尺度·價格基準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므로 天下公知의 事實에 屬하며, 또 自己가 販賣行動에서 提供하고자 하는 商品의 投下勞動量도 既知事項에 屬하므로, 販賣行動 $xW-mG$ 은 販賣者 A 에게 計算된 事前的의 不等價交換인데 대하여, 購買行動 $mG-xW$ 의 경우는, 自己가 提供하고자 하는 貨幣金에 包含된 勞動量은 認識하고 있으나, 自己가 獲得하고자 하는 一定量의 商品속에 包含되고

있는 勞動量은 認識할 수 없고 다만 그 效用勞動量만을 알고 있으므로, 結局 事後的 不等價交換이 된다는 理論이다. 이와같이 販賣行動은 販賣者 A에게 확실히 有利한 不等價交換이라고 할 수 있으나, $W-G-W'$ 過程全體를 두고 생각하면, 반드시 販賣者 A에게 有利한 不等價交換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 理由는, 販賣者 A는, $W-G$ 過程에서 有利한 不等價交換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G-W$ 過程에서는 不利한 不等價交換을 強要當하기 때문이다.

5) $W-G-W'$ 過程에서 行해지고 있는 不等價交換은,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다. $W-W'$ 過程에서나 $W-G-W'$ 過程에서나, 통틀어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고 있다. 그리고 上記한 바와 같이, 販賣行動에서 意識的計劃的 不等價交換이 行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效用基準交換에 立脚한 交換剩餘의 獲得이 主目的이며, 利潤의 獲得이 主目的이 아니다. 이러하여 交換法則 III (支配勞動量交換 : 不等價交換) 도 Walras의 相對價格決定理論에 있어서와 같이 Böhm-Bawerk의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에 있어서도 꼭같이 成立된다. 그러나 Walras의 相對價格決定理論이 交換法則 III을 誘導해 낼 수 없었던 點에서 抽象的이었던 것과 같이, Böhm-Bawerk의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도 交換法則 III을 誘導해 낼 수 없었던 點에서 꼭같이 抽象的이었었다.

[筆者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